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차 례

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11장 혁명의 분수령

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제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새사단의 탄생
20원
혁명전우 장울화(1)
혁명전우 장울화(2)
조국광복회

■ 시기 : 1936. 3 ~ 1936. 5

1. 새 사단의 탄생

미혼진을 떠날 때의 우리 일행은 20명도 안되었다. 2명의 나어린 전령병과 오백룡을 포함한 10명의 호위성원들, 김산호와 화룡오지에서 서당훈장을 하다가 우리를 찾아온 ≪대통영감≫, 이들이 내가 거느린 식솔의 전부였다. 관지에서부터 우리를 따라온 왕청연대의 1개중대도 북만의 부대들에 합류하기 위하여 의란현방면으로 떠나갔다.

나는 비록 홀가분한 차림으로 길을 떠났으나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생각으로하여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어서 무송땅으로 나가자. 마안산에 가면 2연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기둥삼아 무적의 새 사단을 꾸리리라.≫

이것이 미혼진을 떠날 때의 나의 심정이였다.

새 사단을 조직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노선을 관철해 나가는데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관건적인 문제였다.

이제는 우리가 조선혁명에 주력하는 것을 어느누구도 감히 시비하거나 훼방해 나설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탐색해왔고 축성해왔던 조선혁명의 궤도우에는 그 어떠한 차단봉도 가로질러 있지 않았다.

그 궤도를 따라 곧바로 질주해 나가면 조국광복이라는 경축광장에도 가닿게 되고 인민의 나라라는 별천지에도 가닿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자면 그 궤도우로 달리게 될 든든한 기관차와 차량들을 마련해야 했고 위력한 사령지휘처도 꾸려야 했다.

조선혁명의 선두기관차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새로 조직하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창립하려는 조국광복회는 그 기관차 뒤를 따라가는 열차차량에 비길 수 있었다. 미구에 타고 앉으려는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사령지휘처라고 할가. 우리는 이러한 과업수행에 지체없이 매진하여야 하였다.

그때 우리가 꾸리려고 구상했던 새 사단은 일제의 군대와 경찰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군사활동만을 벌이는 본래의미에서의 사단만이 아니였다. 이 사단은 군사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목표로 삼은 백두산에 나가 국내도처에 당조직망도 확대하고 조국광복회나 여러 가지 반일조직을 통하여 전망을 반일항전에 집결하고 영도해 나가야 할 정치군대로서의 새로운 임무와 면모를 갖추어야 했다. 물론 이런 임무는 다른 사단들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든 부대들의 앞장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역사단이 있어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주역사단을 조선혁명의 기관차라고 특징지었다.

조선혁명의 기관차역할을 담당수행하여야 할 강위력한 주력부대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나의 의논상대가 되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항일연군 각 부대들에 산재해 있는 조선청년들을 모조리 불러다 대집단군을 편성해가지고 백두산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군관하의 여러 부대들에서 끌끌한 유격대원들만을 특별히 따로 선발하여 주력부대를 꾸려야 한다고 역설하는 전우들도 있었다. 일리가 있는 안들이였으

나 이런 의견의 제창자들은 예외없이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함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동무들 운명이나 우리의 공동투쟁의 발전전망 같은 것은 안중에 두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사고의 출발점을 주력부대부터 꾸리고 보아야 한다는데 두고 있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부대본위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결국 북만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수백 명의 원정대원들을 위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대들에 나누어주고 무송땅에 나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2연대사람들을 기본성원으로 하고 여기에 동만일대와 국내의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들여 새로운 주력부대를 꾸리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미혼진을 떠나올 때 왕덕태는 적들의 목재소를 치고 노획해 왔다는 말 스무나문마리를 우리에게 선사하였다.

≪공들여 키워온 용사들을 북만사람들에게 다 떼주고 이렇게 홀몸으로 떠나가는 김사령을 보니 미안하기 그지없소. 사람대신 이 말들이라도 타고가며 길동무로 삼아주시오. 훈련을 받던 말들 같은데 더러 쓸모가 있을거요.≫

우리는 그 말들을 타고 남행길에 올랐다. 행군도상의 어느 휴식참에 그 말들을 세마리나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제멋대로 새초잎을 뜯어먹게 놔두었더니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청림속으로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나는 근처에 별다른 적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령병에게 공포를 한 뒤방 쏘라고 지시하였다. 총소리가 울리자 잃어졌던 세필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곧장 우리에게로 달려왔다.



연대정치위원
김산호

우리는 어느 한 산중에서 이전날의 처장즈유격구인민들을 만난 기회에 그 말들을 역축으로나 쓰라고 넘겨주었다.

북만의 소자지하골짜기로부터 시작하여 소백수골이라고 부르는 우리 나라 북단의 두메에 이를 때까지 반년이상에 걸쳐 진행된 이 해의 남하행군에서 제일 많은 곤란을 겪으며 애를 먹은 것이 바로 미혼진에서부터 마안산까지의 노상이었다.

인원은 몇 명 되지 않는데 도처에서 적들이 나타나 우리의 걸음을 지체시켰다. 우리는 미혼진을 떠난 다음날부터 매일 한두차례씩, 어떤 날은 서너번씩 전투를 치러야 하였다. 적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밥을 지어먹거나 꿰진 옷을 기워 입을만한 겨를도 주지 않았다. 밥은 굶어도 살지만 담배를 굶고는 하루도 못산다는 ≪대통영감≫이 종일토록 대통을 입에 물어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으니 적들과의 교전이 어느 정도로 빈번했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밤이 돼야만 으슥한 데를 찾아서 가까스로 밥도 지어먹을 수 있었고 젖은 신발도 말려 신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밤에도 별로 쉬어보지는 못하였다. 인원이 너무 적다나니 보초조직조차 하기가 어려웠다. 한 교대에 적어도 문전초 1명, 바닥초 2명, 망원초 2명 정도는 세워야 하는 부상자와 간호자들을 내놓고나면 교대시켜줄 사람이 모자랐다. 그래서나도 대원들을 대신하여 여러 번 보초를 섰다. 보초소들을 순찰하던 김산호는 어느 날 밤 입초중인 나를 보고 무슨 큰 변이라도 난 것처럼 소동을 피웠다. 사령관이 대원들을 너무 어루만진다는 것이었다. 김산호가 그런 투정질을 할 때는 달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붙잡고 사정하였다.

제발 그러지 말고 어린 대원들을 좀 생각해보라.

낮에는 행군과 전투에 지치고 밤에는 밤대로 줄창 보초를 서야 하니 오죽 고단하겠는가. 내가 그들 대신 보초를 서준대야 몇 밤이나 서주겠는가. 마안산까지만 가닿으면 사람들이 수두룩 해질터이니 보초를 대신 서줄 기회도 더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설복을 계속했대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김산호는 아무 말도 없이 보초소

를 떠나가 버렸다.

어서 마안산으로 가자!

마안산에 당도하면 무수한 전우들의 포옹과 따스한 안식의 보금자리속에 안겨들 것이며 그때면 자연히 그 동안 겪어온 간난신고도 끝장이 나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 희망찬 생각이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매일처럼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에 지친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남하행군노정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안도와 무송은 어느 골짜기나 어느 등성이 할 것없이 다 낯익은 산천들이였고 일목일초가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고장들이였다. 송강, 흥륭촌, 쓰우리, 소사하, 유가분방, 푸르허, 대전자, 유수하, 남전자, 두지동, 말리허, 내도산 등지는 다 나의 청춘시절과 천갈래, 만갈래의 인연을 맺고 있었다. 그 낯익은 산천들을 수년만에 다시 밟아보는 나의 가슴에는 누를 길 없는 격정이 갈마들었다.

남하행군길에서 대서북차 서쪽 봉우리에 올랐을 때 불현듯 내앞에는 깊은 감회를 자아내는 희한한 전경이 펼쳐졌다. 봉우리앞에 앉은 자그마한 벽촌은 유격대창건준비를 다그쳐가던 나날에 내가 머슴으로 가장하고 지하공작을 하던 잊을 수 없는 마을이였다. 우리가 딛고선 봉우리도 그때 지하조직원들과 함께 발이 닳도록 다니며 모임을 가지던 곳이였다. 실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바위돌 하나도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유정한 고장이였다.

흘러간 옛일을 추억하며 연연히 뻗은 남쪽 산봉우리들을 더듬던 나의 시야에는 4년전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했던 소사하등판이 멀리 안겨왔다. 그 등판에서 얼마간 내려가면 양지바른 산기슭에 어머니의 묘소가 있다.

이 걸음으로 옛 발자취가 남아 있는 저길을 따라가서 어머니의 묘소에 절이라도 하고 무송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한 가닥의 애틋한 미련이 내 발목을 거머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떼장이 듬성듬성 어슬프게 얹혀 있는 어머니의 묘에 고별의 눈물을 뿌리고 토기점골을 떠난지도 어언 4년이 되어오고 있었다. 4년이면 떼장의 잔디도 어지간히 뿌리를 내렸으리라. 지금쯤 마른 잎새들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을지도 모르는 애어린 싹들에 볼을 비비며 지하의 어머니와 잠간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애끓는 욕망이 불현듯 내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나는 일행이 다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냥 등성이에 서 있었다.

한식을 앞둔 절기여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덜 강렬해졌는지도 모른다. 양지촌의 아버지 묘소는 강제하선생네 집안사람들이 한 해에 두 번씩 찾아가서 제도 지내고 벌초도 한다고 하였는데 토기점골의 어머니묘소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장군님, 왜 산을 내리지 않습니까?≫

기슭으로 내려가던 최금산이 되돌아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제서야 명상에서 깨어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소사하에 어머니묘소가 있다더니 혹시…≫

최금산은 내 귓전에 두 손을 오그려붙이고 귀속말로 물었다. 내장까지도 속속들이 투시해보는 것 같은 어린 전령병의 놀라운 판단에 나는 자기의 심중을 드러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옳아! 내 방금 어머니생각을 했댔지…≫

≪그럼 장군님, 산소에 갔다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갔다오고는 싶은 데 시간이 허락해야지.≫

≪소사하가 지척인데 시간이 바쁘다고 어머니 산소도 찾아보지 않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토기점골에 가면 동생도 있다는데…≫

≪설사 시간이 있다고 해도 나는 갈 수 없는 몸이야. 어머니가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그것 참 이상합니다. 왜 바라시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유언으로 내가 조선을 독립하기 전에는 무덤을 파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단다. 내가 지금 토기점골의 산소로 가지 않는건 그 유언을 존중하기 때문이지.≫

최금산은 그런 말을 듣고도 무엇이 못마땅한지 그냥 머리를 기웃거렸다.

≪무덤에 찾아가신다고 조선독립이 안되겠습니까. 장군님, 유언은 유언이고 한번 다녀오십시오.≫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자가 되지 못했다.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효자구실을 하고 싶은 심정이니 더 권하지 말아라. 크게 해놓은 것도 없이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간단 말이냐.≫

김산호와 오백룡까지 합세해서 소사하행을 권유하였으나 나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만은 여전히 토기점골의 어머니곁에 가 있었다.

나는 봉우리를 내리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최금산

≪어머니, 갈길이 너무도 총총해서 토기점골에는 들리지 못합니다. 사시장철 찬눈과 찬비에 젖고 계시는 어머니의 분모에 흙 한줌 덮어드리지 못하고 풀 한번 깎아드리지 못한 채 안도땅을 밟고보니 송구스러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동안 아우들 건사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철주는 지난해에 전사했다는데 그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조선혁명앞에는 창창한 대로가 열려졌습니다. 이제 마안산에 나가면 큼직한 사단을 하나 꾸리자고 합니다. 그 부대를 거느리고 백두산을 타고앉아 본때있는 싸움판을 벌이겠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지 못하면 어머니의 유언대로 묘소곁에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어이 조국을 되찾고 어머니를 만경대로 모셔가겠습니다.≫

우리는 마안산으로 행군을 다그쳤다. 그 마안산행에 걸고 있는 우리의 기대는 상당히 컸다. 그러므로 수해속으로 말안장같이 생긴 산발이 나타났을 때 다들 ≪마안산이다!≫하고 가벼운 탄성을 질렀다.

맨 먼저 우리를 맞아준 것은 인삼포전이었다.

그 밭머리에 허술한 귀틀집 두 채가 있었는데 모두 비어있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깊숙한 골짜기에서 또 한 채의 자그마한 귀틀집을 찾아내었다. 두세 사람이 숨어사는 그 귀틀집에서 감자를 구워먹고 있던 1사 정치주임 김홍범을 만났다.

≪2연대는 어디있습니까?≫

≪이달초에 교하쪽으로 원정을 가고 없습니다.≫

김홍범의 천연스러운 대답이 나에게는 청천벽력같이 느껴졌다. 2연대가 없다는 것은 남호두에서부터 벼르고 또 별러왔던 새로운 주력부대 조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믿었던 나무가 거꾸러진 셈이었다.

2연대는 독립연대로 활동할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고려홍군≫이라고 소문난 순수한 조선인 부대들 중의 하나였다. 그 연대는 동만의 연길, 왕청, 화룡 등 각 현

유격구들에서 1개중대씩 선발해다 조직한 부대였다. 대부분의 성원들은 나와 연고가 깊은 사람들이었다. 연대장인 윤창범이나 연대정치위원 김락천은 두말할 것도 없고 권영벽, 김주현, 오중흡, 김평 등 연대의 핵심성원들도 우리가 직접 양성해 낸 사람들이였다.

내가 마감으로 2연대 전투원들을 만나본 것은 1935년 5월, 그들이 나의 부름을 받고 왕청현 당수하자에 왔을 때였다. 10여일 그들과 같이 지내며 학습도 시키고 훈련도 주고 싸움도 시켜보았는데 그들은 내가 데리고 있던 부대사람들 못지 않게 발전이 빨랐다. 바로 그들이 처창즈 유격구를 최후까지 잘 방비고수하여 ≪불굴의 처창즈≫라는 실화전설을 창조해 낸 영웅들이였다.


윤창범

우리가 제2차 북만원정을 떠나고 처창즈 유격구가 해산된 다음 2연대는 남만으로 진출했다가 이 해 초에 안도현 내도산을 거쳐 무송현 마한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마한산에 지휘부와 후방기지를 두고 겨울동안 무송지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로 되어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남호두에서 알게된 2연대 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였다. 내가 마안산으로 나올 때 북만원정대 전원을 남들에게 다 떼준 것은 2연대를 접수하면 그것을 모체로 하여 새 사단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타산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2연대에 보낸 우리의 통신은 받지 못했소?≫

나는 미혼진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이곳에 통신원을 파견하여 2연대가 자리를 뜨지 말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를 보냈다.

≪받지 못했습니다. 2연대가 원정을 떠난 다음 여기엔 누구도 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원이 중도에서 무슨 불상사를 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설사 그가 무사히 와 닿았다 해도 없는 2연대를 만나낼 리도 없었을 것이다.

≪연대가 교하쪽으로 원정간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오?≫

≪건 저도 …≫

≪언제쯤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었소?≫

≪없었습니다.≫

≪누가 데리고 갔소?≫

≪대장 장전술동무와 연대정치위원 조아범동무입니다.≫

≪다 원정가고 없으면 마안산에 남은 건 동무들뿐이오? 동무들은 여기서 남아서 무얼하고 있소?≫


김락천

내가 화제를 바꾸어 이렇게 물었을 때 김홍범의 입에서는 더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저 삼포밀영에 백여 명이나 되는 ≪민생단≫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감시하느라고 제가 남아있지요.≫

≪무슨 ≪민생단≫이 그렇게 많다는 거요? 삼포곁에 있는 귀틀집은 텅비어 있던데≫

≪≪민생단≫ 혐의자들은 지금 임강 마의하쪽으로 식량구하러 가고 없습니다.≫

≪식량공작을 나갈 수 있는 정도라면 무슨 ≪민생단≫이겠소?≫

≪그것들을 굶겨죽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민생단≫이 확실하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소?≫

≪증거문건이 다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백서, 진술서, 심문조서…≫

김홍범은 컴컴한 방구석에서 큼직한 문서보따리를 끌어냈다.

≪이게 다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 ≪민생단≫문서보따리가 2연대 사람들을 만나려고 만난을 무릅쓰면서 불원천리하고 달려온 나에게 안겨준 마안산의 대결이였다. 문서보따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방한칸에 가득차 있었다.

떠들썩한 함성과 격정적인 포옹대신에 곰팡내가 물씬 풍기는 범죄기록뭉테기를 받아안게 된 그 순간 나는 엄청난 기만과 우롱속에 빠져든 것 같아 몸이 떨렸다.

≪민생단≫이라는 말마디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유격구에서 살판치던 ≪민생단≫마귀가 살아돌아가며 숱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단말인가? 그리고 고물단지같은 이 문서보따리는 어떻게 되어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다홍왜와 요영구에서 거듭되는 논쟁이 있었던지도 1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다. 국제당에서 내린 판결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달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판결내용이 여기까지 미처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생단≫이 허구라는 절규가 동만땅을 진감한 지도 오랜 지금에 와서까지 ≪민생단≫의 이름을 걸고 감행되는 광대놀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상상밖이었다.

김락천같은 사람마저 다 쓸어뜨리고도 무엇이 또 모자라서 100여명이나 되는 생떼같은 사람들을 잡으려 드는가?

나는 김산호에게 임강 마의하방면에 지체없이 통신원을 파견하여 그들을 전부 데려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런 다음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풀어헤쳐놓고 한장한장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밤잠도 자지 않고 문서장들을 뒤져보았다. 다음날도 계속 뒤지고 또 뒤졌다. 그 문서장들을 뒤져갈수록 나는 차츰 더 깊은 미궁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그 종이장들에는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상들이 너무나도 생동하게 기록되어있었다.

나는 문서장들을 탁 덮어버렸다. 그것을 뒤지는 것은 백해무익한 짓이었다. 그 종이장들을 믿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잃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어떤 잉크나 다 받아들이는 백지장의 글을 믿을 수는 없었다.

임강현 마의하쪽에 가 있던 ≪민생단≫혐의자들은 우리의 연락을 받자 험준한 용강 산줄기를 넘어 수백리길을 단 이틀사이에 와 닿았다.

≪민생단≫혐의자들이 삼포밀영 귀틀집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곧 김홍범을 데리고 그들을 찾아갔다.

성에가 하얗게 낀 귀틀집 문을 열자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안에 꽉 들어차 있었다. 그것은 정녕 격정도 환성도 눈물도 없는 야릇한 상봉이었다. 나에게 경례를 붙이는 사람도 없었고 영접 보고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쥐죽은듯한 정적과 침묵만이 무겁게 방안을 감돌고 있었다. 얼마나 짖눌렸으면 쳐다볼 권리, 인사할 자격마저 잃은 것인가. 설사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한들 저다지도 기가 꺽이고 저다지도 험상스러울 수 있는가?

≪그 동안 동무들의 고생이 막심했겠습니다.≫

어쩐지 말이 목에 걸려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동무들을 대하고 보니 그 동안 모두 안녕했는가 하는 말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무들을 만나니 반갑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만나고 싶어 멀리 북만의 경박호반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인사말에 대한 반향은 어느 구석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숨소리 기침소리 하나 없는 침묵뿐이었다. 항일전쟁을 진행해 온지 만4년 세월이 되어오지만 그런 식으로 나를 맞아준 예를 한번도 없었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가 이리로 온 것은 2연대 동무들을 만나서 새 부대를 꾸려가지고 백두산에 데리고 나가 싸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작 여기와보니 쓸모있다는 사람들은 다 교하쪽에 원정을 가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몹쓸 사람들뿐이라고 했다.

나는 동무들에게 붙어있는 ≪민생단≫혐의문서장들을 뒤져보았다. 그걸 봐서는 동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민생단≫이 아닌 사람이 없다. 나는 문서장만 보고 동무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동무들이 제 입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정확한 견해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동무들이 스스로 속심을 툭 털어놓고 얘기해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를 보지도 말고 솔직하게 말해 보라.


이두수

그렇게 호소하였지만 두텁게 얼어붙어있는 침묵의 얼음장은 좀처럼 깨뜨려지지 않았다.

나는 맨 앞자리에 있는 한 청년에게 동무부터 대답해보라, 동무가 ≪민생단≫에 들었다는게 사실인가고 따져물었다.

그는 머리를 수그린채 주밋거리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네, 사실입니다.≫

나는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다. 눈물을 쏟고 가슴을 두드리며 절대로 ≪민생단≫이 아니라고 절규하기를 기대하였다. 그 청년의 대답은 실망만 자아냈다.

나는 키가 큰 다른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였다.

≪그럼 이두수동무가 말해보라. 동무가 ≪민생단≫에 들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강원도 춘천출신의 그 젊은 소대장은 일제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있는 사람이었다. 이두수의 오른쪽 허벅다리에는 푸릇푸릇한 상처자국이 있었다. 언제인가 내가 어느 전투에서 부상당한 자리인가고 물었더니 개한테 물어뜯기운 자리라고 하였다.

그가 여라믄살 되든 해였다고 한다. 노상 죽으로 끼니를 애우고 있던 보리고개 무렵의 어느 날 두수는 한 숟갈의 소금조차 없어서 죽가마에 소금을 넣지 못하는 딱한 사정을 알게 되자 푸나무 석 단을 해지고 장마당으로 내려갔다. 나무 석 단을 파니 소금 한 되가 되었다. 그는 소금자루를 지게 다리 꼭대기에 데룽데룽 매달고 의기양양해서 자기마을로 향했다. 어느 일본인의 집앞을 지날 때 불시에 사나운 세파트가 그에게 달려들어 허벅다리를 물어메쳤다, 그를 물라고 개를 부추긴 일본인 소년은 집안으로 숨어버리고 그 집 출입문에는 안으로 빗장이 질러졌다. 주인집철사에 격분한 목격자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두수를 업고 경찰서에 몰려가 항의를 하고 고소를 하였다. 살점을 뭉청 뜯기운 허벅다리의 상처는 험상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두수는 난생 처음으로 병원혜택을 입어보면서 거기서 내내 흰쌀밥생활을 하였다. 죽에 신물이 난 더꺼머리소년은 흰쌀밥을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상처가 빨리 아물까봐 조마조마해 하였다. 그는 입원생활이 자기자신과 자기가정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치료비는 개주인이 보상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얼마후 병원에서는 돈을 물지 않으면 그 이상 입원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치료비는 자그마치 20원이나 되는 뭉치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이두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들은 번갈아 개주인과 경찰서와 병원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사정도 하고 항의도 하고 제소도 하였다. 그러나 어디서도 피해자의

하소연과 항의와 제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개한테 물린 책임은 물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네들은 모두가 조선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일본사람들이였다.

결국 이두수는 20원의 빚을 내여 병원에 바쳤다.

그 빚이 새끼를 치며 덧붙고 또 덧붙어서 이태 후에는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집을 팔아도 다 갚을 수 없으리만치 엄청나게 불어났다.

빚단련 때문에 더는 춘천땅에서 살 수 없게 된 이두수네 일가는 정든 고향을 떠나 북행길에 올랐다. 빚쟁이들은 야밤도주하는 일가족을 20리나 뒤쫓아가서 할머니의 보퉁이속에서 최후의 가산인 명주 한 필마저 다 빼아냈다.

한때는 사랑채와 행랑채까지 달린 팔각지와집에 몇 정보의 농토까지 갖추어놓고 뭇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속에 살아왔던 이왕조가문의 후예들은 왕조도 나라도 집도 다 빼앗기고 최후의 천필마저 다 빼앗긴 채 순전한 알거지가 되어 유랑의 길에 올랐다.

이국살이는 떠나가는 어린 두수의 가슴에 망국의 설움과 이향의 슬픔을 심어준 것은 원산발 청진행 화륜선식당에서 밥을 날라다 주던 접대원들의 구슬픈 목소리였다.

이국살이를 떠나가는 여러 분네들의 설움과 슬픔은 구천에 닿고 유랑객들이 흘려온 피눈물은 동해물만 못지 않지만 한숨과 눈물로는 살길이 열리지 않으니 슬픔을 참아가며 조국의 쌀과 조국의 물로 지은 하직밥을 잡수시오. 그렇게 여쭈는 접대원의 동정어린 몇 마디 말이 소년 이두수의 목을 메게 하였다.

왜놈들 때문에 나라도 빼기고 집도 고향도 다 잃고 정든 고국산천을 떠나온 그의 뇌리속에는 왜놈들과는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는 서리찬 생각이 꽉 들어찼다. 그는 장차 자기가 어른이 되게 되면 조선의 하늘아래서는 왜놈은 물론, 왜놈들의 개 한마리, 고양이 한마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이두수는 어른이 채 되기 전에 총을 잡고 유격대오에 들어섰다.

이런 사람이 ≪민생단≫에 들어갈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런데 이두수 역시 전사람과 꼭같은 대답을 하였다.

≪네, ≪민생단≫에 든 것이 사실입니다.≫

소왕청 이수구골의 ≪민생단≫감옥에 찾아갔을 때 장포리가 나에게 했던 첫대답과 같은 소리, 같은 태도였다.

나는 솟구쳐오르는 분기를 억누르며 ≪민생단≫에 들었다면 어떻게 들었는지 만사람앞에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였다.

그는 떠듬거리며 자백서와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였다.

≪민생단≫에 들게 된 과정 이야기를 하는 이두수의 말은 얼마나 사개가 잘 맞아떨어졌던지 의심할 여지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민생단≫ 혐의자들은 모두가 일치하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였다.

나는 인내성을 가지고 재차 이두수에게 물어보았다.

≪동무, 동무는 일본사람이 기르는 개 때문에 빚도 자고 집도 잃고 고향도 잃었다. 일본사람네 개가 동무의 살점만 물어뜯은 것이 아니라 열 사람도 넘는 동무네 일가족의 생활도 다 파헤치고 짓뭉개놓았다. 동무는 일본개 때문에 개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 그런 동무가 이제 와서는 스스로 원쑤놈들의 품에 안겨 자기 동포들을 잡아먹고 자기 동지들을 물어먹는 미친 개노릇을 한다는 것인게 과연 그런가? 동무가 적들의 뜨물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면서 적들의 개노릇을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두수는 눈물만 떨어뜨리며 한마디의 대꾸도 못하였다. 입술을 깨문 채 오열로 전신을 떨 뿐이었다.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은 오랜 침묵이 계속되었다. 나는 저주

스러운 그 귀틀집에서 물러나왔다. 신선한 대기는 차츰 답답하던 가슴도 열어주고 울기도 식혀주었다. 흐리터분하던 머리속이 한결 맑아졌다.

≪민생단≫혐의자들과의 담화에서 나는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형장에 끌려간 우리 투사들은 대부분 중세기의 종교형벌을 방불케하는 악형을 당하면서도 ≪모른다≫는 한마디의 말로 자기가 한 일도 안했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결단은 사형선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공산주의자들 앞에서는 안한 일도 했다고 대답하며 아닌 것도 그렇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숲속을 거닐며 ≪민생단≫혐의자들이 자살적인 대답을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저 사람들이 모두 ≪민생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이 땅으로 될 수 없고 땅이 하늘로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진리이다. 그런데 어째서 저 동무들은 ≪민생단≫에 들었다고 말하여 ≪민생단≫ 책동을 하였다고 저절로 죄를 뒤집어쓰겠는가?

가야허마을의 박창길소년도, 마촌의 장포리도 이미 자신들이 토설한 허위진술을 사실이라고 우겨댔다. 이런 괴이한 현상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민생단≫혐의자라는 올가미에 홀쳐든 첫순간에는 그들이 모두 다 자신이 ≪민생단≫에 든 일이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 진정, 그 진심의 토로가 그들에게는 더 큰 화를 가져왔다. 진정은 가식으로 인정되고 진심은 기만으로 인정되고 솔직성은 교활성으로 인정되었다. 진정의 고백이 반복될 수록 가상적인 죄상은 더욱더 엄중한 것으로 확대되고 고문은 정비례로 증대되었다.

야수적인 고문과 번뇌가 극한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이질적 변화가 생기겠는가?

몇 해동안 한 지붕밑에서 동고동락을 해온 혁명동지들한테서 불신을 당할 바에야 구태여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살려면 총을 집어던지고 산에서 내려가 귀순문서장에 도장을 찍거나 적의 앞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명색이 공산주의자인 우리가 그런 배신이야 어떻게 하겠는가, 처분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식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는 동지들한테서 받는 억울한 오해와 불신, 이것이야말로 100명의 빨치산 장정들을 극단적인 절망과 자포자기에로 몰아넣은 근원이였다.

돈이나 이윤추구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이념의 공통성에 의해서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혁명가들의 집단에서 믿음은 그 집단의 통일단결과 공고한 발전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생명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집단의 매개 성원들은 믿음의 힘에 의하여 동지를 사랑하게 되며 믿음의 힘에 의하여 상급이 하급을 아끼고 하급이 상급을 존대하는 공산주의적 의리가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

믿음은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공산주의적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믿음이라는 무기로 동지들을 얻고 인민을 묶어세웠으며 오늘도 역시 사랑과 믿음이라는 힘있는 수단으로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유지해 가고 있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믿음은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튼튼한 초석으로 되고 있다. 조직이 자기를 믿어주고 동지들이 자기를 믿어줄 때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최대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조직이 자기를 불신하고 동지들이 자기를 멀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최악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돈이 없이 살지 못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믿음없이 살지 못한다. 우리 나라에서 믿음은 사회관계의 총체로 되고 있으며 집단주의의 존재방식으로 되고 있다. 조직이 자기를 믿어주고 동지들이 자기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과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 무진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믿음은 충신을 낳고 불신은 역적을 낳는다는 격언은 이런 이치를 반영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남의 나라 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며 공동투쟁을 벌이던 항일전쟁시기 우리 대오에서 믿음의 원리를 파괴한 ≪민생단≫보따리가 오직 조직에 대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혁명에 뛰어든 투사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 당시는 적아간에 특별한 계선이 따로 없었다. 고개 하나를 넘어가도 적이요, 강하나를 건너가도 적이였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희들끼리나 실컷 혁명을 해라 하고 적구로 달아나버리면 다였다. 무고한 혁명동지들에게 ≪민생단≫ 감투를 씌우는 것은 그들을 모두 적진으로 차던지는 것과 같은 망동이였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신의 올가미로 되고 있는 부당한 ≪민생단≫혐의를 벗겨주고 그 올가미를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말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소생시킬 수 없었다. 필요한 것은 실천행동뿐이였다.

나는 수림을 빠져나와 다시 귀틀집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어느 나무뒤에서 한 여대원이 불쑥 내앞에 나타났다. 키가 늘 같아 보이는 그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김확실

≪장군님, 저는 ≪민생단≫이 아닙니다!≫

여대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의 말은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나에게 주었다.

≪저는 ≪민생단≫혐의를 받았던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민생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무는 ≪민생단≫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민생단≫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왜놈들의 간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장철구어머니도 남편 때문에 억울하게 ≪민생단≫으로 몰렸습니다.≫

이 용감한 여대원이 훗날 무송현성전투때에 적을 단꺼번에 여섯이나 찔러눕혀 ≪여장군≫이라는 별호와 함께 금반지표창을 받은 김확실이였다.

화전민의 딸인 그는 처창즈에서 유격투쟁에 참가하였다. 처창즈유격구의 동남차 수림속에는 박영순이 책임지고 있는 무기수리소와 재봉대성원 20여명의 식사를 보장하였다.

어느 날 무기수리소에서 뜻하지 않은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수리소건물은 일시에 폭연과 불길에 휩싸였다. ≪민생단≫이라는 오명을 쓴 탓으로 무장대오에서 쫓겨나 무기수리소에 와서 일하던 강위룡이라는 청년이 보총탄알 재생작업을 하다가 화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폭음에 놀라 곁에서 일하던 사람들마저 경황없이 작업장을 떠난 다급한 정황속에서 불길을 헤치고 수리소안에 뛰어들어 실신한 화상자를 업어내온 것은 작식대원 김확실이였다. 강위룡의 화상자리는 험악했지만 군의는 화상당한 얼굴에 소독수를 붓고 쭈그러붙은 낮가죽을 뜯어낸 다음 와셀린을 바르고 붕대를 처매주는 것으로 처치를 끝마쳤다. 그 다음부터는 김확실이 간호병이 되어 종이에다 밀을 녹여 환자의 상처에 붙여주고 눈곱을 뜯어주고 발을 씻어 주었다. 정성끝에 확실은 총각을 사랑하게 되었다. 총각도 역시 그를 사랑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곧 결혼문제가 상정되었다. 그렇지만 두 차례의 오발사고 때문에 ≪민생단≫혐의자로 된 강위룡은 애인에게 누가 미칠 것을 염려

하여 비밀약혼만 하고 공식적인 결혼은 주저하였다. 박영순과 박수환은 주저할 것이 무엇이냐, 일단 언약이 되였으면 냅다 밀라고 그들을 부추겨주었다. 거기에 고무된 연인들은 처창즈인민혁명정부에 찾아가서 결혼등록을 하였다. 이 결혼이 문제시되였다. 숙반공작위원회에서는 ≪민생단≫혐의자와의 결혼을 ≪민생단≫의 수를 배가시켜주는 반혁명적인 이적책동으로 간주하였다. 좌경배타주의자들은 결혼한 지 반달도 지나지 않아서 김확실을 강위룡의 곁에서 떼여내여 멀리 왕바버즈쪽으로 추방하였다. 조직생활에도 참가시키지 않고 죄인취급을 하였다. 그러다가 ≪민생단≫혐의자들속에 걷어넣었다.


강위룡

애인과 강제이별을 당한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다음 김확실은 강위룡이 무기수리소와 함께 근처에 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으나 조아범이나 김홍범의 승인을 받지 못한 탓으로 애인과의 짧은 상봉마저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후 강위룡은 조아범에게 끌려 2연대를 따라 교하원정을 떠나고 말았다. 원정대에 무기수리기술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끼여있어야 한다는 사정이 ≪민생단≫혐의자인 강위룡을 교하로 끌려가게 하였다.

≪강동무가 진짜 ≪민생단≫이라면 저는 결혼은 고사하고 불속에서 업어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적들의 토벌에 부친과 형제들을 몽땅 학살당한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했구요. 오죽하면 구국군들까지 군중심판장에서 그 동무를 두둔했겠습니까.≫

나는 김확실이 그런 고백을 해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다.

김확실은 장철구와 마찬가지로 사랑 때문에 죄인으로 된 셈이었다.

나는 김확실을 데리고 귀틀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아까와 다름없이 머리들을 떨어뜨린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장내를 둘러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동무들, 머리를 들라. 나는 동무들의 죄를 따지고 판결을 내리자고 온 사람이 아니다. 백두산에 나가 함께 싸울 전우들을 찾아온 사람이다. 나는 전우들을 찾아왔고 혁명동지들을 찾아왔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무들은 모두 나의 전우로 될 수 없는 친일역적들이며 반동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동무들이 ≪민생단≫에 들었을 것 같으면 일본사람들한테나 갈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산에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스럽게 지내겠는가? 집에 가서 안해나 남편을 얻어가지고 뜨뜻한 구들에서 지내며 농사나 하면 편안할 텐데 무엇대문에 산에서 고생하겠는가? 어디 한번 동무들 스스로가 말해보라. 과연 동무들이 일제를 위하여 여러 해 동안이나 일부러 사서 고생해왔는가? 과연 동무들이 음산한 만주광야 빙천설지에서 풍찬노숙해온 것은 일본의 개가 되어 자기의 혈육들과 동지들을 해치기 위해서였는가? 이두수동무, 말해보라. 동무는 허벅다리를 물어뜯던 일본사람네 개 같은 짐승으로 번지고 싶어 고생스레 싸워왔는가?≫

그러자 이두수는 오열을 터뜨리며 부르짖었다.

≪제가, 제가 어떻게 왜놈의 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왜놈의 개가 아닙니다! ≪민생단≫이 아닙니다!≫

순간 귀틀집 여기저기에서 일시에 함성이 터져나왔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장내에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낸 자들을 저주하고 규탄하며 숙반의 총대밑에서 당해온 설움을 하소연하는 일종의 집회같은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모든 사람들이 주먹을 흔들고 눈물을 뿌리며 가슴속에 서리서리 맺혀있던 사연들을 토설하였다.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김홍범을 불러 ≪민생단≫문서보따리를 가져다 불사를 준비를 해놓으라고 일렀다. 김홍범은 펄쩍 뛰었다.

≪숙반공작위원회에서 작성한 법적 문건들인데 그걸 어떻게 승인도 받지 않고 함부로 없앤단 말입니까? 그걸 태웠다간 큰 변이 납니다.≫

김홍범은 무장대오에 들어서기 전부터 전문적으로 당사업을 한 오랜 정치일군이었다. 그는 열길사범학교 출신이었다. 지식도 있고 일정한 사업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창발적으로 사색하고 능동적으로 판단처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법을 거들지 말고 어서 가서 ≪민생단≫문서보따리나 가져오시오. 남이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소.≫

≪조직의 결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작성된 문건인데 어째서 그걸 없애는 걸 보면서도 가만 있었는가고 따지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장군님도 곁에 안계실텐데 제가 어떻게 책임지랍니까?≫

낯색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진 김홍범은 두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법적 성격을 띤 문건을 어느 개인이 자의적으로 소각해버리고 무사했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하였다, 이런 일은 그리 흔치 않은 사변일 수 있었다.

그러나 100여명의 ≪민생단≫혐의자들에게 부당한 의심과 절망밖에 안겨줄 것이 없는 그 죄악의 문서보따리를 흔적조차 없게 소각해버리려는 나의 결심은 드팀없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결심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숙반운동을 조직지도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 당사자들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치른다는 것은 사실 모험이었다. 필요하다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죄다 ≪민생단≫의 조작으로 볼 막강한 권한과 무제한한 권력을 가진 숙반의 하수인들은 심문조서 한 장을 불태우는 죄과만으로도 나에게 열백 번의 징벌을 내릴 수 있었다. 그들은 그런 선고로써 반≪민생단≫투쟁문제를 국제당에까지 제소한 나에 대한 앙갚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김산호를 시켜 그 문서보따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살라버리기로 결심한 것은 참으로 내 용단이었다.

나는 나 하나의 목숨을 바쳐 100여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결의에 넘쳐 있었다.

문서보따리를 소각할 준비를 해놓고 집회를 결속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들은 오늘 누가 ≪민생단≫이고 누가 ≪민생단≫이 아니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오늘 동무들에게 명백히 선언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민생단≫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동무들 자신이 다 ≪민생단≫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동무들이 한 그 말을 믿는다. 동무들은 이 시각부터 백지상태로 돌아가서 다 새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깨끗치 못했던 과거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무들의 혁명가로서의 진가는 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행동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무들은 지금 다같이 인생의 백지를 나눠가지게 되었다. 그 백지에 얼마나 고귀한 삶과 투쟁의 기록을 남기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무들 자신에게 달렸다.

모두가 새 출발하여 조국과 인민과 역사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투쟁행적을 그 백지장들에 적어놓게 되리라고 믿는다. 나는 이 시각부터 동무들을 그토록 괴롭

혀왔던 ≪민생단≫ 혐의가 완전히 무효하다는 것을 언명하는 동시에 동무들 모두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대오에 들어섰다는 것을 선포한다.≫

나는 ≪민생단≫혐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 선발하여 마당 한복판에 문서보따리를 쌓아놓게 한 다음 불을 달았다.

그 문서장들에 불을 달면서 나는 비단 ≪민생단≫혐의자들의 불명예스러웠던 과거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의 정신적 근원으로 되는 인간증오관념, 인간불신관념을 불태워 영영 없애치우고 싶었다.


김정필

반세기도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민생단≫증거문서장들을 불태워 버리던 일이 그토록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불을 지필 때 내가 마음속으로 기원한 것이 아마 너무도 크고 심각한 것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문서보따리에 불길이 타오르자 대원들은 모두 통곡을 하였다.

그때 그 불길을 지켜보며 울음바다를 펼쳤던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인간들로 탄생하게 되었다. 대열안에서는 진정으로 서로 믿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새로운 기풍이 생겨나게 되었다. 심지어 김홍범이마저 다른 사람으로 번지게 되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후식 겸 사냥을 조직하였는데 그것을 알게 된 김홍범은 호신용으로 갖춰두고 있던 100여발의 보총탄환을 그들 앞에 내놓았다. 바로 전날까지도 수인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에게 그가 자기의 호신용탄환 전부를 희사했다는 것은 하나의 사변이 아닐 수 없었다.

원래 그들에게는 막대기정도의 구실밖에 할 수 없는 쓸모없는 토퉁같은 무기와 누기 차고 녹이 쓸어 못쓰게 된 서너발의 탄알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그들의 탄피에는 나무로 만든 가짜총알만 끼워 있었다. 온전한 무기와 탄알을 주게 되면 그들을 불신하고 학대한 자기들에게 어떤 보복을 가할지 몰라 두려워했던 것 같다.

재가루만 약간 남은 ≪민생단≫문서장들의 흔적을 굽어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김홍범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 장군이 여기에 불을 달 때까지만 해도 나는 속이 너무 떨려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각현장에 있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위법대죄의 공모자로 몰려 목이 달아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 지금은 떨리지 않습니까?≫

≪선행을 지지한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은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니 겁이 없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했다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의 인사는 제가 올려야겠습니다. 장군은 저도 새 인간으로 갱생하도록 구원해주었습니다. 제게도 은인으로 돼준 셈이지요.≫ 그런 말을 듣기는 퍼그나 거북스러웠다. 김홍범은 나보다 나이가 더든 사람이었다.

≪젊은 사람을 앞에 놓고 비행기를 태우는 과언은 그만두시오.≫

내가 이런 핀잔을 하자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장군의 그 도량과 큰 심장이 진정으로 부럽습니다.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취주는 말은 그만하고 오늘은 우리도 같이 사냥이나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김홍범도 명랑한 기분으로 나의 제의에 호응해 나섰다. 그날의 사냥은 참으로 별재미였다. 나는 호위성원들의 총을 그들에게 모조리 빌려주어 그들이 온전한 총으로 한방씩 다 갈겨보게 했다.

몰이군이 많은 덕에 그날 사냥에서는 자그마치 7-8마리나 되는 메돼지와 노루를 잡았다. 여대원들 중에서는 김확실이 단발명중으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사냥해온 산짐승고기들과 얼마간 남아있던 통강냉이와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그날 저녁을 푸짐히 차리도록 했다. 만찬 뒤에는 오락회도 조직했다.

마안산 삼포밀영의 퇴락한 귀틀집에서 가진 그날의 만찬회와 오락회는 더없이 검소한 것이였지만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2연대를 모체로 하여 조직하자던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새 사단은 이처럼 죄악에 찬 불신의 문서장들을 한줌의 배로 만드는 불길속에서 태어났다.


김택환

≪민생단≫문서보따리가 불타 없어지고 새 사단이 태어났다는 소문은 삽시에 사방으로 퍼져갔다. 곳곳에서 숨어지내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에게로 찾아왔다.

맨먼저 찾아든 것이 대첨창골짜기에 숨어있었다는 화룡출신의 반일자위대원들이었다. 그 사람들속에 후날 사령부 전령병으로 된 백학림과 꾀꼬리로 소문난 김혜순이도 끼여있었다.

박록금(본명 박영희)이 우리를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는 새사단 안에 잠정적으로 존재했던 첫 여성중대의 중대장이 되었다.

무송현 노모정자에서는 장티프스에 걸려 앓고 있던 청년들이 새 사단에 편입되었다. 그 청년들로 1개 소대를 조직해주고 김정필을 소대장으로 임명했다. 안도현 오도양차부근 수림지대에서 활동하던 김주현이네도 우리를 찾아왔다. 처창즈 방면에서는 김택환이네 소부대가 달려왔다.

나는 정식으로 연대들과 중대들을 편성하였다. ≪보따지≫라는 별명으로 불리운 이동학이와 김택환이한테는 각각 중대장의 직무를 주었고 김주현에게는 정치지도원직을 맡겼다. 주력부대 연대정치위원사업을 하게 된 김산호는 그때부터 노상 싱글벙글 웃으며 지내게 되었다

마안상에 와닿았을 때가지만 하여도 열댓밖에 안되던 우리 대오가 동강에 이르러서는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우리는 새로 조직한 주력부대의 무장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민생단≫혐의자들이 가지고 있은 무기의 대부분이 토뚱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다.

나는 10-15명 규모로 조를 조직하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주면서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그들에게 이제부터 한달 사이에 총탄도 보충하고 총도 바꾸어 메고오라, 총은 일본놈들에게 얼마든지 있다. 숲속에 엎디어 있다가 적들이 지나갈 때 달려들어 총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총도 한방씩 쏘면서 무기를 빼앗으라고 하였다. 그 때 그들은 다 총창을 한 개씩 차고 다녔다. 그들은 한 달이 아니라 보름만에 다 돌아왔는데 총탄도 보충하고 총도 새것으로 바꾸어 맸다. 어떤 대원들은 기관총까지 빼앗아 메고 왔다.

나는 그들을 기본으로 하여 연대를 조직하였고 후에는 이 연대를 조직하던 경험으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다 6사와 2방연군도 조직하여 가지고 일제와 싸웠다. 우리가 주력부대의 무장장비를 단꺼번에 몽땅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시난차를 친 후 서강전투를 치른 다음이었다. 그 전투를 하게 된 목적의 하나가 부대의 무장장비를 일변시키려는데 있었다.

서강에는 1개연대와 위만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 연대의 그쯘한 무장이 우리

의 구미를 당겼다.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고장인데가 주변은 울창한 수림이 망망대해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불의습격을 하기에는 유리한 대상이였다. 적들도 그런 허점을 고려하여 병영주변에 아름드리 통나무들로 세 길이나 되는 성을 둘러쳤고 그 성의 네 귀퉁이에는 포대까지 구축해놓고 있었다.

전면공격으로 성내에 돌입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나는 화공전술로 적진에 혼란을 조성하고 적들을 위압하여 항복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적병영들은 완전한 목조건물이었다.


이동학

나는 날이 어두워진 다음 김택룡을 비롯한 수류탄던지기 명수들을 시켜 석유를 묻힌 솜뭉치에 불을 달아 적병영지붕들에 던지게 하였다

초여름 보슬비가 내린 탓에 젖은 지붕에는 쉽게 불이 달리지 않았으나 화공전술은 성공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항복하면 살려줄테니 총을 버리고 밖으로 나오라는 함화를 들이댔다. 그러나 적들은 완강한 방어전으로 대답하였다.

나는 몇 명의 대원들을 적지하 포대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민가에 보내어 그 집 부엌으로부터 지하포대 밑으로 굴을 파게 하였다. 한편 정찰병들을 시켜 위만군연대장의 장모를 데려오게 되었다. 우리는 노파에게 사위을 설복하여 무모한 저항을 그만두고 무기를 바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노파는 우리의 권고대로 기꺼이 성안으로 들어갔다가 사위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나왔다. 위만군연대장은 대원 절반을 데리고 무송으로 갈 수 있게만 해주면 투항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 제기를 일축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투항을 요구하였다. 재차 사위를 만나고 나온 노파는 자기 사위가 데리고 갈 인원수를 얼마간 축소할 용의를 표명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분명 연대장은 담판을 질질 끌면서 응원대가 올 것을 기다려보자는 속심이었다.

지하포대를 폭파하기 위한 갱도국설작업은 이미 반나마 진척되었다. 나는 노파에게 갱도와 폭약을 보여주고 사위에게 투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포대들을 모조리 폭파하겠다는 우리의 최후통첩을 전하라고 일러주었다.

세 번째로 성안에 들어갔던 노파는 싱글벙글하면서 내앞에 다시금 나타났다. 사위가 2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하더라는 것이였다. 나는 그 요구에 동의하였다.

위만군연대장은 부하들을 전원 정렬시키고 무장들을 해제하여 한곳에 모아놓은 다음 2명의 호위병과 함께 황황히 북문으로 빠져나갔다. 그 무장이 고스란히 우리의 수중에 들어왔다.

새 사단을 꾸리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무송현성과 같은 큰 성시를 마음먹고 들이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후 압록강변과 백두산 주변에서 연속적인 승리의 개가도 울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당초에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2연대는 새 사단의 탄생은 물론 그 성장에도 보탬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마안산에서 접수하기로 되어있던 2연대가 우리에게 온 것은 반년도 더 지나서 백두산에 나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다. 그것은 이미 주역사단의 틀이 다 잡힌 뒤였다.

너무나 때늦은 도착이었지만 오중흡, 권영벽, 김평을 비롯하여 오래전부터 정이

든 전우들과 다시금 한 가마밥을 먹으며 같이 지내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강위룡도 성한 몸으로 무사히 새 사단을 찾아왔다. 김확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마지막 상처까지 아물게 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무척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그들이 도착한 다음날 나는 강위룡을 찾았다.

≪동무의 애인이 김확실동무라지?≫

키가 꺽두룩한 그는 귀뿌리까지 새빨개졌다.

자기에게 안해가 있다는 대답을 하기가 쑥스러웠던 모양이다.

≪확실동무는 여기 있지 않고 몇십 리 떨어진 횡산쪽의 후방 밀영재봉대에 가있소. 거기 가서 확실동무를 만나보시오. 내가 이제 곧 길잡이 할 사람을 달아주겠소.≫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후에 천천히 만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확실동무에게 연락을 띄워서 이리로 오게 하면 상봉시간이 두 배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무가 직방 그리로 가는 것이 좋겠소.≫

≪우린 천천히 만나도 됩니다. 일없습니다.≫

강위룡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오리려 나를 섭섭하게 하였다.

≪동무는 천천히 만나도 될 지 모르겠지만 나는 동무 때문에 김확실동무의 살이 내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소, 두말 말고 곧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도 그는 머리를 수긋하고 있다가 눈물이 글썽해서 나를 쳐다보며 그렇지만 대열편성도 받기전에 어찌 애인부터 찾아가겠는가, 혁명을 하자고 총을 잡았는데 혁명사업부터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못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한 가지 구실을 마련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무에게 한 가지 과업을 주겠소. 2연대와 함께 온 여성동무들을 데리고 재봉대에 들어가서 동기용 솜군복을 만드시오. 그걸 다 만들기 전에 돌아오면 처벌을 내리겠소.≫

강위룡은 그제서야 더 구실을 대지 못하고 명령대로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좌경배타주의자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강제이별을 당해왔던 애인들의 감격적인 상봉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마안산에서의 ≪민생단≫문서보따리의 소각은 새 인간들의 탄생, 새 사단의 탄생만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부활, 새로운 사랑의 탄생도 가져왔다 사람들을 믿은 덕에 우리는 천하를 얻은 셈이 되었다.

우리 혁명대오안에서 조선혁명의 영도핵심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성이 보편화되고 그 영도핵심을 중심으로 한 참다운 사상의지적 단결이 투쟁과정에 한층 공고화 된 것은 이런 믿음의 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역사적 뿌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탄생과 함께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덕을 베풀어주는 속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것으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심장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마안산에 있던 그 100여명의 ≪민생단≫혐의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혁명에 충실하였으며 시대와 역사앞에 티 한점없이 깨끗한 양심과 조국애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고스란히 바쳤다.

그들은 우리 조국의 광복혁명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투쟁사적들을 남겨놓았다.

2. 20원


어머니 강반석여사

마안산 서쪽밀영에서 좌경분자들이 ≪민생단≫ 보따리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 새봄의 눈석이조차 시작되지 않은 마안산 동쪽밀영의 응달밀에서는 수십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병마와 기한에 떨며 울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간도혁명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처창즈에서 어른들과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고심참담한 나날을 보내다가 유격구가 해산된 후 내도산을 거쳐 서정하는 인민혁명군부대들의 보호를 받으며 적들의 마수가 덜 미치는 남만주의 후방밀영에까지 굴러온 고아들이었다. 마안산밀영의 나어린 주민들 중에는 연길지방에서 온 아동단원들도 있었다.

그 아이들이 유격구를 해산할 때 적국에 내려가 문전걸식하는 거지가 되거나 노두와 가게방과 장마당에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하루하루를 굼때나가는 소매치기나 방랑아가 되지 않고 불원천리 무송의 오지까지 찾아온 것은 정녕 감탄할만한 일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인민혁명군부대들이 관할하는 후방밀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추워서 우는 참혹한 현상이 존재하게 되었단 말인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군들이 갑자기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단 말인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별치않은 고난앞에서도 곧장 눈물을 짓거나 투정질하는 응석받이가 되었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 가설을 다 무시해버렸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울음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추위와 주림으로부터 오는 생리적 고통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가. 하지만 그런 고통이야 그 애들이 지난날 유격구시절에도 많이 겪어 보지 않았던가. 우리의 아동단원들은 고생 때문에 눈물을 지울 호부자자식들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부모형제들을 잃고 홀몸이 된 그 애들에게 있어서 춥거나 배고픈 것쯤이 무슨 요란스러운 슬픔으로 되고 고민거리로 되겠는가.

하지만 마안산밀영에서 아이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였다. 새 사단 편성을 위한 모임이 결속단계에 들어선 어느 날 박영순은 쪽지편지 한 장을 내손에 슬그머니 쥐어주었다.

≪장군님, 회의가 끝난 다음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위해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새 사단이나 꾸려놓고는 저하고 같이 마안산밀영에 한번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장군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지는지 모릅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다.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이 겪고 있던 참상에 대해서는 후날 내가 그 밀영에 도착하였을 때 **김정숙**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마안산의 고아들 가운데는 그의 지도를 받던 아동단원들이 적지 않았다. 원래 그는 부암동에 있을 때부터 아동단지도원사업을 하였다. 아이들이 유격구시절부터 그를 몹시 따랐다고 했다.

원래 **김정숙**은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유격구인민들이 가장 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처창즈시절에 그와 아이들 사이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연대가 이루어졌다. 그때 **김정숙**은 군부작식대원으로 활동했는데 아사직전에 있던 아이들이 밤마다 그를 찾아와서는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어떤 날은 그 아이들이 작식대원들 모르게 부엌에 기어들어서는 찬장도 뒤지고 쌀독도 뒤졌다. 그럴 때마다 **김정숙**은 끼니때에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누룽지나 송기떡같은 것을 그 애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였다. 그는 배고파서 쩔쩔 매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 한 번 정도씩은 꼭꼭 끼니를 번지면서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음식을 동무들 모르게 남겨두었다가 동냥을 오는 아이들에게 먹이곤 하였다.



김정숙동지

처창즈에서 죽을 고생을 다한 아동단원들은 평생토록 그이 그런 선행을 잊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빨치산을 따라 내도산에 가 있을 때 **김정숙**은 거기서 아동단지도사업을 했다. 그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나에게 마안산아이들의 생활형편을 보고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십 명의 고아들이 전쟁의 포화가 미치지 않는 혁명군의 후방밀영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무심히 스치고 지나갈 수 없는 하나의 비상사건이었다. 나는 신경이 팽팽해졌다.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길래 그 애들이 그처럼 나를 안타깝게 기다린단 말인가.

아이들의 눈물을 정의를 대변한다. 그 어떤 부당한 힘이 정의를 우롱하고 참혹하게 짓밟을 때 아이들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목놓아 운다. 그 통곡속에는 자기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인간들을 향해 어린 넋들이 던지는 논고가 있다. 그것은 온갖 불의스러운 것에 대한 항변과 성토를 대신하며 그 불의로 하여 손상당한 자존심과 침해당한 권리를 대변한다. 아이들은 눈물로써 자기앞에 닥쳐온 재난을 경고하며 그 재난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울음은 자기를 사랑하거나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이 보내는 최대의 하소연이다. 사람들이 그 울음앞에서 가슴을 조이며 귀를 귀울이는 것은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아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본성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안산의 아동단원들로 말한다면 전우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금싸래기 같은 존재들이었다. 전우들은 유언으로 우리에게 자식들의 장래를 부탁했다. 그리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아들 딸들을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우리의 두 어깨와 양심에는 그 불쌍한 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실한 정의의 수호자들로 키워내야 할 신성한 과제가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내가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동정도 아니었고

소시민적 감상주의의 발동도 아니였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우리에게 넘겨준 권리였고 의무였다. 설사 그 부모들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수수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닐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감정이다.

전우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이자 전우의 아들로 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적 인간관계이다. 내가 아플 때 동지도 아프고 동지가 아플 때 나도 아프며 내가 배고플 때 동지도 배고프고 동지가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픈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부각시키는 윤리도덕이다.

어느 한 부업작업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강에 빠진 동지의 딸을 건져안고 뭍으로 나오다가 자기 딸이 물어 가라앉았다 솟구쳤다 하면서 사경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통사람 같으면 자기 딸부터 먼저 구원해놓고 연이어 동지의 딸을 구원하려고 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가 그런 순서로 구조작업을 했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건덕지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관리위원장은 품에 안았던 동지의 딸을 구원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딸곁으로 헤엄쳐갔다. 하지만 그 딸은 벌써 죽은 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뛰어 와서 울며불며 정에 넘치는 위로의 말을 하자 관리위원장은 구원된 동지의 딸을 가리키며 태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소. 이 애도 내 딸이요.≫

천박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도량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성을 발휘하고서도 그것을 범상한 일로 묻어두며 만민의 평가와 우대앞에서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하는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자의 매력이 있으며 조선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미덕이 있다.

새 사단이나 꾸리면 인차 무송을 거쳐 장백으로 직행하려던 것이 당초의 우리 계획이였다. 그렇지만 마안산아이들의 불우한 처지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단을 꾸린 다음 장백으로 직행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장백으로 가더라도 심리적 속박에서 해방될 것 같지 못했다.

미혼진회의가 끝나 후 나는 마안산 동쪽밀영의 아동단원들을 찾아갔다. 그날 나를 밀영에까지 안내한 사람은 마안산 무기수리소책임자인 박영순이였다. 나는 그가 자청하여 나의 길동무가 되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였다.

이 걸음은 나로 하여금 인간 박영순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좋은 계기로 되었다. 마촌에서 첫시작을 뗀 우리의 우정은 이 상봉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박포리가 다부작 장편소설이라도 엮을 수 있는 자기 가문의 방대한 역사를 처음으로 구술한 것이 바로 이 상봉때였다고 기억된다.

박영순의 선대 할아버지들은 1860년대부터 금곡촌에서 타향살이를 시작한 첫세대의 대표자들이며 이 일대에서 조선식 영농법을 보급하고 전파시킨 황무지 개척의 선구자들이었다. 아버지대에는 그의 집에 소박한 야장간도 생겼다. 이 야장간에서 아버지의 조수로 일해 온 박포리의 소년시절은 후날 그를 병기분야의 특출한 기술자로 명성을 떨치게 한 밑천으로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농한기마다 양포를 메고 사냥을 다녔다. 박영순이도 17살때부터는 소일거리삼아 수렵에 재미를 붙였다.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며 이따금씩 슬금슬금 하는 사냥이어서 성수는 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양포단속을 무섭게 하였다. 맏아들이 사냥을 다니는 것은 묵인해 주면서도 둘째아들인 박영순이 총을 다루는 것은 좀체로 허락하지 않았다. 양포곁에 다가가 총신만 만져보아도 눈을 흘기며 불호령을 내리곤 했다. 그러나 18살때 부터는 문제가 달라졌다. 금곡촌의 노포수들이 잡으려가다 여러 번 놓쳐버린 호랑이를 그가 단발명중으로 쓸어눕혔던 것이다.

박영순은 범의 콧수염을 뽑아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콧수염은 그가 자기 힘으로 힘들게 얻어낸 포수 면허증이나 다름없었다. 온 동네가 호랑이의 수염을 구경하려고 그의 집에 마실을 왔다. 아버지는 젊은 사냥군의 사격솜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금곡촌의 노포수들은 그를 ≪박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박포리에게는 양포사용 허가영도 내렸다. 계림탄광과 부그라즈광산에 입직하여 지하혁명사업에 참가할 때까지 박영순은 그 양포로 수백 마리에 달하는 산짐승들을 잡았다.

나는 박영순에게 박포리라는 별명이 달리게 된 내막을 들으면서 그가 만일 병기창사업을 하지 않고 인민혁명군의 저격수로 활동했더라면 자기가 잡은 산짐승의 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을 소멸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야장술이 사격술을 능가한다는 사실이였다. 그는 현직군인대오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심상하게 계산되고 있었지만 병기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떠받들리고 있었다.


박영순

박영순은 초물구럭속에 대여섯 마리나 되는 꿩을 넣어 짊어지고 나를 따라나섰다. 나는 그 푸짐한 짐짝을 보자 무거운 쌀배낭에 꿩을 얹어가지고 명월구골 안으로 찾아오던 이광의 모습까지 새삼스럽게 겹쳐서 가슴 짜릿해지는 심회를 금할 수 없었다.

≪박포리동무, 아직 사냥질을 좀 하는가요?≫

나는 꿩구럭을 손짓해 보이며 박영순에게 물었다. 박영순은 미간을 찌푸리고 구럭을 추슬러 올렸다.

≪그만 둔지가 언제인데요. 이건 옹노를 놓아 잡은 거랍니다. 아이들한테 빈손으로 가기가 멋적어서 좀 버럭질을 했지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좋은 일이지요≫

≪사랑이라구요?≫

박포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나서 웬일인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런 치하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이 박포리는 비겁한 놈입니다.≫

≪비겁하다니, 그건 갑자기 또 무슨 소리입니까?≫

≪생각만해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사령관동지앞이니 창피스러운대로 이실직고하겠습니다, 내 한번은 메토끼를 여라문마리 잡아가지고 마안산 아이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 메토끼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나도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제 1사 정치주임이란 어른이 밑도끝도 없이 불쑥 내앞에 나타나 삿대질을 해대마 막 야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사람인데 상급의 승인도 없이 여기에 와서 함부로 어슬렁대는가, 누가 당신더러 이런 자선을 베풀라고 했는가, 당신이 그래 저녀석들한테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는지 모른단 말인가고 하면서 눈이 쑥 빠지게 닦아세우고는 당장 사라지라고 파리처럼 쫓아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였습니까?≫

≪메토끼를 고스란히 망태속에 도로 넣어가지고 병기창으로 돌아왔지요.≫

≪왜 겁이 났던가요?≫

≪네, 부아도 나고 겁도 났지요. 지금은 이렇게 담이 커져서 탕탕 큰소리로 말합니다만 그 때에는 어림이나 있습니까. 정치주임이 새끼≪민생단≫들을 도와준 반

혁명분자라고 물고 늘어지면 화단이 아닙니까. 다행히도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더구만요. 그 후부터는 아이들의 동네에 발길질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망신스럽기가 짝이 업습니다.≫

박포리는 앞에서 조신감발을 하고 길을 내며 걸어가는 1사 정치주임 김홍범의 뒷모습을 아니꼽게 바라보며 골살을 찌푸렸다.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겁이 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옆에 계시니 힘이 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민생단≫소동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걸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건 문자 그대로 악몽입니다. 메토끼망태를 메고 아이들을 찾아갔다는 그것만으로도 동무는 후대들앞에서 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대들을 사랑하고 동정한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입니까.≫

박영순은 그 말까지 듣고나서야 팽팽하게 긴장되었던 얼굴의 근육을 풀고 큼직큼직한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놓았다, 바위돌같이 엄하고 무뚝뚝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의 입에서 문학소녀들의 일기책에서나 볼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을 들으니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그의 언행과 마음씨에서 풍기는 강직하고 결백한 체취는 나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자아냈다.

만일 그 누가 나에게 당신의 생활에서는 어떤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로 되고 있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의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은 예사로운 것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세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생활을 창조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자주적이고 사상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며 문화도덕적으로 가장 문명하고 순결무구한 인민과 더불어 한 생을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활은 매일 매시각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되어 있다.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때이며 그 인민들속에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시국을 논하고 생활을 논하고 미래를 논하고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의 꽃봉오리라고 부르는 아이들속에 있는 때이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좌우하고 있는 행복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영순과의 담화가 나에게 그토록 큰 만족을 주었던 것도 바로 이런 행복관이 작용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영순은 내가 생활속에서 찾아낸 혁명가의 본보기였으며 양심인의 전형이었다. 그 후 실천을 통하여 나는 그가 혁명적 원칙성이 남달리 강하고 부정과의 타협을 모르며 매사에 공명정대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었다.

박포리가 항일무장투쟁전적 답사단을 인솔하고 중국 동북지방을 순방하던 1959년도의 일이다. 무더운 여름날 대표단은 소박하고 아담한 어떤 농가의 웃방에서 하루밤을 유숙하게 되었다. 그 지방 농민들은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매일같이 신고스런 답사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이웃나라의 손님들을 위해 숙소에 도배도 새로 하고 노전도 새로 깔아주었다.

그런데 물것이라면 꼼짝 못하는 몇몇 답사원들이 밤중에 빈대의 성화를 받다가 침구를 걷어안고 연줄연줄 마당에 뛰쳐나와 멍석위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그 방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고수한 것은 박영순단장 한 사람뿐이었다. 단원들은 자기네 단장이 지나치게 잠이 둔하거나 물것을 타지 않는 특수한 체질인 모양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장군님

다음날 아침 박영순은 답사단원들을 모여놓고 호된 비판을 하였다.

≪한 개 나라를 대표하는 답사단원이라는 사람들이 빈대가 문다고 뜨내기들처럼 멍석우에서 야숙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느라고 수고한 이 고장 사람들의 성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곤란을 극복할만한 참을성도 없고 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차후 다시 대표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나면 그 경중에 따라 조국으로 아예 소환시키고 말겠다.≫

그 순간에야 답사단원들은 이 빨치산출신의 강의하고 과묵한 사나이가 빈대의 성화에 장밤을 시달리면서도 주인집 사람들의 성의를 저버릴 수가 없어 그냥 방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에 이 일화는 전적지 답사단원들의 입을 통하여 나한테까지 전달되었다.

우리가 밀영에 도착하자마자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은 ≪장군님!≫하고 부르며 앞을 다투어 귀틀집에서 쏟아져 나왔다. 밀영의 하늘에 부딪쳐 은방울처럼 굴러가는 아이들의 외침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불길처럼 확 타오르는 격정에 온몸과 마음을 송두리채 내맡기며 아이들앞으로 바삐 걸어갔다. 저 아이들, 저 아이들이다. 적에게 맞아 죽고 찔려 죽고 불타 죽은 부모형제들의 원쑤를 갚으려고 천산만악과 임해설원을 지나 천신만고의 가시덤불길을 헤치며 혁명군을 따라온 아이들, 바로 저 아이들이 철조망없는 수용소와도 같은 이 몰인정하고 을씨년스러운 산중에서 ≪민생단≫연루자의 억울한 감투를 쓰고 겨우내 설움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온 아이들이다.

인민의 이익 위에 초혁명적인 원칙의 구호, 계급성의 구호를 올려 세우고 대중을 우롱하고 학대하는데 습관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혁명군의 짐이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외면하였다. 그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적들에게 밀영의 위치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다고 자기들만의 보신을 위한 소왕국을 따로 짓고 깊은 수림속에 들어가 별거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수림언저리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그 의붓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엄동설한에 풀뿌리를 우려먹으며 기한에 떠는 것을 보면서도 쌀 한 톨 가져다주지 않았고 의복 한 벌 해

입히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 아이들의 상처에 고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들, 아이들의 언손과 언볼을 입김으로 녹여주는 사람들, 아이들이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사람들, 아이들이 설움에 겨워 울 때 함께 붙안고 우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민생단≫명부에 오르고 박해를 받았다.

윤창범이 죽은 후 대리연대장이며 명사수인 김락천은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마안산으로 들어오다가 아이들의 헐벗은 몰골을 보다못해 연대 후방부일군들이 간수하고 있던 군복천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입혔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대장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런 선행으로 하여 김낙천은 분하게도 ≪민생단≫의 모자를 쓰고 처형되었다. 아이들을 동정하는 것이 죄가 되고 냉대하는 것이 오히려 공으로 되는 이 밀영에서는 참다운 인간적 향취, 공산주의적 향취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주먹을 부르쥐고 내앞으로 밀물처럼 육박해오는 수십쌍의 눈물에 젖은 눈동자들은 인간성을 저버리고 초보적인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연대정치위원
김락천

숨가쁘게 뛰어오던 아이들의 무리속에서 갑자기 동요가 일어났다. 허우대가 제일 큰 선두아이가 무슨 장애에 맞다들었는지 공지 한복판에 발길을 못박아 세우고 주춤거렸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절벽에 부딪친 물멀기처럼 그 열풍같은 흐름을 멈추고 먼발치에서 나를 흘끔흘끔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떼를 지어 머무적거리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박영순에게 조용히 물었다.

≪박포리동무, 저 아이들이 왜 저럴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옷주제들을 보십시오.≫

나는 아이들의 옷차림에 주의를 돌렸다. 옷이란 명색뿐이지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나 다름없었다. 불에 타고 찢겨지고 닳아 떨어진 그들의 옷은 옷이라기보다도 차라리 넝마나 걸레짝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만큼 남루했다. 수개월 동안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주림과의 싸움을 부단히 벌려온 아동단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김혜순

나어린 수난자들의 그 참혹한 정상은 나로 하여금 불현듯 소사하에서 갈라진 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영주동생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였다. 나이를 보면 동생도 그 애들과 같은 또래였다. 허리를 치는 갈대밭속에서 철주와 함께 눈물을 삼키며 나를 바래주던 막내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하였다. 친척도 아니고 동성동본도 아닌 이웃의 친지들에게 동생들의 장래를 부탁하고 소사하를 떠난 후 문안편지 한 장 똑똑히 보내지 못하고 4년 세월을 덧없이 보낸 자신의 무심한 처사가 민망스러웠다. 1936년 봄에 동강밀영에서 나를 만난 김혜순은 영주가 안도에서 아동단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과 1935년 봄인가 여름에 그가 유희대원들을 데리고 처창즈에 며칠동안 와 있으면서 연예공연을 하였다는 단편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에 김혜순은 유희대원들의 밥을 해주었다고 했다.

김혜순은 영주동생이 부른 노래가 아주 인상적이였다고 하면서 그 노래의 가사를 뜨금으로 줄줄 외우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무송에서 연예대활동을 지도할 때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이 부르던 노래였다.

여기 모인 여러 분 허리건사를 잘 하시오
웃음끝에 끊어진 허리는
화타 편작도 못 이어요
에헤라 논다 뛰어라 논다
어깨춤이 절로 난다

화타, 편작이란 고대중국의 명의들이다.

김혜순이 동강에서 전해준 소식은 나에게 있어서 퍽이나 큰 위안으로 되었다. 하지만 마안산의 아이들을 찾아가던 그때만 해도 나는 동생의 행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람에 날린 마가을 낙엽처럼 한자리에 몰켜서서 오도가도 못하는 아이들의 애수에 찬 눈동자들을 살펴보며 그때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영주도 저 애들처럼 어데서인가 기한에 떨고 있지 않을가. 저 애들처럼 밥도 먹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면서 무정한 이 형을 그리고 있지 않을가


강양욱

그런데 혁명을 하겠다고 이 산중에까지 따라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민생단≫의 껍데기를 함부로 뒤집어 씌워 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 그 모지락스럽고 얄미운 인간들한테는 저 아이들이 ≪민생단≫이 아니고 ≪민생단≫일 수도 없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조차 없으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줄 한가닥의 자비심이나 동정심마저 없단 말인가. 인간해방을 위해 죽음마저도 불사할 결심이라고 맹약한 사람들이 인간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자립성이 약한 어린이들을 어쩌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방임해 둔단 말인가.

우리 나라 역사에서 ≪어린이≫라는 낱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어린이의 날≫이라는 아이들의 명절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름난 소년운동자였던 작가 방정환은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글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 바가 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위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그 집 운수)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1923년 5월 1일 어린이의 날을 맞으면서 그가 인쇄하여 돌린 삐라의 한 대목이다. 이 부탁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이 자자구구마다 스며있다.

내가 창덕학교를 다닐 때 강양욱선생도 학부형들을 만나면 이와 비슷한 말을 종종 하였다. 그 호소가 ≪어린이날의 약속≫을 그대로 따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자기 식으로 가공한 것이였던지 그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아무튼 선생이 학부형들에게 아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속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어린이들을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고 한 그들의 호소는 자기자신보다 후대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넋속에서만 울려 나올 수 있는 숭고한 이성의 목소리이다.

≪아이들이 없는 세계는 태양이 없는 세계≫라고 한 명언속에는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격조 높이 고동치고 있는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세계적 위인들은 누구나 다 아이들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맑스가 아이들의 충실한 벗이였다는 것은 칼 립크네흐트의 글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의 쾌락을 위해 이 위대한 인간이 ≪말≫도 되고 ≪승용마차≫로도 되였다는 일화는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겨 회상하는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후대들이 스위스의 페스탈로치를 지금까지도 고이 추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이들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과 전 생애를 바친 훌륭한 교육자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명직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동서방의 모든 위인들은 누구나 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간주하여온 아이들의 진정한 벗이였고 스승이였고 어버이였다.

그런데 귀족도 아니고 부르조아지도 아닌 마안산의 주인들, 입만 벌이면 인간성을 운운하고 인간해방을 염불처럼 외우는 이 밀영의 공산주의자들은 어찌하여 아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인가!

나는 치미는 분노를 걷잡을 수 없었다. 혁명 그 자체를 생명보다도 더 신성시해온 어린것들의 깨끗한 신념이 망울채로 저렇게 무참히 짓밟힌다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이였다. 나는 저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였다. 저 어린것들이 처창즈에서 어른들과 함께 어떻게 기아를 이겨냈고 내도산에서 인민혁명군을 도와 어떻게 주먹밥을 날랐고 어떻게 철야보초를 섰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엮어온 그 개개의 자서전은 소설의 줄거리처럼 내 머리속에 죄다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큰 아이들의 겨드랑이밑에서 비에 젖은 햇병아리처럼 온몸을 오들오들 떨며 언손으로 무르팍의 살을 가리우고 서있는 백초구 출신의 아홉살내기 이오송의 경력만 보아도 마안산의 아이들이 겪어온 천신만고의 준엄성을 능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벌써 처창즈에 있을 때 집단적인 아사를 체험하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이오송도 배가 고플 때마다 동면중의 개구리를 잡아먹든가 봄파종을 한 밭들을 돌아다니며 씨종자를 파먹었다.

이오송의 아버지도 처창즈에서 아사로 인생을 마쳤다. 오송이가 밭에서 보리이삭을 잘라다가 거스러미를 비벼 없애고 줌에 채 차지도 않는 낟알을 아버지의 입에 놓아드렸지만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이오송은 어린 누이동생과 함께 초근목피로 보리고개를 넘기다가 내도산으로 철거하는 인민혁명군을 따라 처창즈를 떠났다. 그러나 그도 김낙천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민생단≫혐의를 받고 있었다.

손명직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아동단원들은 내도산으로 가는 수백 리 노정에서 조직생활을 통하여 부단히 연마해온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앞에서는 허리를 치는 눈무지와 가파로운 산고개들이 길을 막아나서고 뒤에서는 토벌대의 무리들이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

행군의 첫날에 먹을 것은 바닥이 나고 말았다. 배고프면 솔잎을 뜯어 씹든가 눈빵을 빚어 그것을 한입씩 떼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군 하였다. 강냉이떡 한 개를 가지고 14명이 한 끼를 굼때는 날은 그래도 잘 먹는 날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밤에 야숙을 할 때마다 손명직, 주도일, 김대천을 비롯하여 체통이 큰 상급반 아이들은 10살 미만의 나어린 아동단원들을 엄지닭처럼 품고 앉아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잠깐씩 눈

을 붙이고는 교대로 주변을 감시하군 하였다.

그 대오를 인솔하는데서 아동단단장 손명직은 특출한 조직적 수완과 통솔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원래 왕우구에 있을 때부터 아동단사업을 잘 하였다. 한때는 적구에 내려가 김재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하공작에도 참가하였다. 일곱 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구학을 공부한 손명직은 10살도 되기 전에 천자, ≪명심보감≫을 다 떼였는데 눈썰미가 빠르고 총기가 좋아 지하공작에서도 적임자였다. 그는 아동단 시절에 조직을 발동하여 교내의 일본어교원을 비롯한 7명의 반동 교원들을 숙청하는 실적도 올리어 일찍부터 혁명가들의 신임을 받았다.


이오송

손명직의 집안은 대대로 애국애족의 넋을 굳건하게 이어온 믿음직한 혁명일가였다. 할아버지는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 의병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었고 아버지 손화준은 백호장의 간판을 가지고 이면에서 비밀공작을 한 혁명투사였다. 손명직의 5촌숙부 김봉석(원명 손봉석)은 소부대 활동을 하다가 해방을 몇 시간 앞두고 애석하게 전사한 나의 충실한 전령병이었다.

죽어도 혁명군을 따라다니다가 죽겠다고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이 깊은 산중에까지 찾아온 아이들, 부자집 아이들이 자개를 박은 밥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풍청거릴 때 우등불 옆에서 가랑잎을 덮고 쪽잠을 자면서도 광복된 조국을 그려온 이 아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과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 귀여운 꽃봉오리들에게 금의옥식은 마련해주지 못할 망정 왜 수수한 광목옷 같은 것이야 못해 입히며 콩죽 같은 것이야 못해 먹이겠는가.

≪애들아, 얼굴을 들어라. 너희들이 헌옷을 입고 있는건 너희들의 탓이 아니다. 어서들 이리 오너라!≫

나는 두 팔을 크게 벌이면서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올망졸망 나를 둘러싸고 엉엉 소리를 내며 목놓아 울었다.

나는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갔다.

며칠째 병에 걸려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네댓 명의 아이들이 모포도 없이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 있었다. 무슨 병인가고 물었으나 아이들은 하나같이 대답을 피하였다. 밀영을 지키고 있던 대원들도 골병이라고만 하였지 정확한 병명은 대주지 못하였다. 그것이 마음속의 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박포리밖에 없었다. 아무 죄도 없는 청옥같은 아이들에게 ≪민생단≫이라는 표쪽을 달아놓았으니 무슨 병을 앓는다고 대답하겠는가.

나는 전령병을 불러 배낭에서 모포를 꺼내라고 하였다. 그것은 왕청시절에 일본군수송대를 치고 노획한 나의 단매모포였다. 그 한 장이나마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덮어주면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 같았다. 나의 의도를 알아챈 대원들이 저마다 자기의 모포를 꺼내느라고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포들을 임자들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동무들, 그만들 두시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고 추워서 떨고 있는데 100장의 모포를 덮고 잔들 내 마음이 더워질 수 있겠소. 동무들이 나를 생각하겠거든 먼저 이 애들을 잘 돌보아주는 것이 좋겠소.≫

밀영의 후방부성원들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푹 숙였다.

내 목소리는 갈리고 쉬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혁명가의 가치관을 두고 다시 한번 심각한 음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혁명을 시작했고 지금도 무엇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혁명을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무엇을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혁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다. 온갖 불의와 폐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적인 것을 옹호하며 인간이 창조해 낸 모든 부와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저주로운 세상을 향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겠는가. 학대받는 계급에 대한 동정이 없고 망국의 설움속에 울고 있는 민족에 대한 연민이 없고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헤매는 부모처자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곤란을 하루도 참아내지 못하고 따뜻한 온돌방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동무들의 가슴속에서는 어느새 혁명의 길에 나설 때 간직했던 순결한 인간애가 식어버리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우리 혁명은 후대들을 위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후대들에게 밥 한 술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옷 한 벌 제대로 해 입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떳떳이 자랑할 수 있겠는가.

후대들은 계급의 꽃이고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이다. 이 꽃을 잘 가꾸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 가에 따라 혁명의 장래가 결정된다. 혁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를 두고 완성되게 된다. 오늘은 우리가 혁명을 담당한 주인으로 되고 있지만 내일은 저 애들이 자라서 혁명을 떠메고 나가는 주력군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핏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더구나 저 애들은 우리의 전우들이 남기고 간 유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 아이들을 아끼고 따뜻이 돌보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무슨 상급의 박해가 두려워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적의 총구앞에 가슴을 내댈 수 있겠는가. 동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자신만을 위한 보신의 철갑속에 들어박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을 보면서도 그것을 동정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용렬한 인간들이 된 것이다. 동무들, 생각해보라, 이것이 세계를 개조하겠다고 나선 공산주의자들의 소위겠는가.

후대들을 괄세하는 것은 자기자신들을 괄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지 않거나 그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자기 보신만을 생각하면서 외면한다면 먼 후날에는 후대들이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 년 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내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와질 것이다.

동무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만발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 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내가 그날 병실에서 한 말은 대체로 이런 내용의 것이였다.

이것은 80고령이 된 오늘에 와서까지 내가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후대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

후대들이 없이야 우리 생활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가 연필문제를 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 첫째 의정으로 상정한 것이나 매 해 설명절을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것도 다 이런 후대관의 표현인 것이다. 후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들의 교육 교양을 담당한 교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공화국의 초대 내각성원들 중에는 이병남이라고 부르는 보건상이 있었다. 그는 해방 전부터 소아과계통에서 의료활동을 꾸준히 벌려온 이름난 박사이며 성실하고 양심적인 애국자였다.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려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그는 우리의 권유로 공화국의 초대보건상이 되였다. 그 사람의 품성 가운데서 제일 표가 나는 것은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특별히 잘 다루는 점이었다.

소아과를 전공한 이병남은 주머니에 딸랭이를 늘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우는 아이들을 달랬다. 중병이 들어 골골거리던 아이들도 그가 딸랭이를 몇 번씩 흔들기만 하면 울음을 그치고 공손히 진찰을 받곤 하였다. 어리광대들도 찜쪄먹을 능청스러운 얼굴표정과 배꼽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재미나는 익살로 상대방을 흐물흐물하게 만들면서 눈깜짝할 사이에 치료는 치료대로 다 해치우곤 하는 능란한 솜씨로 하여 그는 어데가서나 어린 환자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들의 살뜰한 벗이 되군 하였다.

우리 딸 경희는 홍역을 앓을 때 발진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게다가 바람간수를 잘하지 못하여 폐렴에까지 덜컥 걸렸다. 딸은 어머니를 찾으면서 줄곧 울었다. 어린 동생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김정일**조직비서는 ≪경희야, 아버지앞에서 어머니를 찾으면 안돼!≫라고 타이르곤 했다. 정부병원의 소아과 의사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였다. 그때 이병남보건상이 경희의 침상으로 찾아왔다.

이병남은 청진기는 꺼내지도 않고 세심히 증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곧 ≪홍역보다 폐염이 먼저 왔습니다.≫하고 진단을 내렸다. 보건상의 처방대로 소아과 의사들은 즉석에서 어린 환자의 입에 산소를 불어넣었다. 의식을 잃고 있던 경희는 하루만에 울음을 터뜨리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발진도 잘되었다.

나는 이병남을 보고 물었다.

≪이선생, 어떻습니까? 저 아이가 우는 건 무엇때문입니까?≫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병이 나을 때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지요. 사흘 후에는 따님이 완쾌될 것 같습니다.≫

이병남은 줄도 테도 다 금으로 되고 호박노리개까지 달린 회중시계를 풀면서 경희의 코앞에 대고 흔들었다. 그것은 그가 어린 환자들을 달랠 때마다 딸랭이과 함께 진정제처럼 사용하곤 하던 금시계였다. 딸은 울음을 그치고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사흘 후에 정말 병이 완쾌되었다.

나는 보건상의 그 능란하고 거침없는 치병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것 참, 신통합니다. 어쩌면 이선생의 예언이 그렇게도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이선생은 의사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친구이고 아동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함부로 대지 말아야 합니다.≫

1950년 가을에 나는 고산진에서 이병남을 만났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으나 한 가지만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는 끈도 없는 허술한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곤 했다. 경희를 달랠 때 풀어서 흔들던 번쩍번쩍하는 시계를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니 군기헌납으로 나라에 바쳤다

고 했다. 전쟁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이병남의 애국적 지성과 양심인으로서의 진정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 회중시계가 너무도 초라하기에 나는 후날 그에게 새 손목시계를 채워주었다,

이 자그마한 세부를 통하여 나는 후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지진 사람들만이 참다운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송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이며 이 송가를 위해 투쟁하는 복무자들이다.

이병남과 같은 아동들의 벗이 한 명만 있었어도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처지는 그처럼 험악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유산으로 남긴 그 20원을 소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에만 쓰라고 당부하시던 20원이었다. 손끝에 피가 나도록 삯일을 하여 한푼두푼 힘겹게 벌어들인 노력의 열매였다. 나는 어렸을 때 돈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학습장이나 연필을 사는 것도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를 상점이나 장마장 같은데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어려서부터 돈맛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라서 수전노가 되고 조국도 모르고 민족도 모르는 속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돈과 관련된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어느 날 병환에 계시던 아버지는 거리구경을 하자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바깥출입을 거의 못하시던 아버지가 나와 같이 나들이를 떠난 것은 전에 없는 일이었다. 중국말에 능하지 못한 아버지는 통변이 필요할 때마다 이따금씩 나를 데리고 다니곤 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충실한 중어 통역원이었다.

≪병이 심한 때에 나들이를 떠나시는 걸 보니 필경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오늘은 무슨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저렇게도 바삐 서두르실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침상에서 일어나는 아버지를 부축해드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팔을 끼고 거리에 나설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날이 나의 생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버지가 병환에 계시는 때여서 생일 같은 것을 머리에 새겨둘 경황이 없었다.

거리를 한 바퀴 돌아본 아버지는 뜻밖에도 나를 잡고 상점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예상을 뒤집어엎는 놀라운 나들이었다. 무엇하려고 이 상점에 나를 데리고 들어왔을까,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진열장을 덤덤히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더러 마음에 드는 회중시계를 하나 나르라고 하였다. 그 상점에는 여러 가지 회중시계들이 수두룩하게 지열되어 있었는데 어떤 시계들에는 손중산의 초상까지 새겨져 있었다. 내가 손중산의 초상이 없는 회중시계를 한 개 골라잡자 아버지는 그 값으로 3원 50전의 돈을 치렀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는 시계를 찰 때가 되었다. 나라를 찾는 싸움에 나선 사람이 아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지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다. 시간을 귀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주는 생일선물이니 잘 간수해라≫

내 귀에는 어쩐지 그 말이 임종전야의 유언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실지로 그때 벌써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 것 같았다. 그런 예감을 가지고 시계와 함께 평생의 노고가 바쳐진 독립의 위업을 나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성년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회중시계를 생일 선물로 사준지 두 달도 못되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 나는 그 시계를 가지고 화성의숙에 갔고 거기서

뜻이 맞는 동지들을 만나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조직했다. 우리는 빨치산시절에도 그 시계에 맞추어 매일매일의 일과를 집행했고 공격개시시간과 접선시간을 정할 때에도 그 시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내가 그 회중시계대신 손목시계를 차기 시작한 것은 보천보전투무렵이었다. 전우들은 나의 회중시계가 고물이 되였다고 하면서 사령관의 체모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새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라고 권했다. 그래서 나는 10년동안 가지고 다니던 회중시계를 다른 동무에게 주고 신식손목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처럼 내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설 때까지 돈을 모르고 자라나게 하였다. 내가 자기 손으로 값을 치르고 상점의 물건을 사본 적이 있었다면 그 것을 길림시절 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돈에 대한 나의 무관심이 조장되었다고 하면 독자들은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돈이나 물건에 포로되면 당도 수령도 조국도 인민도 안중에 없고 나중에는 부모처자조차도 모르는 인간 추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 80풍상의 일생을 총화하면서 내가 후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처럼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돈맛을 모르고 자라도록 엄하게 단속하고 통제한 것은 아버지가 세워준 우리 일가의 독특한 가풍이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가풍을 어기고 나에게 평생의 신고가 집약된 20원을 유산으로 넘겨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풍랑 세찬 일생이 몇 장의 지전으로 압축된 것같은 감을 느끼며 그 돈을 소중해 받아안았다. 20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호신부와 같은 것이였다. 그 돈을 품고 있으면 배고프지도 안하고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내곁에 계시면서 온몸과 넋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내 개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20원이었다. 가능하다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기도 했다.

그러나 준엄한 현실은 이 결심을 여러 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 돈을 쓰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하며 동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돈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수없이 생겼다.

나자구들판에서 우리 일행을 구원해준 잊지 못할 마노인과 헤어질 때에도 나는 그 노인의 은공을 어머니가 준 20원으로 갚으려고 했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인사를 하는거야 응당한 처사가 아닌가. 근 20일 동안이나 이 산막에서 노인의 한해 양식을 다 파먹는데 주머니에 돈을 두고서도 사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굽어보고 나를 뭐라고 책망하겠는가. 하지만 그 신선같은 노인이 종시 나의 성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나라를 찾자면 이보다 더 험악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겠는데 그때에나 쓰라, 나야 다 죽은 몸이나 다름없고 이 궁벽한 산속에서 돈이 필요치도 않은데 그것을 받아 무엇에 쓰겠는가, 나는 옹노에 걸리는 산짐승만으로도 호구지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사코 돈을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이런 곡절을 거쳐 어머니의 사랑이 고인 20원의 돈은 한푼의 허실도 없이 내 주머니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었다.

그 돈으로 헐벗은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입힌다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다. ≪어머니, 이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곁을 떠난지도 네 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딱한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장래를 생각해서 그럭저럭 보존해왔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20원을 소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붙이가 하나도 없는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혀야겠습니다. 장차 이 보다 더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마음먹고 택한 결심이니 어머니도 지지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유달리 좋아하는 저의 성미를 어머니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동단원들과 함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찾아온 김정숙동지

멀리 토기점골의 차디찬 산등성이에 홀로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향해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였다.

≪이 20원을 가지고 무송시내에 내려가서 천을 사오시오. 그리고 그 천으로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시오.≫

이것은 연대정치위원 김산호에게 하달된 나의 명령이였다.

김산호는 몹시 딱해하면서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들었다. 지주집에서 머슴군노릇을 하다가 작두날에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린 오가자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반제청년동맹사업을 많이 해온 호남아 김산호는 20원속에 깃들어있는 사연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사령관동지의 영이니 집행은 하겠습니다만 어쩐지 손이 떨립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나서 무송시내에 내려가 한자에 10전씩 한다는 캬바진 비슷한 천을 7필인가 8필인가 사왔다. 힘이 장사인 김산호였지만 그것을 지고 오느라고 혀가 나올뻔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귀환도중 공교롭게도 토비화된 산림부대의 잔당들에게 그 천을 모조리 강탈당했다. 토비들은 김산호를 나무에 비끄러 매놓고 달아나 버렸는데 힘이 황소같은 정치위원이였지만 하마트면 얼어죽을뻔 했다. 우리는 소부대를 파견하여 김산호도 구원하고 산림부대가 강탈해간 천도 모조리 되찾아 왔다.

7, 8필의 천으로는 밀영의 아이들에게 옷을 다 해입힐 수 없었다. 나는 장울화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김산호를 다시 무송으로 내려보냈다. 김산호는 장울화의 도움으로 많은 천을 해결했다. 우리는 그 천으로 밀영의 아이들과 ≪민생단≫누명을 벗어내치고 새 사단에 편입된 100여명의 유격대원들에게 옷을 다 해입혔다. 그러고나니 무거웠던 내 마음도 어느정도 가벼워졌다.

사실 20원이 무슨 큰 돈이기야 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때 후련한 심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마안산을 떠나갔다.

새 옷을 입고 기뻐서 어쩔줄 모르던 밀영의 아이들이 모두 따라가게 해달라고 졸라댔다. 나는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아이들의 그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나

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를 따라다닐 수 없는 유년기의 아이들과 병든 아이들 약간 명을 내놓고는 대부분이 남하하는 우리 대오와 함께 간고한 장정의 길에 들어섰다. 유격전으로 동분서주하는 혁명군이 10대의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비록 유격전의 역사에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불길속에서 단련시켜 그들 전부를 강철같은 인간들로 키우려고 결심했다. 제일 힘든 것은 전대나무를 넘고 강을 건느는 것이였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할 때와 행군할 때 아이들을 보호할 데 대한 분공을 따로 주었다. 우리 대원들은 실로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였다. 전대나무는 안아넘기고 강물은 업어 건늬였으며 적들의 총알은 몸으로 막아주면서 그들을 자래웠다.

그때 나를 따라 백두산지구로 나왔던 아이들은 그 후 빠짐없이 혁명군에 입대하였고 가열처절한 유격전을 통해 훌륭한 군정간부들로 성장했다. 종군이 허락되지 않아 얼마간 대첨창밀영에 가있던 9살내기의 리오송까지도 송장상의 전령병으로 복무하다가 후에는 장백으로 나와 나의 전령병으로 되였다. 1939년 5월에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무산지구로 진공할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였다. 그는 물이 깊어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안고 강을 건네주었다. 그때 그렇게 병아리처럼 품에 안아 키운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당과 국가와 군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안산에서 헐벗은 아이들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던 그때의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나는 조국이 해방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에게 국가가 무료로 옷을 해입히는 제도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전쟁으로 파괴되고 영락된 나라를 재건하던 1950년대 후반기에 벌써 우리는 국가가 옷을 지어 공급하는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안산에서의 고뇌를 체험한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기적이였다. 우리는 해마다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는데 수천수억 원의 돈을 지출한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인사들은 이따금 나에게 묻는다. 그 많은 돈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출하면 국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가. 각자가 상점에서 필요한 천을 사다가 해입어도 되겠는데 왜 국가가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어 입히는가, 무가로 옷을 해입히는데서 생기는 손실은 무엇으로 메꾸는가.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마안산에서 헐벗은 아동단원들을 만나던 때의 사연을 말해준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포성을 들어보지 못한 자본주의나라의 정객들이 공화국정부의 시책속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역사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재정적 계산의 각도에서만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인민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존재하고 백두의 전통이 계승되는 한 국가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공산주의적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확신한다.

마안산시절의 옛 아동단원들과 항일투사들은 온 나라의 아이들과 함께 **김정일**조직비서의 온정이 깃든 새 옷을 철따라 받아안곤 한다.

나의 생일 70돐에 나를 만났던 이오송, 손명직은 조직비서가 선물로 지어준 새 군복을 받아안고 내앞에 나타나 마안산시절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말끝을 맺지 못했다.

3. 혁명전우 장울화(1)


잊을수 없는 장울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김산호가 천을 해결해 가지고 마안산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시금 그를 무송현성에 파견하였다. 20원 어치의 천을 가지고서는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다해 입힐 수 없었다. 싸움을 하여야 천도 노획할 수 있겠는데 나는 나와 오래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성시에서 백병전을 벌일 의향이 조금도 없었다. 새 사단의 조직으로 혁명군의 면모를 일신시킨 우리는 그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적 역량을 확대해 가는 단계에 있었다.

힘도 축적하기 전에 총소리부터 먼저 내면 무송에서의 우리의 처지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고 백두산지구 진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었다.

천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장울화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대부호의 아들이며 나의 혁명전우이며 항일구국의 이념에 충실한 열성 조직원인 장울화만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충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전력을 다하여 나를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다.

내가 무송에 다시 갔다 오라는 명령을 내리자 김산호는 좀 얼떨떨해 해였다. 방금 다녀왔던 곳에 또 가라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속으로는 그를 휴식시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하지만 아이들과 새로 편성되는 부대들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힘든 일거리를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 김산호는 장울화와의 사업을 제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 장울화가 장아청이라는 아명으로 오가자의 삼성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김산호는 그 곳 반제청년동맹지부에서 청년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사업상의 연계나 친교는 비록 없었지만 이런 정도의 연고면 신임장도 대신할 수 있었다.

≪산호 동무, 미안하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매번 동무를 찾게 되는구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도 모르겠소. 동무가 너무 혹독한 상관을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를 구원해 준 소부대 동무들과 함께 마안산에 돌아와 노독을 풀던 김산호가 새로운 과업을 받으려고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이런 말로 그를 맞이했다.

김산호는 충혈된 눈으로 몇 초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령관동지답지 않게 우회작전을 하시는구만요, 제가 무슨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직방 말씀해 주십시오.≫

김산호의 그 말은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 주었다.

≪좋소. 그럼 산호 동무는 내일 아침 다시 무송으로 떠나야겠소. 나는 동무를 장울화한테 파견하기로 결심하였소. 아무래도 그 사람의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소. 오가자에 와서 소학 훈장을 하던 그 중국청년이 생각나겠지?≫

≪장아청선생 말입니까. 생각나지 않구요. 안경알 너머로 사람들을 수줍게 쳐다보던 그 눈매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생의 기타소리가 구수했지요.≫

≪그러면 됐소. 내가 소개신을 써 줄 테니 동무는 그 소개신을 가지고 장아청이를 만나보오.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정찰을 슬슬 하다가 소남문거리 쪽에 가서 장만정의 집을 찾으시오. 그 장만정이 바로 장울화의 아버지인데 무송에서 꼽히는 부자요.≫

김산호는 희색이 만면해서 가슴을 쭉 펴고 나를 쳐다보았다.

김산호는 들놀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었다.

키가 유달리 큰 이 육 척 장신의 사나이한테는 주위의 동료들이 존경을 가지고 쳐다보게 하는 실농군의 기질이 있었다. 그는 일거리가 생긴 날은 어깨바람을 일구며 돌아갔지만 아무 일거리도 차례지지 않는 날은 무슨 울화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우울해서 돌아갔다. 그의 얼굴은 과업을 받은 날과 받지 못한 날의 기분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일종의 한난계와도 같았다.



장울화의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노란자위라고 부를 수 있는 새벽 시간을 깡그리 털어서 장울화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때 누가 발기했던지 콩기름 통 밑바닥을 2중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편지를 넣어 가지고 가게 창안하였다. 김산호는 그 콩기름 통을 들고 흡족한 기분으로 마안산을 떠났다. 군경들의 검문에 합격할 수 있는 알짜배기 콩기름 장사로 가장시키려고 박영순은 그에게 ≪쿠리≫들이 옷보다 더 허술하고 기름때가 반들반들한 옷까지 구해다 입혔다.

나는 가슴을 조여가며 장울화의 소식을 기다렸다. 김산호를 기다리며 잠을 못 이루던 그 며칠 밤 나의 일체 상념은 온통 장울화에 대한 그리움속에서 흘러갔다.

이제라도 꽁무니에 걸레짝 같은 수건이나 하나 차고 김산호와 같은 ≪쿠리≫차림으로 현성에 슬금슬금 내려가 장울화를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장울화와 함께 우리의 옛집이 있는 소남문거리도 거닐어보고 제1우급 소학교 시절의 스승들과 학우들도 만나보고 양지촌의 아버지 묘지에도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일 내앞에 산더미 같은 일감들이 쌓여 있지 않고 또 네 옆에 친혈육 이상으로 나의 신변을 각별히 보호해 주는 전우들이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만난을 무릅쓰고 무송 행각의 길에 오르는 모험을 하였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학창 시절의 많은 시간을 무송에서 보낸 나는 그 지방의 군경들에게도 환영할 수 없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무송은 내가 관헌들의 손에 체포되어 구류장의 밥을 먹어보았던 또 하나의 음험한 군벌 소굴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나의 소년 시절의 살점 같은 한 토막이 남아있고 아버지의 산소가 있고 사랑하는 중국의 벗 장울화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하여 나는 이 분지의 도시를 변함없이 사랑하였다.

무송의 십자거리 한 옆에는 1932년 6월 남만원정을 나갈 때 나와 장울화의 상봉을 마련해 준 ≪동소과≫라는 양주공장이 있었다. 그 양주공장은 후에 이름을 달리 달았다가 내가 남만원정 때 그 곳에서 장울화를 만났다는 사적이 알려진 다음부터 다시 본래의 이름대로 ≪동소과≫라고 하였다 한다. 장금천이 나의 생일 80돌에 그 양주공장에서 만든 ≪동소과≫라는 이름있는 술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전할 때 나는 무송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다시금 느꼈다. 거기서 나는 장울화와 함께 여러 차례의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혁명을 두고, 많은 소감을 나누었다. 장울화는 그때 자기의 아내가 임신

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무송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 장금천이다.

장울화는 그때 부대의 위용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성주의 부하들이 참 끌끌하구나. 기차칸에서 우리가 만난 게 한 해도 못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군대를 조직하다니. 성주가 그 동안 큰일을 했어. 이제는 대사를 이루게 됐지, 대단해!≫

그는 그의 가식 없는 격찬에 머리가 핑 돌 지경이였다.

≪울화, 너무 비행기를 태우지 말라구. 우린 방금 첫 시작을 했을 뿐이야. 사람으로 치면 갓난애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 갓난애가 세상에 태어나는데서는 울화가 준 수십 자루의 총이 큰 은을 냈어. 울화는 우리 군대를 출산시키는데서 무시할 수 없는 공을 세운 조산원의 한 사람이야.≫

≪그건 지나친 칭찬인걸. 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쓸모 없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타매하고 있는지 몰라. 성주는 지금도 이전날처럼 변함없이 나를 믿고 있겠지?≫

≪그럼 믿지 않구. 믿어도 단단히 믿지. 저기 저 송화강의 물줄기가 설사 거꾸로 흐른다고 하여도 울화에 대한 나의 정이야 변할 수 없지.≫

장울화는 불현듯 내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성주, 나를 성주의 부대에 받아 달라구. 나도 무장을 들고 떳떳하게 항일을 하고 싶단 말이야. 성주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무송에서 성주를 놓아주지 않겠어.≫

이 단도직입적이 요청앞에서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울화, 정말인가?≫

≪정말이구말구. 성주의 부대가 무송에 온 첫날부터 나는 매일 그 생각만 했어. 처도 지지하였구…≫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놓아줄까?≫

≪아버지야 놓아주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간다면 가는 것이지. 성주도 기차칸에서 말하지 않았나. 나라가 없어지는데 집이 다 무엇이냐. 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한다구 말이야. 진한장도 부호의 자식으로서 혁명을 하는데 나도 구국군공작 같은 것이야 할 수 있지 않은가.≫

≪울화가 빨치산 대오를 따라가겠다는 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울화, 혁명이란 무장투쟁이라는 한 개의 전선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울화가 무송에 그냥 남아서 지하혁명사업을 해 주었으면 해.≫

≪지하혁명사업이라니? 그럼 유격대에 못 받아 주겠다는 건가?≫

≪못 받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선에서 싸워 주었으면 하는 거지.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 결속하는 지하혁명투쟁은 무장투쟁에 못지않은 중요한 전선이야. 이 전선에서 활동하는 투사들이 인민대중을 잘 묶어 세우지 못한다면 무장투쟁은 그 기초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송지구에도 강력한 지하혁명전선을 꾸리려고 생각했어. 나는 울화가 이 전선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었으면 하는 거야.≫

장울화는 기력이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안경알을 닦기 시작했다.

≪그럼 성주는 나를 적들의 총탄이 미치지 않는 2선으로 빼돌릴 심산이구나. 부잣집 자식으로 호강을 해온 사람이니 고생을 견뎌내지 못할 거란 말이지?≫

≪물론 그런 계산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울화의 체질을 가지고 서는 험산준령을 타고 다니는 유격대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나야 뭘 숨기겠나. 나는 울화의 사상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준비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 산에 들어와 고

생을 하느라고 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사진관도 차려놓고 교원도 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힘껏 도와 달라는 것이지. 대부호의 자식이라는 간판이 얼마나 좋아. 그 간판이면 울화는 혁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있거든.≫

나는 다음날에도 장울화를 끈기있게 설복하였다.

우리의 실갱이는 결국 장울화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났다. 우리가 무송을 떠나는 날 그는 나를 바래주며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지하투쟁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주와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그러는거야. 성주가 없는 나의 생활, 그것은 바이올린이 없는 관현악과 같은 것이지. 내가 성주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성주는 다 모를 거야. 그러니 어데 가서나 나를 잊지 말아 달라구. 나한테서는 성주보다 더 가깝고 귀중한 친구가 없어. 아무쪼록 몸조심하라구.≫

그날 장울화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래주었다.

그때부터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4년이라면 적지 않은 세월이다. 하지만 장울화는 언제나 나의 관심속에 있었으며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 가슴은 늘 꽉 차 있었다.

나는 초조하게 김산호를 기다렸다.

콩기름 통을 지고 무송시내에 내려간 김산호는 콩기름 흥정을 하면서 얼마 동안 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장울화가 ≪형제사진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다. 말이 사진관이였지 내용은 무송지구의 지하조직들을 지도하는 본부나 다름없었다. 장울화는 이 본부에 틀어 앉아 돈벌이도 하고 조직원들과의 연계도 가지고 있었다. 김산호가 찾아가서 ≪장 선생, 좀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하자 그는 현상실로 손님을 안내하였다.

≪나는 **김일성**장군이 보내서 당신한테 왔소. **김일성**장군은 지금 무송근방에 와 있소.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 오라고 해서 내가 그분의 위임을 받고 당신을 찾아왔소.≫

김산호가 장울화에게 한 말이였다.

장울화는 김산호를 인차 알아보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아, 김성주! 성주가 가까이에 와 있단 말이지요. 당신은 김성주가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할 수 있소?≫

≪지금은 멀어서 가기가 힘드오. 우리가 차후 중간기점에 알맞춤한 장소를 정하고 통지할 테니 거기서 김 장군을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장울화는 산호를 미덥지 않은 눈길로 훑어보다가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나서야 얼굴에 밝은 미소를 담았다.

≪좋소. 그러면 연락을 기다리겠소. 김성주에게 편지를 고맙게 받았다는 내 인사를 전해 주시오. 내가 건강하다는 것과 약속에 충실하였다는 것도 보고해 주시오.≫

김산호는 의기양양해서 마안산밀영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찬 그의 보고는 1936년 봄이 나에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새 봄의 훈향에 취한 사람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발목이 아파나도록 밀영을 거닐었다. 나의 제의에 따라 장울화와의 상봉장소는 무송현 묘령 부근에 있는 천연동굴로 결정되였다.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수십 정보의 땅과 수십 정보의 인삼포, 수많은 가병들을 가지고 있는 대부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 동무들 중 일부는 나의 묘령행을 미타하고 안심할 수 없는 걸음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사령관동지, 이거 주제넘는 간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씨 부호의 아들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사령관동지의 소학동창이고 또 다년간 조직생활도 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계급적 본성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는 어쨌든 착취계급의 자제가 아닙니까.≫

나는 그런 권고를 즉석에서 밀어 버렸다.

≪동무들, 동무들이 내 신변을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요. 하지만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소. 동무들은 지금 계급적 본성이 어떻다면서 자기네 사령관이 무슨 함정에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아부재기를 치는데 그것은 나의 둘도 없는 혁명전우 장울화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우리의 통일전선 정책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소.≫

≪사령관동지! 저희들은 지방조직에 있을 때 사람의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자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으로 교양받았습니다. 우리가 혁명군에 입대한 다음에도 적지 않는 지휘관들은 그렇게 교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주, 자본가들과 노동자, 농민들 사이에는 오직 투쟁이라는 한 가지 원리만이 작용하며 착취계급 일반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이거나를 막론하고 타도하거나 청산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묘령행차의 반대자들은 한두 마디의 훈계에 호락호락 굽어들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이 혁명의 원리에 어긋나는 초혁명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여 함구령을 내릴 수 없었다. 우리 대내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전의 명제들을 혁명실천과의 연관속에서 창조적으로 보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았다. 맑스나 레닌의 명제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치의 에누리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규로 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교조를 떼버리자면 꾸준한 원리교양이 필요했다.

나는 말했다.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지주, 자본가들이 우리의 적대계급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동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지주, 자본가들이라고 하여 다 한 몽둥이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주, 자본가들 가운데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항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오가자 내막을 잘 아는 김산호동무도 있지만 조가봉이란 그 고장 지주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지 모른다.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은 조가봉이란 지주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후원해 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무장투쟁 준비를 하고 있던 1930년 가을에 장울화는 자기네 가병들이 사용하던 수십 자루의 총을 나에게 무가로 넘겨주었다.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이 한 자루 한 자루의 총이 얼마나 비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동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대오에는 총 한 자루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열사들도 많았다. 그런데 장울화는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서 힘들게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무기를 단꺼번에 40자루나 넘겨주었다.

장울화를 믿지 못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장씨 가정이 지난날 우리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했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태여 더 설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계급성과 계급투쟁에 대한 일면적인 해석이 우리 혁명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하고 넘어가야겠다. 동무들의 견해대로 하면 장만정과 같은 지주는 아무리 혁명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여도 착취계급이기 때문에 타도대상으로 되고 반면에 노동자, 농민 출신의 밀정은 아무리 혁명에 해로운 일을 많이 하여도 기본계급이라는 이유로 포섭대상으로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규정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평가하는데서 항상 공명정대한 입장에 서야 한다. 이것은 소속이나 신앙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평가하고 공로는 공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서 언제나 과학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과학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은 그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실제 행동을 기

본으로 하여 객관적 입장에 철저히 서서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는데서 출신만을 절대화하게 되면 과학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런 평가는 공정한 평가로 될 수 없다.

우리가 만일 계급성이나 계급투쟁 일면만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을 좌경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는가? 그런 처사는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적의 진영으로 밀어던지는 후과를 낳게 된다. 적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눈뜬 소경이 되어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고 닥치는 대로 타도할 것을 바라고 있다.

동무들, 우리는 간도에서 반≪민생단≫투쟁의 과녁이 되어 마음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들이다. 같은 가마밥을 먹으며 생사를 함께 해온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때 동무들은 모두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눈물나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은 의심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인간들을 향해 함부로 그 저주로운 불신의 무기를 쳐들 수 있겠는가.…


강윤범

나는 이런 말로 묘령행차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준 다음 몇 명의 호위 성원들과 함께 마안산밀영을 떠났다.

일부 사람들이 부자들의 계급적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걸고 나와 장울화와의 상면을 반대한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내던지 그 말마디들이 나와 장울화의 우정, 우리 가정과 장울화네 가정 사이에 맺어졌던 친교를 모욕한 것 같아서 나는 불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송화강의 흐름처럼 꾸준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신성하고도 뿌리깊은 우의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의 우정은 그 어떤 이유나 궤변으로써도 훼손시킬 수 없는 진지하고 심오하고 진실한 것이었으며 전반적 혁명의 이익과 공산주의적 인도주의와 윤리도덕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유산자는 착취자라는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다 반동으로 본다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사회개조의 어려운 길을 애써 걸어갈 필요도 없지 않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재산의 유무나 대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민을 얼마나 사람하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보았고 무산자라 하더라도 조국애와 인간애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였다.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미 이야기하였지만 나의 소년 시절의 첫동지 강윤범은 가세가 넉넉한 집 자식이었다. 윤범이네 집에서는 자그마한 과수원도 가지고 있었다. 생활수준으로 보면 우리 만경대 집과는 비교가 안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강윤범을 무척 사랑하고 신임하였다. 그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열렬히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회고록 1권에서 이야기한 백선행도 큰 부자였지만 평양시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사실 그를 대부호로 만든 것은 평생 먹기 싫은 것을 먹고 입기 싫은 옷을 입고 하기 힘든 일을 했다는 그의 초인간적인 근검절약의 정신이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땅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고 고혈을 짜내며 치부하는 수전노들, 인륜의 도를 어기고 무지막지한 행위를 자행하며 온갖 사회악을 빚어 내고 있는 악덕부자들이 많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와 유산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백선행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콩나물장사도 하고 두부도 팔고 꽃도 팔고 베도 짜고 무명낳이도 하고 돼지도 기르고 뜨물찌끼장사도 하면서 얼굴에 분 한 번 바를 사이 없이 이악스럽게 부를 쌓아 나갔다. 16살에 청산과부가 된 때로부터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일하면서 피땀으로 저축한 수천수만 원의 거금을 그는 사회를 위한 사업을 고스란히 바쳤다.

그가 맨 처음으로 사회를 위해 해놓은 것이 바로 ≪솔뫼다리≫라고 부르던 송사리의 석조다리이다. 백과부의 덕행에 감동된 평양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선행이라 짓고 그 함자를 따서 ≪솔뫼다리≫를 ≪백선교≫라고 명명한 것은 그 후의 일이였다.

그 당시 평양의 신시가지에는 부립공회당이 하나 있었다. 그 공회당의 사용권이 일본인들에게만 있고 조선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선행은 분개한 나머지 조선사람들만을 위한 공회당건설의 총공사부담을 혼자서 걸머지고 수만 원에 달하는 돈을 아낌없이 출자하였다. 지금도 연광정앞에는 지난날의 평양공회당이던 3층짜리 석조건물이 옛모습 그대로 서 있다.

백선행은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였는데 평양의 광성소학교, 창덕학교, 숭의여학교와 같은 학교들에서는 그가 기증한 수십 정보의 토지들을 밑천으로 삼아 학교를 운영하였다. 결국 나도 백과부의 덕이 미친 창덕학교에서 그 덕행의 일부를 받아 안은 셈이다.

백선행은 자기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곤 하였다.

너희들은 조선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들딸이다. 졸린다고 자지 말고 놀고 싶다고 놀지 말고 공부하기 싫다고 책을 밀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우리 나라가 독립된단다.

총독부에서 주는 표창을 전달하려고 서울에서 고관이 내려와 면회를 청하였으나 백 과부는 거절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장하고 견지해 온 사람 평가에서의 사상본위, 행동본위의 기준은 훗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만일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민족의 총동원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조국광복회 산하에 그처럼 많은 군중이 모여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조국통일이 지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그처럼 많은 남녘의 민중들과 해외교포들이 민족대단결의 깃발밑에서 어깨를 겯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사상이나 본심을 보지 않고 신분에 기초하여 부자 일반을 반대하는데로 나아갔더라면 해방 후 정준택, 강영창, 노태석, 이지찬, 김응삼과 같은 유산자 출신의 지식인들은 우리 나라 정치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그처럼 놀라운 헌신성과 위훈을 발휘하지도 세우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중국의 유산자들도 이와 꼭 같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대하였다. 이런 관점과 입장이 없었더라면 나는 대지주의 아들인 진한장을 나의 벗으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부호의 자식인 장울화를 우리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진한장이나 장울화의 생애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해 온 명망 높은 인사들 가운데는 유산계급 출신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많았다.

자기의 전생애를 중화민족의 행복과 공산주의 위업,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위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주은래도 출신을 따지고 보면 청나라 말기의 부유한 관리의 아들이였다.

장울화가 출신과는 관계없이 자산계급을 적대계급이라고 보는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운동에 전생애를 바친 것은 나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그에게 애국주의적인 교양을 준 것은 아버지 장만정이였지만 공산주의적인 영향을 준 것은 나와 나의 동무들이었다. 내가 무송 제1우급 소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을 때만 해도 그는 소박한 소년 우국지사에 지나지 않았다.

나도 역시 그 당시까지는 평범한 애국소년이었다. 그가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ㅌ·ㄷ≫와 공청을 조직하고 그 줄기를 사방에 뻗쳐갈 때였다.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와 박차석을 중심으로 하여 무송에서 당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공산주의 비밀소조를 무었는데 정학해, 채주선과 함께 장울화도 그 조직에 관계하였다. 이때부터 장울화는 공산주의물을 먹기 시작하였다.


백산학교

나는 사 회장의 소개로 무송 제1우급 소학교에 편입한 첫날부터 장울화와 함께 공부하였다. 우급이란 고급이란 뜻이다. 불우한 망국소년 김성주와 대부호의 아들 장울화의 동석 공부, 어찌 보면 역사의 장난같기도 한 이 파격적인 결합 속에서 우리의 유례없는 우정이 싹트고 개화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는 그 조건부속에 우리 우정의 출발점이 있은 것은 아니었다. 나와 장울화의 우정은 나의 아버지 김형직과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의 천교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었다.

공영과 박진영의 도움으로 만강의 토비굴을 무사히 탈출한 아버지는 한동안 대영이라는 조선사람이 많이 사는 부락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전부터 친교가 깊었던 최면장이란 독립운동자에게 무송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현당국의 거주 승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부탁을 받고 최면장이 현정부를 찾아갔지만 조선인 혁명가들이 자기네 관할구역에 와서 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현장은 망명자라는 한 가지의 이유로 허락해 주지 않았다.

이런 때에 무송의 대부호 장만정이 병에 걸려 명의를 물색한다는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날아왔다. 아버지는 최면장의 부탁을 받고 장만정을 치료해 주었다. 이 과정에 장만정은 아버지의 붓글씨를 보고 혹했다고 한다. 그도 글씨를 잘 썼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나의 아버지와 장울화의 아버지는 친구가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장만정에게도 현정부가 무송거주를 승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최면장은 최면장대로 장만정을 설복하고 무송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유지이며 지식분자인 사회장을 만나 교섭하였다. 사 회장이란 무송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던 사춘태선생을 말한다. 사춘태선생이 교장을 하면서 교육회 회장을 겸하였기 때문에 무송사람들은 이름 대신 그를 사회장이라고도 불렀다. 사 회장은 방조를 약속하였다.

그 후 장만정이 현정부를 찾아가 조선인 망명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시내에 들어와 의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의 거주를 승인해 주면 일본놈들의 도발에 걸려들 것 같아서 당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강탈한 일본놈들을 반대해서 싸우는 것은 응당한 일이 아닌가, 당신도 친일파는 아니니 승인하면 좋지 않은가, 여기에 일본영사관도 없는데 겁날게 무엇인가, 임강에서 파견되어 오는 영사관 경찰들과 밀정들만 속이면 될 텐데 김형직이 무송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말아 달라고 전복하였다. 감심한 현장은 우리 아버지의 무송거주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만정은 우리 아버지가 폐교된 백산학교를 복구한 다음 그 인가를 얻으려고 안타깝게 뛰어다닐 때에도 현상무회 부회장 겸 교육회 위원의 자격으로 유지들과 함께 현당국을 설복하여 인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일가앞에 타개하기 어려운 생활상 고충이 가로놓일 때마다 그는 수고가 필요하면 수고를 바치고 금력이

필요하면 금력을 바치면서 온갖 성의를 다하여 사심 없는 도움을 주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장씨 일가의 방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계속되었다. 장만정은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자식들을 데리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주 돈도 보내주고 음식도 보내 주곤 하였다.

내가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한번은 형권 삼촌이 군벌당국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화불단행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되는 때에 삼촌까지 감옥에 잡혀가니 어머니로서는 앞길이 막막하였다. 어머니는 생각다못해 이번에도 장울화의 아버지를 찾아가 경찰당국에 설복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장만정의 교섭으로 삼촌은 곧 석방되었다.

장만정은 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하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 양심적인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불관언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부였지만 나라를 되찾겠다고 와신상담의 길을 걷는 우리 아버지를 동정하였으며 아버지가 병사하신 다음에는 뜨거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나를 독립운동자로서 지지하고 옹호해 주었다.

장울화는 내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나를 단순한 독립운동자로 보고 있었다.

무송에는 군벌의 앞잡이들과 일본사령관의 밀정들도 있었지만 장만정, 사춘태, 원몽주, 전아종과 같은 양심적인 유지들과 애국자들도 적지 않았다. 원몽주란 장울화의 외삼촌이다. 내가 제1우급 소학교를 다닐 때 심양사범학교 출신인 그는 우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후에는 교장사업도 하였다. 원몽주가 주관하는 유희체조시간과 풍금교습 시간은 학생들이 제일 사랑하는 인기 시간들이였다. 국민당 좌파 소속의 전아종도 사상경향이 좋은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병원도 운영하고 다른 편으로는 시계방도 차려놓고 두 개의 영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사상만은 아주 진보적이었다. 그의 형 전아철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와 장만정 사이에 이루어진 교분은 나와 장울화의 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장만정의 집으로 왕진을 가고 장만정이 마실을 오느라고 우리 집에 들락날락할 때 나는 나대로 장울화의 집에 나들이를 가고 장울화는 장울화대로 우리 집에 공부를 하러 왔다.

장울화가 집에 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그에게 조선음식을 해 주었다. 장울화는 조선음식을 무척 좋아했다. 장울화네 집에서는 나에게 교지를 빚어 주었다. 장울화가 조선음식을 좋아하듯이 나는 교즈를 대단히 좋아했다. 산동지방 출신들이 교즈를 잘 만들었다. 장만정은 산동지방 태생이었다.

1920년대 중엽의 무송시가는 우물 정자 모양으로 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시내 동쪽에 동문 1개와 북쪽에 북문 1개, 서쪽에 서문 2개가 각 있었으며 남쪽에는 소남문과 대남문이 있었다. 대남문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장만정이 경영하던 상점이 있고 거기에 얼마쯤 더 가다가 꺾어 들어가면 장울화네 집이 있었다. 우리는 이 성시의 모든 거리들을 다 돌아다녔고 모든 문들을 다 지나다녔다. 어디엔들 안 가본 데가 있고 무슨 놀음인들 안해본 것이 있으랴. 나와 장울화는 학교 마당에서 정구도 자주 치고 송화강에서 미역도 뻔질나게 감았다. 우리는 문예오락 경연에도 같이 출연하였다.

장울화는 성미가 내성적이면서도 강직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는 일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선참으로 뛰어들었고 불의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상대가 어떤 인간이건 결단코 용서하지 않았다. 일단 결심만 하면 칼날에라도 올라설 수 있는 날카로운 성미였다.

한번은 어떤 경찰이 학생들의 면전에서 별치 않은 일을 트집잡아 우리 학교 교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쓰러뜨린 적이 있었다. 교원을 하느님처럼 신성시해 온 학

생들은 이 놀라운 사실앞에서 눈이 뒤집혀질 지경으로 분노하였다. 나는 장울화와 함께 학생들을 발동시키는 성토연설을 하였다. 경찰이 교원을 구타한 것은 학원에 대한 침해이며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다. 조그마한 현경찰서의 경찰 나부랭이가 교원을 함부로 때리다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제자들로서 마땅히 경찰당국의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 그 무뢰한 같은 경찰이 학교에 와서 매맞은 선생에게 모자를 벗고 사죄하라고 하자.

우리는 ≪교원을 구타한 야만적인 경찰을 엄벌에 처하라!≫, ≪교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자!≫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현정부 건물앞에 밀려가서 악덕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현정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을 적당히 구슬려서 이 사건을 얼렁뚱땅해 넘기려고 하였다. 투쟁은 실패하였다.

우리는 힘으로 폭행경찰을 징벌할 것을 결심하였다.

어느 날 밤 그 경찰이 극장으로 간다는 통보가 나한테 날아왔다. 경찰을 혼내기에는 아주 알맞춤한 기회였다. 그런데 경찰 놈은 때려준 다음 그놈들이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극장 밖으로 몸을 빼려면 무대 위에 걸려 있는 가스등을 처리해야 했다. 누가 이 가스등을 끌 수 있는가? 모두 이 하나의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듭할 때 문득 장울화가 자진하여 이 임무를 맡아 나섰다. 그날밤 10여 명의 학생들은 극장에 가서 예정대로 거사에 착수하였다. 중간 휴식시간이 되자 장울화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나무 막대기로 가스등을 박살냈다. ≪때려라!≫하는 나의 외침소리와 함께 학생들은 경찰 놈이 꿇어앉아서 잘못을 빌 때까지 호되게 그놈을 족치고 감쪽같이 빼소니를 쳤다.

그날 밤 장울화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에게 말했다.

≪생각할수록 기분이 흡족하구나. 부정의를 힘으로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흐뭇하고 통쾌한 일인가 하는 걸 난 오늘밤에 처음으로 깨달았어.≫

≪그런 놈팽이들은 용서하지 말아야 해. 그런 놈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해 주자 장울화는 문득 길가에 걸음을 멈추고 서서 어조를 바꾸어 심각하게 물었다.

≪성주, 소학교를 졸업한 다음 어느 학교로 가겠니?≫

그것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나는 소학 이후의 자신의 전도에 대해서는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저 심상하게 대답했다.

≪글쎄, 사정이 허락하면 중학교에 가겠는데 나야 어디 중학교까지 갈 처지가 됐니, 울화, 그럼 넌 어느 학교로 가겠니?≫

≪난 심양 가서 외삼촌이 다니던 사범학교를 다니고 싶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권고하신다. 네가 만일 반대하지 않는다면 난 널 심양으로 데리고 갈 테야. 거기 가서 한 학교를 다니잔 말이야. 사범학교를 마치면 대학에도 같이 가구…≫

≪아청이,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일인가?≫

≪왜? 학비 때문에? 학비 걱정은 안해도 돼. 내가 있지 않니.≫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도 공부만 하고 있을 생각은 없다. 망국노가 됐는데 대학이 다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립투쟁에 나서겠단 말이지? 네가 혁명을 하러 떠날 때는 나도 너를 따라 떠나겠다.≫

≪심양은 어떡하고? 사범학교에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건 네가 동행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구. 네가 동행하지 않는 심양행이란 있을 수 없어. 난 말이지 일평생 네 곁에 있고 싶어. 네가 상급학교에 가면 나도 상급학교에 가고, 네가 공산당이 되면 나도 공산당이 되구…≫

그날 밤 장울화가 말하고자 한 요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장울화의 그 말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나는 장울화의 손을 꼭 잡고 귓속말로 말했다.

≪아청이, 고맙다. 그런데 공산당이 뭔지 알기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하니?≫

≪왜 몰라. 이대교나 진독수가 하는 그런 일이겠지.≫

≪공산당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해. 너 그런 각오가 돼 있니?≫

≪그런 건 겁나지 않아. 너하구만 같이 있는다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아.≫

장울화의 이 불의적인 선언은 나를 몹시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가 무슨 충동을 받고 그런 선언을 하는지 나로서는 가늠이 잘 가지 않았다. 명백한 것은 그가 그날 밤 내앞에서 한 말들이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서 무르익혀온 이상과 신념의 고백이라는 것이다. 장울화는 나의 이상을 자기의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며 나의 신념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는 주의를 결정한 다음 그 주의에 맞는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선택한 다음 그 친구가 지향하는 주의를 선택하였다. 장래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의미심장했다. 장울화의 이런 입장은 나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우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장울화는 나를 진심으로 동경하고 따랐다.

내가 화성의숙으로 떠날 때 그가 울면서 나를 따라가겠다고까지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장울화의 작별은 나에게 있어서도 견디기 어려웠다. 장울화가 이별을 앞두고 너무도 애달파하므로 나는 이틀 밤이나 한 침상에서 밤을 밝히며 그를 설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룻밤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은 장울화네 집에서 서로의 가슴을 달랬다. 내가 화전으로 출발하던 날도 그는 송화강 나루터에까지 나와 울면서 나를 바래주었다.

그날 그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성주, 신분의 차이라는 게 주무랑마봉보다 더 높을까?≫

≪신분의 차이 같은 건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어. 너의 아버지가 네 요구를 허락하지 않은 건 아직 객지생활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야.≫

≪만일 신분의 차이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구속을 한다면 난 너와의 우정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뱅이가 될 결심이 돼 있어. 하여튼 성주, 네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건 난 어느 때든지 네 곁으로 찾아간다는 걸 잊지 말고 있어라.≫

장울화는 그 후 이 결심을 그대로 실행하였다. 내가 길림에서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권총을 훔쳐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가족들 몰래 슬그머니 나를 찾아왔다.

아닌 밤중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장울화를 보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성주, 난 마침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너의 곁으로 찾아왔다. 자 이것이 내 결심이다!≫

장울화는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는 깨고소해 하는 표정을 머리를 잔뜩 뒤로 제끼고 천장의 한 점을 뚫어지게 응시하였다.

≪너의 아버지가 용케 너를 놔주었구나.≫

≪놔준다는 게 다 뭐야. 당장 심양으로 떠나라는 걸 뿌이치고 몰래 빠져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겠니?≫

≪대소동이 벌어졌을 거야. 그러나 그까짓 거 괜찮아. 찾다가 없으면 누구든지 길림으로 오겠지. 십중팔구는 너한테 와 있을 거라구 짐작할테니까.≫

장울화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 장울화가 길림에 나타난 며칠 후 그의 형 장울중이 가병을 데리고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동생의 행적을 수소문하였던 것이다. 동

생이 나한테 와 있다는 말을 듣자 그는 오금을 꺾으면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있다니 됐다. 그런 걸 우린 토비한테 붙잡혀간 줄로만 알았구나.≫

≪울중 형님, 우리가 옆에서 잘 돌보아 줄 테니 아청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장울화은 ≪성주, 나는 마음놓고 가겠다. 울화는 너한테 맡긴다.≫라고 하였다. 그는 장울화에게서 권총도 회수하지 않은 채 가병들을 데리고 무송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후 나는 장울화를 오가자와 고유수 지방에 파견하였다. 그는 이 고장들에서 1년쯤 교편을 잡다가 부모들의 소원대로 상급하교 공부까지 다 끝낸 다음 다시 우리 대오에 와서 혁명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나의 권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나와 장울화의 우정은 상봉과 이별이라는 두 개의 극점의 부단한 교차속에서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 깊어갔다.

나와 장울화의 상봉을 마련해 준 그 동굴이 지금도 무송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ㄱ≫자 형으로 된 이 동굴의 길이는 15미터 가량 되었는데 비밀접선 장소로서는 이보다 더 이상적인 처소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자연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장울화는 나를 만나자 막 울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나도 사진현상약 냄새가 푹 배인 그의 어깨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성주, 어디 갔다 이제야 오오? 그새 왜 한 번도 무송에 나타나지 않았나 말이오? 내가 성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오?≫

장울화의 첫 인사였다.

≪낸들 왜 울화를 보고 싶지 않았겠소. 나도 무송에 오고 싶었소. 무송에 와서 울화를 만나고 싶었소.≫

≪그럼 편지라도 할 것이지. 나는 성주 주소를 모르지만 성주야 내 주소를 알지 않소.≫

≪울화, 용서해 주오. 우리가 살던 간도의 유격구에는 우정국이라는 것도 없었소.≫

≪우정국이 없다니? 아니, 세상에 그런 고장도 다 있소?≫

나는 지나간 4년동안 우리가 겪어온 고초들에 대하여 낱낱이 말해 주었다.

장울화는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손등으로 계속 눈물을 훔쳤다.

≪울화, 왜 그냥 울기만 하오? 혹시 울화한테 불길한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니오?≫

나는 말을 중도반단하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장울화는 눈물을 훔치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였다.

≪성주가 걸어온 지난날이 너무도 비참해서 그러는 거요. 성주가 그런 고초를 겪을 때 그 곁에 내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소.≫

≪아니요, 울화 항상 내 곁에 있었소.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고무해 주었소.≫

≪고맙소. 성주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오. 사람들이 성주를 장군이라고, 사령관이라고 부르던데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겠소.≫

장울화가 느닷없이 사령관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는 바람에 나는 바삐 손을 내저었다.

≪울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령관이라고 불러도 울화만은 제발 성주라고 불러 주오. 나도 울화를 선생이 아니라 울화라고 부르겠소.

성주, 울화! … 이게 얼마나 듣기가 좋아.

그런데 울화, 울화는 그 동안 어떻게 지냈소?≫

장울화는 늙은이처럼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나서 씁쓸하게 웃었다.

≪성주의 과거사를 듣고 나니 내 인생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생각이 나

지도 않소. 내가 도대체 그 닭의 둥우리 같은 무송바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소. 화성의숙 시절의 성주 동창생인 강병선이하구 둘이서 ≪형제서국≫과 ≪형제사진관≫을 꾸리구 그걸 거점으로 삼아서 공청조직을 지도한 것밖에 없소.≫

그는 공청조직의 활동정형과 무송지방 반일단체들과 움직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다.

나는 그 동안 장울화가 쌓아올린 사업성과를 고무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공청조직을 모체로 하여 무송지구에 당조직을 내올 데 대한 새로운 과업을 주었다.

장울화는 그 과업을 받고 몹시 난처해하였다.

≪성주, 내 능력으로 그처럼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나야 지하사업경험도 미숙하지 않아.≫

≪4년동안 공청조직을 지도해 왔으면 그것도 큰 경험이라구 봐야지. 내가 김산호정치위원을 자주 보낼 테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의 방조를 받으라구.≫

우리의 담화는 3시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담화가 사업상의 문제로부터 다시 사생활 문제에로 넘어갔을 때 장울화가 불쑥 내 팔굽을 움켜잡고 우리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마지못해 어머니가 세상을 하직한 소식, 철주가 전사한 소식, 영주가 남의 집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 아동단생활을 하고 있는 소식을 차례로 전해 주었다. 그것은 사실 화제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사연들이었다. 장울화의 성미를 잘 알고 있는 나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침통한 기분에 잠길 것 같아 은근히 두려워하였다. 그러면 내 자신의 상처에도 피가 흘러내릴 것 같았다. 나는 4년만에 이루어진 우리의 해후에 비극적인 색채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일은 내가 우려하던 그대로 번져갔다. 장울화는 우리 집 소식을 듣자 한참 동안 또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니 성주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구만. 영주도 불쌍해. 내가 그 애를 위해 해줄 만한 일이 없을까? 나한테 그 애의 주소만이라도 알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수첩을 꺼내들고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손을 가볍게 내저었다.

≪울화, 그 애도 이젠 다 컸소. 그 나이이면 자수성가도 할 수 있지. 그 애에게 자선을 베풀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 좋겠소.≫

장울화는 내 말에 굽어들지 않고 그냥 완강하게 수첩을 펼쳐들고 있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대로 안도 김정룡의 집 주소를 적어 주었다. 장울화가 그렇게도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그가 안도의 영주 동생을 위해 큰 자선을 베풀었을 것이다.

묘령동굴에서의 상봉이 있은 후 우리는 다시 대영온천 마을에서 두 번째 상봉을 하였다. 대영의 앞산 골짜기에 우리 사령부가 20-30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가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장울화를 만나러 가곤 하였다. 장울화는 그때 탕욕을 한다는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대영에 며칠 동안 와 있었다. 우리 부대가 무송지구에 진출한 후부터 적들이 나의 연고자들과 친지들의 뒤를 밟으면서 감시를 악착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그도 우리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조심하였다.

나와 장울화는 온탕욕을 하면서도 많은 담화를 하였다. 그때의 담화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가 나의 권고대로 공청조직에서 단련된 핵심들로 당조직을 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일이다. 그때 벗의 얼굴에 아침 노을처럼 스며들던 행복한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장울화가 대영에 와 있는 동안 우리는 그가 추천하여 데려온 공청원 3명을 부대에 받아들였다. 자기가 손때에 묻히며 애지중지 키워낸 청년들이 혁명군의 군복을 입고 총을 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장울화의 입가에 비끼던 그 행복한 미소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 3명 중의 한 대원인 연비서는 교원 출신으로서 훗날 우리 부대가 백두산지구에 나가 활동할 때 밀영의 나무들에 구호를 많이 썼다. 그가 쓴 구호 나무들이 지금도 여러 밀영들에 남아 있을 것이다.

대영온천에서의 담화내용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특별히 인상 깊게 추억되는 것은 작별 전야의 마지막 대화였다. 장울화는 그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

≪성주, 난 성주를 볼 때마다 미안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하나 있소.≫

≪무슨 문제인데?≫

장울화가 얼굴에 수태를 머금고 나를 쳐다보는 바람에 나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혼의 덕으로 만 20살도 되기 전에 장가를 들어 벌써 네 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오. 성주가 부대를 이끌고 남전북정의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 때 난 집에서 결혼이나 하고 아이나 키우면서 호강스럽게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나중엔 별소릴 다하는구만. 장가를 가서 아이아버지가 되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그거야 축하를 받을 일이지.≫

≪그런데 나보다 한 살 위인 성주는 아직 미혼이 아닌가. 성주, 말해 보라구. 그냥 총각으로 있을 작정이오?≫

≪글쎄 난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결혼이 나의 관심사로 되자면 좀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할 것 같애.≫

≪그러다가는 때를 놓치겠소. 성주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내 무송에서 배우자를 한 명 물색해보지. 무송에서 못 고르면 심양, 천진, 장춘, 길림, 하얼빈을 다 뒤져서라도 세상이 깜짝 놀랄 경국지색을 골라내겠소.≫

≪그만두라구. 그런 경국지색이 뭐 산에 와서 껄껄한 통강냉이죽대접을 받겠다던가?≫

≪두고보라구. 내 이제 양귀비 같은 미인을 골라내지 않나.≫

장울화는 이런 농질을 한 다음 내 손을 크게 잡아 흔들고 나서 대영땅을 떠났다. 그가 그 말을 하면서 남기고 간 그 미소가 내 망막속에 지울 수 없는 형상으로 깊숙이 새겨졌다. 그것이 장울화가 나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미소였다.

나는 물론 그가 언명하고 간 것이 농담 절반, 진담 절반의 말이고 실현 불가능의 언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에서 장울화만이 지닐 수 있는 진실한 우정을 느꼈다. 장울화가 아니고야 나를 위해 그처럼 솔직하고 그처럼 순결하고 그처럼 열에 끓는 그런 약속을 하겠는가.

무송에 들어간 장울화는 온갖 재력과 심력을 다 동원하여 우리 부대에 대한 후원을 정열적으로 하였다. 그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솜, 신발, 양말, 내의, 약품, 식량, 사진기재들을 비롯한 막대한 양의 원호물자들이 우리 부대의 밀영으로 연속 흘러들어 무송지구에서의 혁명군이 활동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장울화의 지성이 담긴 3,000원의 거금으로 우리는 아동단원들과 주력부대 대원들에게 새 옷도 한 벌씩 해 입히고 여러 가지 후방물자도 해결하였다.

대영의 경찰분서장 당진동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양세봉과의 합작을 위하여 남만으로 갈 때에도 무송에서 이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었다. 우리가 다시 대영에 갔을 때 그는 밀사를 보내어 자기들에게 공개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협박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물자를 다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대영경찰분서장은 ≪협박장≫을 받은 다음부터 우리에게 돼지고기, 밀가루, 콩기름, 뜨개옷 같은 후방물자들을 여러 번 달구지에 실어 보내 주었다. 그 당시 경위중대가 대영경찰분서장이 보내 준 물자를 가지고 20일 가량 어렵지 않게 지냈다.

그 해 가을 장울화는 갑자기 헌병대에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갔다. 적들에게 그를 밀고한 것은 한때 백산청년동맹 무송현지회 회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나의 소학 시절의 동창생인 정학해였다. 그는 초기에 혁명바람을 피우면서 얼마간 돌아다니다가 변절하여 임강 헌병대의 조종을 받는 선무공작반에 들어갔다. 선무공작반이란 ≪귀순공작대≫의 이음동의어이다. 내가 부대를 이끌고 무송지방으로 진출한 후 적들은 우리의 행방을 찾느라고 변절자들을 여기저기에 파견하였다.

어느 날 정학해는 장울화를 찾아와 ≪내가 지금 **김일성**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가?≫고 하였다.

장울화는 ≪안다, 내가 얼마 전에 김성주를 만나보았다.≫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정학해가 과거 나의 지도를 받으면서 청년운동을 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그 후 장울화는 인차 경찰에 검거되였다. 사람을 호의적으로만 대하는데 버릇된 그는 지하조직의 운명을 걸머진 당소조의 책임자로서 너무나도 순진하고 무경각하였다. 사람에 대한 환상과 무경각성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오라줄에 묶인 몸이 되게 하였다. 작들은 장울화를 통하여 우리 사령부의 위치를 알아내어 무송지구 지하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아쥐려고 그에게 온갖 악형을 다 가하였다

고문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위치와 조직선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고 냉철하게 판단한 그는 자결을 결심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다만 며칠이라도 집에 가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장만정은 돈과 뇌물을 먹이면서 아들을 병보석으로 내놓게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적들은 장울화를 가석방시킨 다음 그와 내통하는 비밀조직선과 우리 부대의 공작선을 잡아쥐려고 밀정들을 보내어 주야로 그의 집을 감시하게 하였다.

장울화는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김일성**장군과 함께 항일투쟁에 끝까지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원통하다. 내 죽음으로 동지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김일성**장군의 신임과 우정에 보답하려고 하니 당신은 너무 슬퍼 말라.≫

그는 ≪적들이 특무를 파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부를 찾고 있다. 사령부를 빨리 옮기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다음 사진현상약으로 쓰는 승홍을 먹고 자결하였다. 이 비통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 음력으로 1937년 10월 2일이라고 한다. 그 당시의 장울화는 25살도 되지 않은 생신한 홍안이었다.

나의 친근한 벗이며 충실한 혁명전우인 국제주의 전사는 이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그는 나를 위하여,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위하여, 조중 양국 인민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포성이 우뢰치는 중화의 대지 위에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채색구름처럼 아름다운 모든 숙망을 뒤에 남기고 장렬하게 요절하였다. 그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 온 아들 장금천은 그때 네 살이었고 딸 장금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방금 출생한 때였다.

사람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보다 더 애석하고 원통한 일은 없다. 장울화가 비록 실수로 감옥행은 하였지만 사실 그는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 헌병대에 더 많은 돈과 뇌물을 먹이면 적들이 얼마든지 그의 ≪죄≫를 눈감아 줄 수도 있었고 볼기나 몇 개 치고 그를 관대하게 처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결의 길을 택하는 것으로써 인생의 다음 장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사람이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죽는다는 것도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천상만태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죽음 중에서도 자결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생을 과거보다 미래에 더 많이 둔 청년들의 자결은 비상한 결단과 독심을 요구한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를 단념하고 죽음의 나라로 가

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자결 가운데서 대부분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였다. 장울화와 같이 남을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한 실례는 흔치 않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희생 중에서도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희생이 다른 인간들의 희생보다 더 비장하고 장중한 의미를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노비첸코 내외

장울화의 최후에 대한 비보를 접한 나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였다. 내 몸 가까이에서 이 세상의 일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허무감과 가슴을 세차게 떠박질리운 것 같은 타박감 때문에 나의 온 넋은 천야만야의 미궁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슬프디슬픈 나날들에 내 가슴속에서 추도가의 구슬픈 선율은 몇 백 번이나 울렸던가.

나는 그가 우리 부대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청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가 만일 인민혁명군에 복무하였더라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미련이 무시로 치밀어 내 가슴을 알알하게 하였다.

입대청원을 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청원을 심의하고 그를 부대에 받아들였어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의 요구이기도 했다. 한 청년이 참군을 하겠다고 열렬하게 지망해 나서는데 그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 응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나는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1선에 서야 할 장울화를 2선에 세워 주었다. 내가 원칙을 떠나면서까지 장울화의 입대청원을 부결한 것은 장울화를 지나치게 사랑한 데 있었다. 부잣집에서 고생을 모르고 평탄하게 살아온 그가 산에 와서 온갖 시련에 부대끼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았다. 자기는 그런 고생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장울화는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여기에 바로 그에 대한 나의 편애가 있었다. 이것을 두고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한다하여도 나는 변명할 말이 없다.


체 게바라

지난날 신규식, 박영, 양림, 한위건, 장지락, 김성호, 정율성, 한악연 등 수천 수만에 달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이 중국혁명을 위해 몸바쳐 싸운 것처럼 수많은 중국의 아들딸들도 조선혁명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사랑에 국경이 없고 과학에 국경이 없는 것처럼 혁명에도 국경이 없다. 장울화와 노비첸코, 체 게바라, 베쑨의 실례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장울화와 체 게바라는 국제주의자의 세계적 전형이며 에스파냐인민전선운동을 지원한 세계 여러 나라 공산주의들의 지원과 중국인민지원군의 항미원조운동은 국제주의의 세계적 모범이다. 장울화의 이름은 그 모범 위에서 거성처럼 빛나고 있다.

오늘 장울화는 조선인민들속에서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있다. 우리 인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가 조선혁명앞에 세운 업적을 경건한 심정으로 추억하고 있다.

4. 혁명전우 장울화(2)


장울화의 자녀들과 함께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 계속되는가?

이것은 전령병 김정덕이 계관라자전투에서 전사한 직후 그이 딱친구였던 김봉석이 나에게 던진 물음이다. 김봉석은 빨치산 시절의 나의 전령병이였다. 김정덕이 전사한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고인을 잊지 못해 비분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때 그에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경우의 우정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추억속에 비껴드는 형태로 지속된다고 대답했었다. 그 실례로 나와 장울화의 우정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것은 체험에 기초한 내 심정 그대로의 고백이었다. 장울화가 서거한 지 몇 해가 지난 때였지만 나는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 꿈에도 그가 문득문득 나타나 생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와 우정을 나누곤 하였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났을 때의 심정이란 실로 이상야릇한 것이었다.

≪사령관 동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령병은 그때 분명 나의 대답에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어떤 심오한 훈계를 듣고 싶어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우정에 관한 문제가 나의 정신생활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나 그것은 두메산골의 보통 초부들도 생각할 수 있는 범상하고도 소박한 것이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이 생전에 남기고 간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때 내가 김봉석에게 한 대답은 이것뿐이었다.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 말은 초부들 뿐아니라 소학교 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한 이치였으나 김봉석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김정덕이 그에게 남긴 유지는 나라의 광복을 이룩할 때까지 사령관 동지를 잘 모셔 달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자신도 전사하였다.

고인의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최고의 의리로 된다는 것은 항일전쟁의 나날 나의 전우들이 다같이 품고 있던 공통된 견해였다.

≪쓰러진 혁명전우의 원쑤를 갚자!≫

≪중대장 동지의 유언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저 고지를 점령하자!≫

≪동지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부탁대로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자!≫

싸움터와 숙영지, 행군로들에서 자주 울린 이런 내용의 구호들에는 희생된 전우들의 유지를 지켜가려는 빨치산 투사들의 지향과 염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희생된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도 역시 혁명임무에 충실하는 것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간 혁명동지들의 유지를 지키고 그들이 생전에 우리에게 표시하여

준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고 혈전분투하였다.지금도 나는 이런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당과 인민이 우리에게 맡겨 준 혁명임무 수행에 투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도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국해방이라는 대사변을 분기점으로 하여 이 의리의 내용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맞게 바할 바 없이 풍부해졌다. 고인들의 유지를 잘 지키면 희생된 전우들앞에서 산 사람으로서의 우애를 다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국산천에 널려 있는 전우들의 유해도 조국으로 옮겨오고 싶어했고 역사의 수풀속에 파묻혀 있는 전우들의 업적도 후대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했다.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니 전우들의 동상도 세워 주고 싶어했다. 새로운 도시와 거리들이 생기던 거기에 전우들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했다.

희생된 전우들에 대한 동지적 의리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집중적으로 발양되었다. 우리는 조국에 개선하기 바쁘게 일군들을 파견하여 해외에 널려 있는 혁명가 유자녀들을 조국으로 데려왔다. 모래밭에서 금싸래기들을 주워모으듯이 한 아이, 한 아이 찾아내서는 만경대 혁명자유가족학원에서 공부시켰다. 국내에서 싸운 투사들의 자녀들도 그 학원에 데려다가 새 조선 건설의 역군으로 육성해 냈다.

1970년대에는 우리와 함께 싸우던 전우들의 모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 주기 위하여 대성산 주작봉에 혁명열사능을 건설하였다. 형제산 구역의 산머리 산등성이에는 제2의 혁명열사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국열사능이 건립되었다.

이 모든 시책과 조치들은 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의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하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결한 동지애와 변함없는 순정의 표시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세기 이상의 장구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살아 있는 혁명전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희생된 전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만민의 찬양을 받을 만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의 혁명가들이 창조한 전무후무한 인간관계의 역사, 동지애의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내 개인의 역사로 볼 때에는 장울화의 우정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나와 장울화 사이의 우정이 장울화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죽음이 우정을 마감짓는 종막으로 된다면 그런 우정을 어떻게 진실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그 우정은 그것만으로도 살아 있는 우정, 생명을 가지 우정으로 되는 것이다.

나와 장울화의 우정은 장울화가 서거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장울화는 세상을 하직하였지만 나는 한시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장울화가 남기고 간 그 인간적 향기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의 폐부에 더 깊숙이 젖어들었다. 항일전쟁이 조중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나의 추억속에 제일 선참으로 떠오른 수많은 중국의 동지들과 은인들 가운데서도 장울화는 단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나와 나의 일가를 도와주고 조선혁명을 성심성의로 후원해 준 수많은 중국의 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고해 볼 때의 심정이란 실로 감개무량한 것이었다. 좋은 세월이 오고보니 은인들에 대한 그리움도 더 간절해졌다.

나는 장울화를 회상할 때마다 그가 남기고 간 부모처자들을 생각하였다. 내가 그의 일가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뒤 동북지방에서 토지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이 실시되고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와 중국인민해방군 사이에 진행된 내전의 불길이 만주 전역을 휩쓸던 시기였다. 도처에서 악질지주들과 매판자본가들을 청산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는

때인데 장씨 가문 사람들도 혹시 독재대상으로 판정되어 부당한 제재를 받지나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웃 나라에서 동란이 일어나고 그 무엇인가를 타파하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장울화네 유가족들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장울화가 공로를 많이 세운 혁명열사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면에서 지하공작을 많이 한 사람인 것만큼 대중이 큰 부잣집 자식인 그를 반동파나 역적으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자로 인정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들과 만나게 될 날을 일구월심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새 나라 건설과 반미대전,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복잡한 과정들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찾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국사를 위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일에만 전심하였다.

내가 장울화네 일가의 소식을 처음으로 입수한 것은 1959년경이였다. 그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조직되어 만주행을 하였다.

나는 답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박영순단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박포리동무, 마안산밀영에서 아이들이 병마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천도 보내 주고 돈도 보내 주던 ≪형제사진관≫ 주인 장울화가 생각나오?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스무 해가 넘는데 난 아직 그의 부모처자들에게 문안인사조차 변변히 하지 못했소. 무송에 가거들랑 동무가 나 대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의 안부를 전해 주시오.≫

≪부탁을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무송에 가면 장울화네 유가족을 만나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박포리도 깊은 감회에 잠기는 듯 눈시울을 슴뻑거렸다.

≪장울화는 사실 국적은 다르지만 조선사람이나 다름없고 조선의 혁명가나 다름없소. 그가 남긴 업적은 중국의 공산주의운동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항일혁명 역사에서도 당당한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소. 만일 장울화의 유가족들이 무송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했다면 공안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어이 그들을 알아내야 하오.≫

≪알겠습니다. 온 중국을 다 뒤져서라도 그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답사단이 중국으로 떠나간 후부터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무송소식을 기다렸다. 전쟁의 상처를 완치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도 완성한 뒤여서 나에게는 희생된 옛 전우들에 대해서와 그들이 남기고 간 유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여유가 생겼다.

조국을 떠난 지 몇 달만에 박영순은 마침내 내가 그처럼 고대하던 무송소식을 전보로 보내 주었다. ≪오늘 무송에서 장울화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수상님의 인사를 책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부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인이 답사단에 사진자료 한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상님과 장울화의 공동투쟁을 반영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국에 돌아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훗날 박영순이 보고를 듣고 장만정이 1954년에 서거하였다는 것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장울화의 부인이 아들 장금천과 딸 장금록을 데리고 무송의 옛집에서 검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영순이 나의 명의로 되는 인사를 전해 주자, 장울화의 부인은 감격하여 어쩔 바를 몰라했다.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는데 **김일성**장군님의 우정은 어쩌면 그렇게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저의 남편을 잊지 않고 계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답례의 표시로 수십 년동안 간수해 오던 사진 한 장을 답사단 단장앞에 내

놓으면서 나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울화와 철주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였다.

그 사진은 그 해 가을 혁명전적지 답사단이 수집한 사적자료들과 함께 당시의 민족해방투쟁 박물관에 전시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장울화의 얼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나는 그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20여 년 전에 대영에서 헤어진 장울화가 죽지 않고 살아서 평양을 찾아온 것 같은 착각이 생길 정도로 그의 사진이 나에게 준 인상은 참으로 충격적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민들속에는 장울화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선전부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대주의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혁명전통을 잘 소개하지 않던 때여서 그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고 조선혁명을 위해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를 아는 사람도 별반 없었다. 장울화와 나와의 연고관계를 아는 인물들이란 몇 명의 투사들뿐이였다.

나는 수원들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고 얼마나 훌륭한 혁명가이며 얼마나 훌륭한 국제주의자인가를 자랑하고 싶었다. 20여 년 세월 내 마음속에 고이고 고인 연민의 샘, 추모의 샘이 마침내 분수가 되어 솟구쳐 올랐다.



장울화의 아내

≪동무들, 이 사람이 바로 무송 제1우급 소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 장울화입니다. 그는 나의 벗인 동시에 충실한 혁명전우였습니다. 그의 전우들 가운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장울화는 우리를 통하여 조선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교우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항일투쟁을 동정하고 지지성원한 위대한 국제주의전사입니다. 혁명을 하지 않아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였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생명까지 바쳐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진을 보니 장울화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할수록 장울화와 같은 은인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의 벗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 출판물들에는 장울화의 업적이 광범히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장울화는 나성고나 황계광과 같이 우리 인민이 다 아는 유명한 국제주의 열사로 되었다. 우리의 후대들은 김진과 마동희를 회상하듯이 무한한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장울화를 회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 답사단이 무송에 도착한 다음날 장울화의 부인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장군님과 너의 아버지는 소학교 시절부터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 두 분의 친교가 어찌나도 깊었던지 무송의 동창생들치고 그 우정을 부러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었다. 너의 아버지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것도 **김일성**장군님의 영향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할머니도 늘 너희들이 그이를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했단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네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신단다. 금천아, 너는 큰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감사를 드리고 문안인사를 올려야 한다.≫

어머니의 회고담을 20대의 혈기방장한 청년 장금천으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였다. 1959년의 장금천은 아버지가 사진현상약을 먹고 자결할 때보다 두 살이나 나이가 더 든 미청년이였다. 그는 가족 일동의 심정을 대변하여 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왔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며칠 밤 장울화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었다.

나와 장울화를 이어 주고 있던 우정의 피는 나의 문안인사와 장금천의 그 편지로

하여 다시금 하나의 동맥속에서 줄달음치게 된 셈이였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우정은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산 사람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장울화에 대한 나의 우정은 나와 그가 남기고 간 자식들과 빈번한 만남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장금천의 편지를 받은 그때로부터 나의 관심은 용모도 성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청년에게로 쏠렸다. 신통히도 필체는 아버지의 것과 유사하였다. 이왕이면 모습마저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가 아니라 지척에서 실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 꿈을 실현하자면 아직도 이러저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했고 내 자신이 꾸준한 열의와 인내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와 장울화의 유가족들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냉담한 저지선이 그어져 있다. 국경은 지난날의 의리나 친분관계에 이해를 표시할 수 없는 엄격한 차단물이다.

장금천의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1984년 5월 나는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을 역방하는 기회에 기차를 타고 중국 동북지방을 통과하는 행운을 가지게 되였다. 동북의 산야는 내가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곳이고 무장항일의 만고풍상을 헤쳐가던 곳이다. 나는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 산야에 많은 추억을 묻어두고 있었다. 생시에 못 가보는 안타까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꿈에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는 고장! 그래서 **김정일**조직비서도 노정을 도문→목단강→하얼빈→ 치치할→만주리→쏘련으로 잡아 주었는지 모른다.

나는 낯익은 산발들에서 오래 눈을 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붉은 피를 뿌리며 이 땅에 쓰러졌던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간 때였지만 불무지앞에서 쪽잠도 같이 들고 풀 죽도 같이 나누고 초연에 살도 같이 그슬리던 옛 전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차창 밖에서 시선을 좀처럼 돌릴 수 없었다.

우리를 태운 특별열차가 도문을 떠나 돈화 쪽으로 한참 달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무송에 있는 장울화의 처자들 생각이 나서 수원들을 불렀다.

≪이곳은 내가 오래 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이였소. 시간이 있으면 빨치산 시절의 전우들과 친지들도 만나보고 전우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싸움터에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오. 여기서 몇백 리밖에 안되는 무송땅에서 장울화네 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오. 그들에게 기념으로 선물이라도 보내 주었으면 좋겠소.≫

며칠 후 나의 이름으로 된 선물을 중국의 관계부문의 일군들이 장울화의 집에 전해 주었다.

유럽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온 나는 장금천이가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그를 평양에 초청하였다. 그리고 호요방총서기에게 장금천의 우리 나라 방문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985년 4월 장금천은 마침내 동생 장금록과 맏아들 장기를 데리고 역사적인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다. 일만초목에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만화방창한 봄날 나는 홍부대초대소에서 무송의 귀빈들을 만났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금천과 장금록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크나큰 격정에 잠겨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닮은 장금천과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장금록, 그리고 량친의 두 얼굴에서 좋은 세부들을 이것저것 따다가 모방한 것 같은 장기! 그들이 부모들의 생김새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쁜 일이겠지만 나를 위해서도 만족스러운 일이였다. 이미 고인들이 된 장울화 부부가 소생하여 내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조차 들었다. 나는 그들의 일거일동에서 장울화다운 면모를 발견해 내려고 시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묘령과 대영에서 장울화를 만났을 때처럼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한아름에 그러

안왔다.

≪너희들을 환영한다.!≫

나는 첫 인사를 중국말로 하였다. 수십 성상의 세파를 겪는 과정에 나의 중국말 밑천에도 적지 않은 공백이 생긴 때였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너희들을 환영한다.≫는 중국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국가수반이 외교석상에서 다른 나라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은 관례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관례를 무시해 버렸다. 장금천일행은 외교를 하려고 나를 찾아온 손님들이 아니였고 나도 외교를 하려고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아니였다. 전우의 자손들을 만나는데 외교는 해서 무엇하며 관계를 따라서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날 그들을 위해 마련한 오찬석상에서 축배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역시 관례에 없는 일이였다.

≪우리는 한 집안식구인데 축배사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 그저 여기에 앉은 사람들의 건강과 중조친선을 위해 잔을 찧자!≫

내가 축배사 대신 이런 말을 하자 장금천도 기뻐하였다.

장금천은 아버지처럼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나는 그에게 술을 많이 권하지 않았다. 우리는 도수가 높지 않은 들쭉술을 석 잔씩만 마셨다. 나는 미테랑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들쭉술을 권했었다. 왜정 때에는 일본천황만 마신다고 하던 유명한 술이다. 석 잔이라는 그 수량속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1932년 6월 무송현 십자거리 북쪽의 ≪동소과≫라는 양주공장에서 나와 장울화가 작별 담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석 잔의 술을 마셨다.

무송의 귀빈들을 위한 환영연은 3시간 공안이나 진행되었다. 격식과 관례를 벗어난 이날의 오찬 분위기는 참말로 가족적인 것이였다. 우리는 정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의 화제 가운데서 중심을 이룬 것은 의리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우리 일가에 대한 장만정과 장울화의 의리를 두고 무송시절에 체험한 과거사를 술회하였고 손님들은 나의 의리를 두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너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너의 아버지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도와주었다.≫

나는 한마디로 장씨 가문의 공적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내가 그날 장만정과 장울화의 의리를 두고 특별히 많은 말을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비롯한 장울화의 자손들도 대대손손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참된 인간이 되고 절개가 강한 혁명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인간의 도리는 봉건적인 도덕에서 말하는 군신과 부자지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벗과 동지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붕우유신이란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성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덕과 의리에 기초하는 덕치주의를 선양하여 인자무적이라고 하였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는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느니라고 하였다. 이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며 현대 생활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우리는 삼강오륜을 덮어놓고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것을 공산주의이념에 인위적으로 대치시키고 그 도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라를 섬기고 받드는 신하의 도리가 무엇이 나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효도가 어찌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도덕관념이 봉건적인 국가사회제도를 합리화하고 인민들을 무저항과 맹목적인 굴종에로 내모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인간 본연의 도덕적 기초를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원리적 측면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장울화와 나와의 사이는 군신의 관계도 아니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아니였다. 그가 목숨을 바쳐 나를 보호해 준 것은 삼강의 군신유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갖 혁명동지에 불과한 나와 혁명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삼강의 요구와는 다른 최대의 공산주의적 의리를 발휘한 것이다. 장울화의 업적이 그토록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이 의리의 순결성과 숭고성에 있었다.

그때 장금천일행은 무송사람들과 가문을 대표하여 나에게 ≪두 마리의 용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라는 제명이 새겨져 있는 나무장식으로 된 시계와 한 폭의 중국화 ≪다수도≫를 선물하였다.

한 농가에서 아이가 큰 장수복숭아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쥐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였는데 장금천의 해석에 의하면 나의 건강과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나는 답례로 나의 이름이 새겨진 금시계를 장금천, 장금록, 장기의 팔목에 각각 하나씩 채워 주었다.

장금천은 그때 평양에 와서 종합검진도 받고 삭아서 못쓰게 된 어금니 대신 금 틀니도 해 넣었다.

나와 장금천일행과의 두 번째 상봉은 국경도시 신의주초대소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귀국의 길에 오르는 그들을 위해 또다시 오찬을 마련하였고 3시간에 걸치는 담화를 하였다.

작별을 앞두고 내가 일행에게 각각 1대씩 사진기를 선물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나는 천사만량의 고려 끝에 그들에게 줄 기념품으로 사진기를 선택하였다. 무송에서 ≪형제사진관≫을 운영할 때 장울화는 우리에게 사진기도 1대 보내 주었다. 내가 마련한 사진기는 장울화의 그 선물에 보답이기도 했으며 사진업으로 혁명에 투신한 그의 모범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장금천도 아버지처럼 무송에서 사진업에 종사한다고 하였다.

나는 작별을 앞두고 그들에게 말했다.

≪난 내일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가게 된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일을 잘하고 우수한 공산당원이 되어라. 지위를 탐하지 말고 잘못을 범하지 말거라.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장금천은 1987년에도 처 왕봉란과 둘째 아들 장요, 손녀 장맹맹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나는 그들을 일곱 차례나 만나 주었다. 이것도 역시 기성관례나 규범을 초월하는 것이였다. 5살난 장맹맹은 나의 생일 75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 중에서 제일 연소한 벗이였다. 그는 장씨 가문의 다섯 번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4월 13일 밤 장맹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과 함께 초청에 따라 봉화예술극장에서 ≪4월의 봄 친선예술전≫에 참가한 세계 각국 예술단들의 연환공연을 관람하였다. 나는 그날 그 극장에서 장맹맹을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휴게실에서 나와 중간통로를 거쳐 객석으로 다가가던 나는 통로 옆의 맨 앞줄에 자리잡은 장금천부부와 인사를 나누다가 그를 덥석 끌어안고 공중으로 추켜올렸다. 장맹맹은 서먹서먹해하는 기색도 없이 내 볼에 볼을 비비면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극장 안에 모인 수천 명의 관중들은 우리에게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나와 장씨 일가의 인연을 알지 못하는 외국의 손님들도 이 장면의 목격자로 된 기쁨을 알고 오랫동안 만장이 떠나갈 듯한 축복의 박수를 보내 주었다.

그렇다. 맹맹아, 내가 너의 큰 증조할아버지이다. 이렇게 너를 안고 보니 너의 증조할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이는구나! 증조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하시는 분이였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30살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지 알 수 없

구나. 너는 5대째로 피어나는 조중친선의 꽃이다. 너의 고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나와 나의 아버지는 이 친선을 위해서 한 생을 바쳐왔다. 너는 그분들이 흘린 피와 노고 위에서 태어난 한 떨기의 꽃이다. 조중 두 나라의 친선을 위해서 온 세상이 보란 듯 곱게 피어라.

우렁찬 박수갈채속에 휘감긴 그 짤막한 순간 나를 사로잡은 생각은 이런 것이였다. 나는 장맹맹을 품에 꼭 그러안았다. 처녀애의 작은 심장은 내 심장 가까이에서 빠른 박동으로 고르롭게 뛰고 있었다. 그 힘차고 열정적인 박동이 내 가슴에 와 닿은 순간은 나와 장울화의 우정이 5대째로 이어진 의미심장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장만정, 장울화, 장금천, 장기, 장맹맹… 그렇다. 풍파 사나운 세월의 유수에도 불구하고 두 가문의 우의는 무수한 장강과 내를 건너 5대째로 이어진 것이였다. 두 가문의 우정인 동시에 조중 두 나라, 두 인민의 친선인 것이다. 그러기에 장금천도 훗날 이 친선을 가리켜 ≪흘러온 옛정≫이라는 말로 명명하지 않았던가.



장울화와
철주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

나와 나의 품에 안겨 있는 장맹맹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때 조중친선이 천추만대를 두고 영구불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날 나는 장울화와 동생 철주가 찍은 사진에 기념으로 나의 이름을 써주었다. 금천이는 그것을 자기 집의 가보로 정히 간수하겠다고 하였다.

장금천 일행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는 그들에게 전용비행기와 특별열차를 내주고 많은 봉사 성원들도 붙여 주었다. 그들은 장울화의 후손들로서 국빈으로서의 응당한 대우를 받은 셈이었다.

1992년 4월 장울화의 자제들은 나의 생일 80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또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세 번째로 되는 그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었다. 장금천 부부와 장기부부, 장유, 장맹맹,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장금록과 그의 남편 악옥빈, 딸 악지운, 아들 악지상 등 12명에 달하는 일행이 평양에 모였다. 방문횟수가 잦아질수록 나의 장울화의 후손들 사이의 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열렬해졌다.

장금천은 세 번째 방문기념으로 나에게 자기가 손수 집필한 장편수기 ≪흘러온 옛정≫을 선물하였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와 장만정의 교분으로부터 시작된 두 가정의 우의에 대하여 보태지도 가공하지도 않고 소박하게 서술한 책이었다. 필치는 비록 소박하였으나 글줄들에 넘치는 우애의 정, 친선의 정은 참으로 호방하고 유창한 것이었다. 그 책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놓았다. 내가 글을 잘 썼다고 칭찬하자 장금천은 어린애처럼 얼굴을 붉히며 큰아버님께서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그 뜨거운 온정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나는 답례로 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중문판 1, 2권을 그들에게 선물하였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목숨으로 나를 보호하여 준 사람은 장울화와 노비첸코 두 사람이다. 물론 노비첸코는 살아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희생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래 생각할 새도 없이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이것은 장금천 일행이 세 번째로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이다.

그 말은 듣고 장금천과 장금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공적보다 노비첸코의 공적이 몇 배나 더 큰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아니였더라면 어쩔 뻔했는가고 진심으로 말하였다.

≪나의 생애에는 나를 위해 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순간에 나를 도와 나선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들이 많다. 지금 너희들과 함께 다니는 손원태선생의 아버지 손정도목사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다보고 언제나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관념론이 아니다. 인민을 위하여 한 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디서나 인민이 도와 나서게 되어 있다. 이것은 진리이고 변증법이다.≫

나는 그들이 아버지처럼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 생을 바치는 훌륭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해 주었다.

장금록은 나에게 자기가 손수 뜬 자지색 모세타를 선물하였다. 내가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것을 가져오면 국제친선전람관 같은 데 소장하고 쓰지 않을 것 같아 몸 가까이에 두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생각이 깊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받았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 자리에서 세타를 입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장금천은 그때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서거 55돌을 계기로 묘비를 새로 해 세우려고 하는데 새길 비문을 하나 써 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는 나에게 그처럼 허물없는 청탁을 한 데 대하여 나는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가 나를 큰아버지로 받드는 것이 진심이고 진정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였다.

≪벌써 55돌이 된단 말이지. 너의 아버지가 돌아간 것이 음력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숙연한 생각에 잠겨 1937년의 그 음산한 가을 회상하였다.

≪그렇습니다. 큰아버님, 1937년 음력 10월 2일입니다. 양력으로는 올해 10월 27일입니다.≫

≪그럴 것이 없겠다. 너희들이 세우는 묘비에다 글을 써 줄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하나 세워 주겠다. 어떻니?≫

그 돌발적인 제의에 장금천과 장금록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큰 요구를 나에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자기 집안의 가장처럼 여기고 속생각을 허물없이 비쳤던 것이었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기념비문제를 화제에 올리는 바람에 당황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금천은 황황히 말하였다.

≪그렇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아버님께 폐를 끼쳐서야 안되지요. 그저 글만 써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묘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긴 하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쓴 글을 세긴 기념비를 여기에서 마련해 놓고 우리 사람들을 시켜 들어보내 줄 터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세우기 위한 준비나 하도록 하여라. 언제쯤 하면 좋겠니?≫

≪참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바쁘실 텐데 또 마음을 쓰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외람된 청을 드렸는가 봅니다.…≫

장금천과 장금록은 몸둘 바를 몰라 하였다.

≪기념비를 준비하는 것은 오래 걸릴 것이 없다. 그러나 이왕지사 기념비를 세울 바 치고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즈음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금천과 그 일행은 나의 제의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그들은 무송에 돌아가면 기념비 제막 준비를 다그치고 중국의 해당기관에도 알리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옛 혁명전우인 장울화의 묘소에 나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세워 주게 되었다.

우리 나라 당역사 연구소 일군들이 기념비를 평양으로부터 무송까지 날라갔다.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는 임강교두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대표들을 열렬히 맞이하였고 10월 27일에는 무송시내에 있는 장울화의 묘지에서 기념비 건립 행사를 성대히 치르도록 해 주었다. 중국의 방송보도기관들에서는 큰 의의를 부여하여 그 행사를 널리 보도하였다.

≪장울화열사의 혁명업적은 조중인민의 친선의 빛나는 상징이다. 열사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김일성 1992년 10월 27일≫



무송에 세운 장울화의 열사기념비

이것은 나의 자필로 된 그 기념비의 전문이다.

우리 대표들이 평양에 돌아온 다음 나는 기념비 건립행사를 촬영한 녹화물을 보고 그 성대함에 놀랐다. 그것은 조중인민과 중국인민, 조선의 투사들과 중국의 투사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친선과 의리의 산 화폭이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해왔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 장씨 가문의 3세, 4세, 5세들과의 나의 친교, 무송에서 진행된 기념비 건립 행사는 이 대답의 타당성을 힘있게 입증해 주고 있다.

산 사람은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을 때라야 그 우정이 공고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으로 될 수 있다. 만일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정은 사멸을 면치 못한다. 죽은 사람을 자주 추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소개하며 그들이 남기고 간 후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남긴 유지를 잘 지키는 것이 선대들과 선열들, 먼저 간 혁명동지들에 대한 산 사람들의 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리가 없었다면 역사와 전통의 진정한 계승이 있을 수 없다.

기념비까지 보내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런 기념비를 수천 수만 개 세운들 나를 위해 한목숨을 바친 장울화의 그 은혜야 어떻게 다 갚겠는가.

지금 장울화의 손자 장유와 외손녀 악지운은 부모들의 소망대로 평양 국제관계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장울화가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그 애들의 숙소를 방문하곤 한다. 분과 초를 쪼개어 쓰는 국가주석의 긴장된 일과에서 외국유학생들과의 사업을 위한 시간을 짜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보좌관들은 장울화의 후손들을 위해 바칠 주석의 사업시간을 아낌없이 짜내고 있다. 그 애들을 위해 바치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

장유와 악지운이 유창한 조선말을 나에게 설 인사를 할 때 나는 흐뭇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 애들의 조선말 솜씨가 대단하였다. 나는 그 애들이 하루빨리 조선말에 능숙해지고 조선음식에 익숙해지며 조선사람들에게 친숙해지기를 바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의 정국은 매우 준엄하고 복잡하나 나와 장울화일가 사이에 흐르는 옛정은 변함이 없다.

나는 오래 전부터 무송을 방문하고 싶은 심정을 표시해왔다. 지금도 그 심정은 변함이 없다. 무송에 가서 남전자에 있는 장울화의 묘소를 찾고 싶으나 그것이 한갓 소망으로만 남아 있을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 소망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꿈에라도 옛 전우의 곁으로 찾아가고 싶다.

5. 조국광복회



조국광복회 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새 사단의 탄생으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더욱 강화발전된 것으로 하여 우리의 앞길에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새 사단의 출현은 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며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군사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었으며 카륜회의 이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전개해 온 통일전선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남호두회의 이후 시기부터 우리의 통일전선운동은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조직을 위한 활동에로 집중되었다. 하나의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고 그 산하에 광범한 반일애국역량을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내외 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주장해 온 사상이었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견지해 온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

민족대단결의 통일전선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

세력과 반일애국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바쳐왔고 중국 땅에서 투쟁하는 조건에 맞게 중국의 광범한 반일역량, 공산주의들과의 공동투쟁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 우리가 쌓아올린 적지 않은 성과와 경험은 통일전선운동의 폭넓은 발전을 위하여 값있는 밑거름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런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통일전선운동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여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핵심과 주체적 역량을 빨리 키워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시도는 1930년대 이전 시기에도 있었다.

조선의 근대역사에서 주의와 주장을 초월하는 민족의 대동단결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기 이후부터였다. 그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 무대에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일제의 폭정과 수탈이 강화될 수록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던 선각자들은 애국역량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을 모색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진영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신간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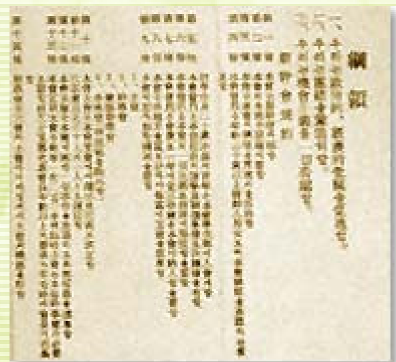
민족해방과 민족자주권의 부활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진영 지도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1927년 2월에 서울에서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통일전선조직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당대의 애국인사들과 사가들이 신간회를 가리켜 민족단일당이라고도 부를 만큼 이 단체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신뢰는 컸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세력의 반목대립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대중은 환호를 올렸다.

주의주장의 차이로 하여 사이가 벌어졌던 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운동자들이 때늦게나마 통일단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일전선기관을 내온 것은 민중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하나의 큰 경사였다.

우리 나라 민족협동전선의 첫 산아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는 그 취지와 목적이 애국적이고 반일적이였다.

민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양대세력의 공동전선이 실현됨으로써 발족한 순간부터 전민족을 대표하는 거족적인 유일조직으로 되었다. 이 단체의 창립취지는 그 발기인들이 ≪고목신간≫이란 뜻에서 신간회하고 한 명칭 자체에 잘 반영되어 있다. ≪고목신간≫이란 오랜 나무에서 새 줄기가 자라난다는 뜻이다.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간회는 새로운 기초 위에서의 민족역량의 총집결을 지향하였다.

이상재, 홍명희, 허헌과 같이 민중의 인망이 높은 진보적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발기되고 추진되고 운영된 신간회운동은 민족의 정치적 ,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 강령의 내용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였으며 회원들의 직업별 구성도 다양하고 광폭적이였다. 신간회에는 노동자, 농민, 여관업자, 사진업자, 기자, 상업가, 의사, 회사원, 교원,


신간회 강령과 규약

대서업자, 목축업자, 인쇄업자, 어업자, 운수업자, 직공, 재봉공, 학생, 변호사, 저술가, 은행원, 교역자 등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3만 7,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좌우합작으로 민족의 총력을 하나로 집결시키려고 한 그 훌륭한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1931년 5월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신간회의 해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공산주의운동자들은 그 해산의 원인을 민족주의자들에게서 찾으려 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였다. 한때 일부 역사가들은 신간회가 해산된 근본 적인 원인을 상층의 분열과 개량주의적 경향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이 조직의 애국적 성격과 민족사적 의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였다.


신간회 회의 모습

나는 그런 허무주의적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해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놀음을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신간회 상층에 개량주의자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여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되며 그 민족사적 의의를 영으로 만들어도 안된다.

신간회가 해산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조선민족의 반일항쟁역량이 하나로 단합되는 것을 두려워한 일제가 그 내부에 쐐기를 박아 분열을 꾀하고 개량주의적 상층을 매수한 데 있었다. 적들의 암해책동과 파괴공작을 물리치고 신간회를 능숙하게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만한 중심적인 지도역량이 없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해산 원인이였다.

신간회의 와해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은 우리는 애국적 민족역량의 통일을 우리가 주도해야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를 중요한 방침으로 제기하고 민족의 총력을 항일구국위업의 깃발 아래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 과정에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핵심도 키워내고 유익한 경험도 축적하였다.


프랑꼬반란군의 공습을 받고 있는 마드리드

남호두회의는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창립에 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나라 통일전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되였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인민전선운동이 대두하여 파시즘과 대결하고 있을 때였다.

독일나치스의 정권탈취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프랑스노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도 파시즘의 위협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반파쑈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대중이 강렬한 통일열망에 따라 사회당은 1934년 7월 공산당의 제기를 받아들여 반전, 반파쑈통일행동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당의 영향밑에 분리되어 있던 노동조합도 통합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노동과 자유와 평화의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추세는 이 전선을 중산계급들과의 통일에로까지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935년 6월말 사회당, 공산당의 연합에 소부르주아정당인 급진사회당이 가담함으로써 이른바 ≪인민집합≫이 이룩되었다. 7월 14일 파리에서는 수십만 명의 참가하에 인민전선의 대시위가 진행되게 되었다. 3당 수뇌자들인 모리스 토레즈와 레온 블륨, 달라지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위행진의 선두에 섰

다. 1936년 1월에는 3당을 중심으로 반전, 반파쑈 투쟁에 떨쳐나선 진보적 그룹의 통일에 기초한 인민전선강령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해 4-5월에 진행된 하원총선거에서 인민전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 사로내각은 총사직하고 레온 블륨을 수반을 하는 인민전선내각이 탄생하였다. 물론 인민전선정부는 대중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에스파냐인민전선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이른바 불간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인민전선도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에서의 노골적인 파쑈정권의 수립을 저지시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파쑈투쟁에서 하나의 유익한 경험으로 되었다.

국제공산당은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운동의 발전을 좋은 시사를 받고 전세계공산주의자들앞에 인민전선결성을 중요한 투쟁목표로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본주의의 즉시 타도를 목적한 세계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전쟁과 파쑈를 반대하는 운동을 당면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하나의 노선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2국제당계열의 여러 정당들은 국제당의 통일전선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프랑스, 에스파냐,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인민전선운동은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에스파니아에 도착한 세계 여러 나라 지원병들

1936년 2월 에스파니아에서의 아싸니아인민전선정부의 출현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에스파니아인민전선은 프랑코의 반란과 독일, 이탈리아의 군사적 간섭에 직면하여 곤경에 처하였다.

에스파니아인민전선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주도하에 추진된 이른바 불간섭정책이었다. 엄정중립과 무기금수를 결정한 부당한 불간섭정책은 결국 반란군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쏘련도 처음에는 불간섭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것이 인민전선정부에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태도를 바꾸어 인민전선정부에 비행기, 탱크 등을 보냈다. 에스파니아인민전선이 겪고 있던 곤경은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과 근로자대중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에서 숱한 지원병들이 에스파니아로 달려갔다. 이리하여 에스파니아는 파시즘세력과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간의 국제적 교전무대로 되었는데 그 교전은 작은 규모의 세계전쟁을 연상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결성하던 때를 전후하여 벌어졌던 국제적인 반파쑈운동 형편이었다. 우리는 이탈리아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이디오피아애국자들의 영웅적 항전에서도 커다란 고무를 받고 있었다

국제당은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재빨리 포착하고 각국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을 반전, 반파쑈 투쟁에로 묶어 세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혁명의 영도기관으로서의 명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반파쑈인민전선운동과 관련한 국제당과 역사적 공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파시즘은 새로운 적이 아니었다. 국제파시즘이 대두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의 대상이 달라진 것도 없었고 성격이 변화된 것도 없었다. 우리는 국제당이 반파쑈인민전선운동노선을 제기하기 전부터 우리 식의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을 제기


에스파니아 여성의용군들

해왔고 그 궤도를 따라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남호두회의 이후부터 시작되였다. 그전까지는 주로 내가 혼자서 광복회 창립을 두고 사색을 무르익혀왔을 뿐이다. 김산호, 최현, 박영순을 비롯한 몇몇 동무들이 이따금씩 필요한 조언을 주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대체로 그거야 사령관 동지가 좋을대로 하시지요 하는 식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돈화지방에 있는 옥수천부근의 한 산간부락에서 어떤 나이 많은 서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훌륭한 조언자가 되고 의논대상이 되어 주었다.


이동백

그 부락에 조선사람이 사는 집이 둘이 있었다. 나는 그 중 한 집에 들었다. 그때 화룡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어느 한 소부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 소부대 동무들은 나를 만나자 괴이한 사람을 달고 왔다고 보고하였다. 화룡이 어느 벽촌에서 만난 사람인데 소부대가 사령부를 찾아온다는 낌새를 알고 **김일성**장군을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를 뒤따라왔다는 것이었다. 정체불명의 사람을 사령부로 데려올 수 없다고 생각한 소부대 성원들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네들은 가라, 나는 나대로 갈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상호 남의 일에 간참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는 장바 한두 기장쯤 되는 거리를 두고 그냥 태연하게 소부대를 따라왔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만나기 전부터 나의 호기심을 끌더니 첫 상봉 좌석에서도 별스럽게 굴었다. 소부대 동무들은 사령관이라고 하면서 나를 소개하였으나 괴이한 손님은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기의 나이와 열성을 봐서라도 진짜 **김일성**장군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주인집 장작을 패 주다가 그를 맞아들였는데 나의 차림새가 아마도 그의 눈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나를 이리 훑어보고 저리 훑어보고 하다가 아무렴 **김** 장군이 그렇게 젊을 수 없고 장군되는 사람이 머슴처럼 장작을 팰 리도 없으며 막된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다고 하였다.

북만의 관지 부근에서 야숙할 때 불무지 보초를 선 신입 전령병이 조는 바람에 내 바지를 태운 적이 있었다. 헌 솜옷이었던 데다 기워입기까지 하였으니 사실 나의 옷주제가 허술하게 보였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그가 괴짜였다. 그는 호지명의 수염 같은 턱수염을 달고 있었다. 실제는 마흔네댓 살밖에 안되는 사람이었으나 나이보다는 겉늙어서 쉬나문 살이나 돼보였다.

그는 항간에서 떠도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하도 소문이 났길래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자고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내가 소문난 잔치 먹을 알이 없다고 대꾸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장군이 입은 옷만 봐도 노고가 짐작된다고 하였다.

심한 나이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우리는 대뜸 언어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첫 소개부터가 아주 괴이하고 호탕하였다.

≪저는 아무 것도 이룩해 놓은 것 없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우왕좌왕하기만 해온 기회주의자올시다.≫

나는 한평생 수천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초면에 자기를 기회주의자라고 서슴없이 소개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무한히 양심적인 사람만이 무한히 솔직한 법이다. 솔직성은 흰 눈처럼 깨끗한 양심의 반사이며 감춰내지 못하는 양심의 빛이다. 그는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로 솔직한 그 몇 마디의 말로 대뜸 나를 반하게 만들었다.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그 꾸밈없는 이야기에서 나는 도리어 그의 인격적 높이를 보았다.

우리는 미혼진으로 빨리 나가야 했던 것만큼 그 마을에서 지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섭섭해하지 않을 정도로 만나 주고 헤어질 작정이였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길을 떠나려 하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 대신 우리를 따라나섰다. **김** 장군을 만나고 보니 인차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같이 따라가며 이야기나 나누게 해 달라는 것이였다. 웬일인지 나도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와 함께 줄창 이야기를 하다나니 행군에서 지루한 줄을 몰랐다. 이야기에 얼마나 열중했던지 나는 대원들이 쉬고 싶어할 때 쉬우지 못하고 행군을 계속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김산호가 우리 곁에 다가와 좀 쉬다가 가야 하지 않느냐고 귀띔해 주곤 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당 역사에 조국광복회 발기인으로 기록된 ≪대통영감≫ 이동백이였다. ≪대통영감≫이란 이동백의 별명이였다.

함경남도 단천이 이조 말기의 참령이며 유명한 의병지도자이고 공산주의운동자인 이동휘의 고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적지 않지만 이동백의 고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한학 공부를 많이 하며 자라난 이동백의 성장에서 이동휘가 준 영향이 대단히 컸다는 것과 그 영향밑에서 ≪대통영감≫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행군도상의 담화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낸 지식이였다. 그가 소속된 투쟁단체는 군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군비단의 소재지는 장백지방이다.

군비단과 강진건의 이야기가 나오자 우리들 사이의 담화는 더욱 활기를 띠였다. 강진건에 대해서는 그도 나만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다. 이동백은 8도구와 임강 쪽에도 자주 가곤 했고 그때마다 강진건과 깊은 연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군비단에서의 그의 직무는 통신사무국장이였다.

그러나 경신년 대≪토벌≫바람이 장백 땅에 미치게 되자 그렇게 으리으리하던 군비단도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다. 실망한 이동백은 이동휘를 찾아 러시아로 들어갔다.

그는 치따에서 이동휘를 만났고 이어 고려공산당에도 들어갔다. 어젯날의 독립운동자가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운동자로 변해 버린 것이다. 그 전환과 함께 그는 곧 파쟁속에 휘말려 들어 갔다.

이동백에게서 고려공산당 소리가 나오자 나는 오가자 시절에 고려공산당 당증이라는 것을 구경하던 생각이 나서 변대우를 아는가고 물었다. 그는 자기와 변대우와는 일찍부



소탈하고 겸허하신 장군님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대통영감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터 막역지우였다고 하였다.

내가 오가자의 변대우한테서 고려공산당증을 구경하던 소리를 하자 이동백은 감자도장을 찍은 대표증도 구경했는가고 물었다. 그 소리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자 그는 감자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22년 11월 러시아원동의 엘프뉴진스크라는 곳에서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합동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대회에서 다수파가 되어야만 합당 후 당의 영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간주한 양파는 자파의 대표 수를 늘리기 위한 치열한 암투를 벌였다.


강진건

이르쿠츠크파는 감자도장까지 새겨 가지고 숱한 가짜 대표증을 만들어 대회에 엉터리 대표들을 참석시켰다. 상해파도 그만 못지않은 협잡행위를 하였다. 결국 대회는 옥신각신 끝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환멸을 느낀 변대우는 민족주의운동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품고 임강 쪽에 가버렸고 이동백은 이동휘의 파견을 받아 훈춘 쪽에 나왔다.

≪대통영감≫은 훈춘에서 교원생활을 하다가 1925년 봄에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가명을 가지고 조선공산당 창립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듬해의 6 · 10만세시위운동에도 참가하였다.

파벌들의 집결처였던 서울 체류는 이동백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새로운 파쟁의 회오리바람속에 말려들게 하였다. 처음에는 화요파에 끌려들었다가 다음에는 엠엘파에 뛰어드는 식으로 일인 양역, 일인 삼역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당의 영도권을 장악하려는 각파의 추악한 암투는 중앙위원이라는 사람까지 자루속에 넣어 가지고 와서 곤봉으로 때리고 목침으로 머리를 까는 따위의 추태들을 산생시켰는가 하면 반대파를 경찰에 밀고해서 잡아가두게 하는 통탄하여 마지않는 희비극도 연출하였다. 서울에 그냥 있다가는 언제 어느 골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쇠고랑을 차거나 곤봉에 머리가 깨질지 몰랐다. 이동백은 다시 북간도로 들어왔다.

돛도 키도 노도 다 없는 난파선마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떠미는 대로 우왕좌왕해왔던 이동백은 파쟁의 세계에 침을 뱉고 돌아서서 뭍에 단단히 눌러앉았다. 그는 용정에서 신문기자 노릇도 하면서 독립군운동도 공산당운동도 다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간도 대지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30년대의 항일운동은 이동백을 또다시 풍랑속에 떠밀어 넣었다. 화요파계열의 그 무슨 어정쩡한 무리에 끌려든 이동백은 화룡현 3구의 서기로 있다가 간도대≪토벌≫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후 영영 세상을 등지고 살리라는 결심을 품고 솔가하여 화룡의 깊은 벽지에 들어갔다. 거기서 서당 훈장질을 하며 지난 몇 해 동안 은둔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기회주의자가 아니구 뭐겠습니까? 서상파 하날 내놓구는 파벌이란 파벌에는 다 끼어본 알짜 기회주의자입지요.≫

이동백은 그 파란 많은 과거사에 종지부라도 찍듯이 대통에 써레기담배를 재워넣었다. 그는 담배를 지독하게 피웠다. 때로는 마상행군길에서도 대통을 꺼내 물었다가 애어린 전령병에의 핀잔을 받곤 하였다. 그럴 때면 노염을 탈 대신 ≪이 정신 봐라. 행군 때 담배를 피우면 멀리 있던 개들까지 불러온다던 걸 또 잊었군.≫하고 변명삼아 웅얼거기며 대통을 덧저고리 주머니에 집어넣곤 하였다. 그는 담배를 절대로 종이에 말아 피우는 법이 없었다. 꼭 대통으로만 피웠다. ≪대통 영감≫이란 별명도 그런 연유로 해서 생긴 것이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을 기회주의자라고는 생

각지 않습니다. 조선사회의 참다운 진로를 탐색하느라고 이리 기웃해 보고 저리 기웃해 본 데 지나지 않지요. 진리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당파에 관여하게 된 것은 결코 기회주의가 아닙니다.≫

나의 그 말에 이동백은 적이 놀랐다.

≪제가 실지로 여러 당파에 휘말려들었는데도 기회주의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은둔생활을 결심하고 화룡의 산간벽지에 몇 해 동안 들어박혀 있었다는 선생이 그 결심을 어기고 젊지도 않은 몸으로 불원천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기회주의자의 본심이 움직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속심을 그렇게 속속들이 꿰뚫어 들여다보시니 제 기꺼이 손을 들겠습니다. 제가 또 집을 떠나온 건 수십 년동안 못 찾은 ≪보물≫을 죽기 전에 기어이 찾아 쥐자는 짖궂은 욕망 때문입지요.≫

≪의로운 뜻을 품고 진리를 탐색하는 선생과 같은 분을 보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한때는 선생 같은 진리의 탐색자들과 의로운 운동객들이 우리 나라에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감옥에 잡혀가지 않았으면 변절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보니 지금은 정말 희소합니다. 선생이 살아 계신 것만도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대통 영감≫과의 흥미진진한 담화는 미혼진에 가 닿았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 나는 이동백에게 정이 들었다.

이동백도 또한 우리에게 정을 붙였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그런 이별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나이 많은 사람을 적과의 접전이 계속되는 멀고 위험한 행군길로 계속 동행시킬 수 없었다.

미혼진을 떠나기에 앞서 나는 이동백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재삼 권고하였다. 그는 대답 대신 부시럭거리며 덧저고리 안자락을 들추더니 네 겹으로 접은 종이 한 장을 펴서 내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국한문을 섞어서 쓴 입대청원서였다.

해가 서쪽에서 불쑥 떠올랐다 해도 그 순간처럼 우리를 놀래우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도대체 그 연세에 어떻게 우리들을 따라다니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오.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의 휘하에는 나보다 한 배반이나 더 나이 먹은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로는 부결할 조건이 못됩니다.≫

≪화룡 오지에서 눈이 새까매 기다릴 부인과 자식들은 누가 돌봐 줍니까?≫

≪정배도 가려다 못 가면 섭섭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구국대업에 한 몸을 다 바치고 싶어서 떠난 걸음인데 저더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다니요. 장군은 병중의 모친과 어린 형제분들을 돌봐 줄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나라 찾을 싸움길을 떠난 게 아니었지요?≫

무슨 말로도 ≪대통 영감≫을 설복해 낼 수 없었다. 내가 지고 말았다. 그의 입대를 기념하여 나는 두 해 동안 애용해 오던 권총을 그에게 주었다.

이동백은 입대가 결정되자 자기가 어째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곁에 남기로 결심하였는가를 신바람이 나서 역설하였다.

≪나를 장군 곁에 붙잡아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첫째는 물론 장군의 그 고명한 경륜이구, 둘째는 장군의 기운 바지와 미혼진열병환자들의 울음이었지요.… 격리상태의 열병 환자들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찾아가 돌봐 주는 걸 보고 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일신의 위험도 마다하고 아랫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 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다하는 거물들을 만나봤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조선혁명의 참된 주인, 조선의 운명을 책임적으로 맡아 안은 진짜배기 주인, 진

짜배기 지도자를 찾은 것, 이게 나를 여기 남게 한 근본 이유입니다. 탁상공론을 안하고 공리공담을 안하는 것, 장군은 이 우점만으로도 나와 같은 시골서생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선생을 붙잡은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물론 있지요. 그것은 장군의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사고방식과 혁명승리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입니다.≫

어느 날 행군의 휴식 참에 나와 ≪대통영감≫사이에는 민족통일전선체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 에스파니아, 중국 등에서는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 같은 정당들과 노동운동단체들이 있어 정당, 단체들의 연합으로 인민전선 결성이 가능하였지만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정당이나 합법단체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통일전선체조직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조국광복회
창립선언

나는 나에게 눈덩어리 두 개를 주면서 그걸 합쳐보라고 이르고 나자신은 작은 눈덩이를 눈위에 굴려 그 두 개의 눈덩이를 합친 것만한 눈덩이를 만들었다.

≪자 보십시오. 선생은 두 정당연합으로 한 덩이를 만들었고 나는 작은 구심력을 굴려 그보다 더 큰 덩이를 빚었습니다. 이래도 꼭 정당이 있어야만 통일전선체조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동백은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내 손의 눈덩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 참 오묘한 이치올시다. 그렇지만 눈덩이는 눈덩이고 정당이야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자연현상 가운데는 사회의 현상과 이치상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는 길림시절부터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고수해 온 통일전선정책과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역량을 결속시키는데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축적해 놓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통일전선이란 반드시 정당단체들의 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단체설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조가 됩니다. 군중이 있고 영도핵심만 있으면 능히 통일전선체를 내올 수 있습니다. 목적과 지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열 사람이건 백 사람이건 묶어 세워야 한다는 것이 통일전선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켜 왔습니다.≫

이동백은 뒷더수기를 툭툭 치며 ≪역시 교조가 문제이군.≫하고는 껄껄 소리를 내어 웃었다.

≪대통 영감≫은 우리 곁에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바로 장군 곁에 와서 인생 말년을 보람있게 지낼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존가치를 발견한 셈이지요. 자기가 이 세상에 아주 쓸모있는 인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인간은 행복한 인간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런 행복한 인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거리를 찾았기에 행복해졌다는 것입니까?≫

≪내가 찾아낸 일은 나폴레옹을 묻어다니던 다비드가 수행했던 일과 비슷한 것이지요. 다비드가 미술화폭에 옮겨놨던 일을 나는 나의 일기장에 옮기자는 것입니다. 나폴레용군대의 역사적 행적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역사적 행적을 말입니다.≫

이동백은 결의대로 매일 일기를 적었다. 한두 끼, 혹은 며칠씩 굶는 적은 있었어

도 그가 일기를 쓰지 않고 번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인민혁명군역사 저술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는 입대 후 사령부 비서처에서 사업하였으며 후에는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의 주필로 출판소 책임자사업을 겸해 보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문건들과 사진들을 수집해 뒀던지 비서처가 한 번씩 자리를 옮길 때에는 여라문 개나 되는 문서배낭들과 등사용구들을 옮겨 주기 위한 운반대로 여러 명의 전투원들을 그에게 배속시켜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언제인가 김주현이 그 숱한 짐짝들을 정리해서 절반쯤이라도 줄이라고 권고했다가 되게 면박을 당한 일이 있었다.

≪아니, 이 문서장들이 ≪민생단≫문서보따리 따위 같은 줄로 아는가. 자네가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안목은 넓지 못한 사람이야. 저 짐짝들은 나 같은 목숨 열백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야. 군사직급으로는 연대장이지만 이 짐짝앞에서는 졸병이나 같애. 국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나 해?≫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지휘관들은 ≪대통영감≫의 짐짝이 아무리 많아도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운반대를 고스란히 붙여 주곤 하였다.


김산호

그가 기록, 수집, 보관한 그 숱한 문서들과 일기들과 사진들이 소실되지만 않았더라면 오늘날 그것은 ≪대통 영감≫이 언명한 대로 나라의 만년재보가 되었을 것이다.

이동백이 어쩌다 오발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그가 나폴레옹을 자주 입에 올리곤 한 끝에 어느 한 경위대원이 그를 ≪나폴레옹 숭배자 영감≫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때마침 이동백은 분해소제를 마친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충이 같은 녀석, 내가 누구를 숭배하는가 하는 건 이 권총이 말해줄 게다.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동백은 만탄창이 된 권총을 쳐들고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 뜻하지 않았던 오발사고로 인하여 노모정자 숙영지에서는 비상소집 소동이 벌어졌다. 지휘관들은 경고책벌과 함께 한 달간의 무기휴대 금지 처분을 주어야겠다고 을러댔다. 내가 한 번만 용서하자고 하였으나 군율은 에누리가 없었다. 사고를 낸 권총은 김산호에게 회수당하였다.

보배 같은 ≪대통 영감≫이 우리 부대에 굴러든 것은 인복이 있는 나에게 차례진 큰 행운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실로 귀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와 우리를 도와 준 셈이 되었다.

100여 명에 달하는 ≪민생단≫ 혐의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사단이 편성되고 마안산 아동단원들의 생활처지가 개선된 다음부터 나는 모든 힘을 조국광복회 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에 집중시켰다. 비록 간고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오만가지 시름거리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원만하게 풀려서 모든 일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이동백은 김산호와 함께 이 사업에서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성실하고 빈틈없는 방조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그가 입대하자마자 곧 조국광복회 창립준비위원회 성원으로 망라시켰다. 그 준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원은 김산호와 이동백이었는데 김산호는 대외조직과 연락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주로 바깥에 나다니며 일을 보고 대내에서 준비사업을 주관하여 맡아본 것은 이동백이었다.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작성하는데서도 그는 나에게 많은 도움

을 주었다. 나는 그때 매 조항을 그와 토론도 하고 초고도 그가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동백은 자기의 문투가 고루한 데다가 나의 의도를 정확히 쪼아박을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사절하였다. 그래서 기초작성은 내가 하고 그가 보충하는 식으로 창립문건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다.

그와의 토의에서 가장 크게 의견 상치가 된 것은 강령의 첫 조항이었다. 강령의 첫 조항에 어떤 내용을 앉히는가 하는 것은 조국광복회가 어떠한 이념과 투쟁목적을 가진 어떠한 성격의 정치단체인가를 단마디로 규정짓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논의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국광복회규약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대로 2천만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강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짓부수고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자는 내용을 앉히자고 하자 이동백은 머리를 기웃하고 생각에 잠기더니 도리질을 하였다.

≪무산계급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으니 서운합니다. 강령 첫 조항에 공산주의 냄새가 없으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숱한 주의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 말은 계급적 성격도 모호하고 어쩐지 민족주의 냄새가 납니다.≫

훗날 백두산밀영에서 박달과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도 역시 조국광복회 강령 첫 조항에 대하여 이동백과 꼭 같은 논조의 말을 하였다.

확실히 그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이비 맑스주의적인 견해가 널리 오염되어 있던 시기였다.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도 공산주의는 민족적 이념과 상치되는 사상인 것처럼 여기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협소한 민족적 이념에서 벗어나 철저히 계급적 원칙과 국제주의적 입장을 고수해야만 노동계급과 전인류를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주되는 원인의 하나는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한 명제를 매우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데 기인된다.

맑스와 엥겔스는 일국사회주의혁명의 가능성이 채 성숙되지 못했던 역사적 시기에 살았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리라고 예언하였다. 노동계급의 전복대상인 각국 부르주아지가 민족적 이익의 옹호자로 자처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국 부르주아계급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간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세계적인 혁명위업은 망쳐질수 있었다.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부르주아적 지배하에 있는 모국이 결코 조국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수주의와 국제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 가운데서 반드시 국제주의, 사회주의 편에 서야 했다. 바로 이러한 견지로부터 맑스주의고전가들은 노동계급이 이른바 애국주의적인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였고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속에서 언제나 민족주의적 편견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옹호할 것을 가르쳤다. 맑스는 파리코뮌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코뮌참가자들이 반동의 소굴인 베르사이유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외적인 프러시아군이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 때 국내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애국주의에 배치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한데서 온 것이었다고 단언하였으며 레닌은 제2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조국방위≫의 구호밑에 제

가끔 자기 나라의 부르주아 편에 붙은 것을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변절로 낙인하였다.

자기 민족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개인적 치부를 증대시키려는 환장한 부르주아지들의 식민지 쟁탈전쟁에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고 도와나서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려면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것이 아니라 ≪전쟁반대≫의 기치를 들고 전쟁보이코트 운동을 벌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노작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친필원고

그러나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과 애국주의의 기치를 드는 것은 곧 종주국의 부르주아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되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민족혁명과 계급혁명 그리고 국제혁명위업에 다같이 기여하게 된다.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명제를 무조건 절대화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의 원쑤처럼 여기고 배척하였다는데 바로 사이비 공산주의자들,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의 이론실천적 착오가 있었다.

사회주의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진정한 민족주의와 진정한 공산주의 사이에는 사실상 깊은 심연도 차이도 없다. 한편에서는 민족성에 대하여 좀더 역점을 찍고 다른 편에서는 계급성에 대하여 좀더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념도 지향도 애국애족의 감정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라고 보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신조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공산주의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민족적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이 결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는데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신의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해방을 위한 실천투쟁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온 민족앞에 과시하였으며 드디어는 민족해방투쟁의 진두를 떳떳이 나서게 되었다.

우리의 이러한 장구한 희생적인 투쟁의 결과로 보람찬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조국광복회 창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광복회≫라는 명칭 자체도 당당하게 내걸고 강령의 첫 조항에 우리 민족 성원 전체의 자력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동만유격근거지에 세웠던 것과 같은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데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야 한다.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이 듣고 난 이동백은 무릎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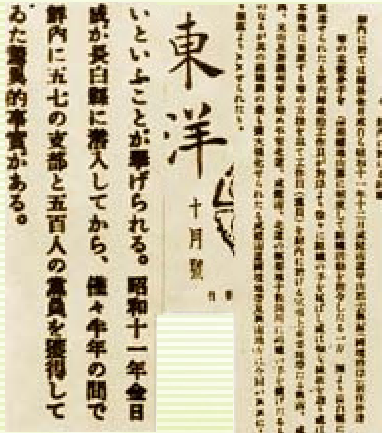
≪이제는 됐습니다! 눈뜬 소경이 됐던 나는 장군과 논쟁을 한 덕에 불구를 면케 됐습니다. 대찬성입니다.≫

강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상치되는 의견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이처럼 주권문제의 해결을 조선민족앞에 나선

일차적 과제로 제시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해외교포들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과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강령에서는 또한 혁명적인 군건설과업도 제기하였으며 경제관계분야에서 일제와 매국적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일본 국가,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과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며 빈곤한 인민을 구제하며 민족적 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업들도 명시하였다.


東洋 十月號

いといふことが擧げられる。昭和十一年金日成が長白縣に潜入してから、僅々半年の間で縣内に五七の支部と五百人の黨員を獲得してゐた驚異的事實がある。

당조직건설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전국적규모에서 확대된데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

민족적 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사상은 민족자본과 매판자본의 차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애국적 민족자본을 장려하며 민족자본가는 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옹호지지하여 반일공동전선에 묶어 세우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방침과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반일적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자본가 일반을 한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과 비록 부르주아라는 명칭은 띠고 있으나 그 지향에서 애국적이고 실천에서 반일적인 모든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의 차이가 있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또한 사회문화적 과업과 대외적 과업도 제시하였다.

종교인이나 민족자본가, 애국적 지주들의 문제에서 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강령 첫 조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미 우리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게 된 이동백은 놀라울 정도로 나의 견해를 앞질러 알아맞히곤 하였다.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김산호나 오백룡과 같은 사람들이 옹졸한 태도를 취하였다.

내가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을 기초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창립준비위원회의 명의로 된 편지들과 선전물들을 준비하였다. 실로 일분 일초의 허실도 허용하지 않고 다 잡아 쓰던 분망한 봄이었다.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을 준비위원회의 최종토의에 붙인 곳은 만강부락의 허락여촌장네 집이다.

≪대통영감≫은 지난날 이른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던 파쟁군들은 변변한 강령조차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는 주제에 눈이 시뻘개서 헤게모니 쟁탈전만 일삼아왔다고 통탄하면서 이제는 캄캄했던 조선혁명의 진로를 더 밝게 비쳐줄 새로운 등대불이 나타났다고 퍽 좋아했다.

4월말에 모든 준비를 끝마친 우리는 창립대회 장소를 동강수림으로 내정하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초청장을 받은 대표들이 그럭저럭 거의 다 모여왔으나 꼭 참석하겠다고 답장까지 보내왔던 남만의 이동광과 전광(오성륜)이 대회가 끝나도록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 오지 못하였다. 국내대표로는 강제하의 조직선을 타고 벽동에서 천도교대표와 농민대표가 왔고 온성지구의 당조직선을 타고 교원대표와 노동자대표들이 각각 한 사람씩 왔다.

역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는 5월 초하룻날부터 시작되었다. 꽃은 만발하지 못하였지만 만산에는 봄빛이 짙었다.

회합을 앞두고 대표들은 모두다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였다.

통칭하여 동강회의라고 부르는 그 회의는 15일 간이나 진행되었다.

나는 보고에서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할 데 대한 과업과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출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항일무장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경 연안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할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할 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 보고가 후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자≫라는 제명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였다.

나는 또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대회 심의에 붙였다.

우리는 10대강령에서 1930년대의 혁명정세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상호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한 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전략전술적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과 각계층 애국적 인민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여 조선혁명의 전도를 명백히 밝혀 주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강령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면서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데 대한 기쁨을 토로하였고 강령에 제시된 과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표들의 가슴을 이만 못지않게 격동시킨 것은 조국광복회의 창립선언에 대한 토론이었다.

창립선언의 구절구절들은 처음부터 참가자들의 심장을 거머잡았다. 특히 온 민족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모두다 조국광복회에 망라되어 싸울 것을 호소한 부분은 회의참가자들을 상당히 격동시켰다.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이 채택된 다음 이 선언을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데 대한 첫 발기도 내가 하였고 창립준비위원회 사업도 내가 주관해 왔으며 또 강령과 창립선언도 내가 작성한 것만큼 토론할 여지도 없이 응당 나의 이름으로 발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조국광복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것만큼 민족적 형식을 띠어야 했다. 그러므로 발기인으로서는 과거 의병운동이나 3·1운동 시기부터 조선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한 명망이 높고 나이가 지숙한 애국지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 당시까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로 만주지방을 투쟁무대로 삼아 싸워 왔기 때문에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름이 국내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백두산에 새로운 비밀근거지들이 설치되고 무장투쟁이 국내 깊이까지 확대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우리 주력부대의 움직임과 투쟁에 대하여 국내 신문이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 아마 1936년 3월 어느 날 ≪매일신보≫였다고 기억된다. 그때 ≪매일신보≫는 장백현에 150-16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진출하였는데 ≪부대의 수령은 **김일성**이라고 한다.≫라고 슬쩍 언급하였다. 이것을 시발로 국내의 출판물들은 우리의 활동을 자주 보고하였다.



조국광복회창립을 알리는 혁명적구호들

나는 대회 대표들에게 솔직히 말해 주었다. 누가 첫 발기자였고 누가 준비위원회를 책임져 왔고 또 누가 강령과 규약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아무개의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모두다 우기는데 그런 사실이나 따져가며 나 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2천만 동포가 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조국광복회에 결집해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있다. 나를 동포 민중의 한 아들로 여기고 민중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했다고 치면 그만이 아닌가. 대의를 위하여 소의를 버리고 나이도 지숙하고 명망도 높은 애국지사들로 공동발기인을 삼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이동백과 여운형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선언문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여운형

나의 제안에 먼저 반기를 들고나선 것은 이동백이었다. 그는 연세나 지난날의 명망 같은 것은 별로 고려할 바가 못된다고 하면서 실천적으로 전민족을 대표하여 조국광복의 대업을 맡아 나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는 국내외를 통틀어도 **김**장군밖에 없는데 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발기인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국광복회 회장도 마땅히 김 장군이 돼야 하고 발기인도 **김**장군이 돼야 하다고 다시금 고집해 나섰다. 그는 나의 제안을 참작하여 나와 함께 여운형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자고 하였다.

신중한 토의 끝에 결국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 내가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되는데 동의하였다. 나의 양보를 받자 이동백이도 발기인으로 나서는데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5월 5일에 발표된 조국광복회창립선언에는 김동명, 이동백, 여운형 세 사람의 이름이 공동발기인으로 기재되었다.

나에게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붙여 준 것은 이동백이었다. 내가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만 동의하겠다고 하자 그는 더 우기지 못하고 생각을 더듬다가 가명의 성을 그대로 김씨로 하고 이름은 동녘 ≪동≫자 밝을 ≪명≫자를 붙여 ≪동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동명≫이라고 달게 되면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여러 모로 뜻깊은 이름으로 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김동명≫이라는 가명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우리가 발표한 조국광복회선언은 그 후 국내의 여러 곳에 발송되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자기대로 복제하여 발표하면서 각기 자기 지방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저명인사의 이름을 발기인으로 바꾸어 써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조국광복회 명칭 자체도 동만에서는 동만 조선인 조국광복회라고 달았다면 남만에서는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라고 달았다. 당역사연구소에서 발굴한 조국광복회 선언문들에 더러 오성륜, 엄수명, 이상준(이동광), 안광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은 그런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나는 참가자들의 총의에 따라 조국광복회 창립대회에서 이 조직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가 탄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혁명의 군중적 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성 있고 체계성 있게 빨리 발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역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의 총력을 광복전선에 결집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투쟁 시초부터 내세운 지상의 과제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해 전부터 인내성 있는 준비를 해왔다.

조국광복회 창립은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의 위력한 산물이였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의지를 다시금 엄숙하게 선포한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떠밀어가는 전환점으로 되었다.



장군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는 대표들
(예술영화 - 민족의 태양)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조선혁명 자체발전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각지에서 그것을 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 나왔다. 선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독립군부대들이였다.

조국광복회 창립이 선포된 직후 조선혁명군 정부참모장으로 있던 윤일파는 우리에게 서한을 보내어 조국광복회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반일전선에서 긴밀한 연계를 지을 것을 희망해 왔다. 또한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주의운동자 박 모는 불원천리하고 만주까지 찾아와서 조국광복회 남만 대표들을 만났다. 상해, 베이징, 천진 등 중국 관내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종사한 애국지사로서 민족주의운동자들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앞으로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서 조국광복회 사업을 널리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전민족적 이무장역량으로서 ≪독립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방도문제를 놓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3·1월간≫창간호에 이동백이 ≪천도교 상급 영수 모씨! 우리 광복회대표를 친히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쓴 것처럼 천도교 도정이었던 박인진도 조국광복회가 창립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우리를 찾아 백두산밀영을 방문해 왔었다. 천도교청년당에 속한 100만 당원을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때의 일이다.

이창신, 이제순, 박달 기타 많은 사람들이 연속 우리를 찾아왔고 조국광복회의 조직확대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단시일 안에 수십만 회원을 가진 범민족적 조직으로 확대발전한 조국광복회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아마 큰 책 몇 권에도 다 담기 어려울 것이다.

1936년 5월 백두산 북쪽 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보다 창창한 새날은 이렇게 백두산기슭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



2.로동자와 농민들은 한데 뭉치고
각계각층 군중들과 련합을 하여
있는 재부 지식능력 모두다 동원하여
부강조선 건설함이 제2조로다

3.왜놈의 륙해공군 신식무장을
모두다 우리 손에 빼앗아 쥐고
주저 말고 용감하게 모두 나가 싸우는
우리 군대 조직함이 제3조로다

4.왜놈의 개떼들이 모아 둔 돈은
우리 동포 피땀 흘려 벌어 준거다
모조리 빼앗아서 군비로 충당하고
동포도 구제함이 제4조로다

5.재촉하는 빚과 세납 물지를 말며
착취하는 전제제도 반대하면서
우리의 산업을 우리 손으로 건설해
순조롭게 발전함이 제5조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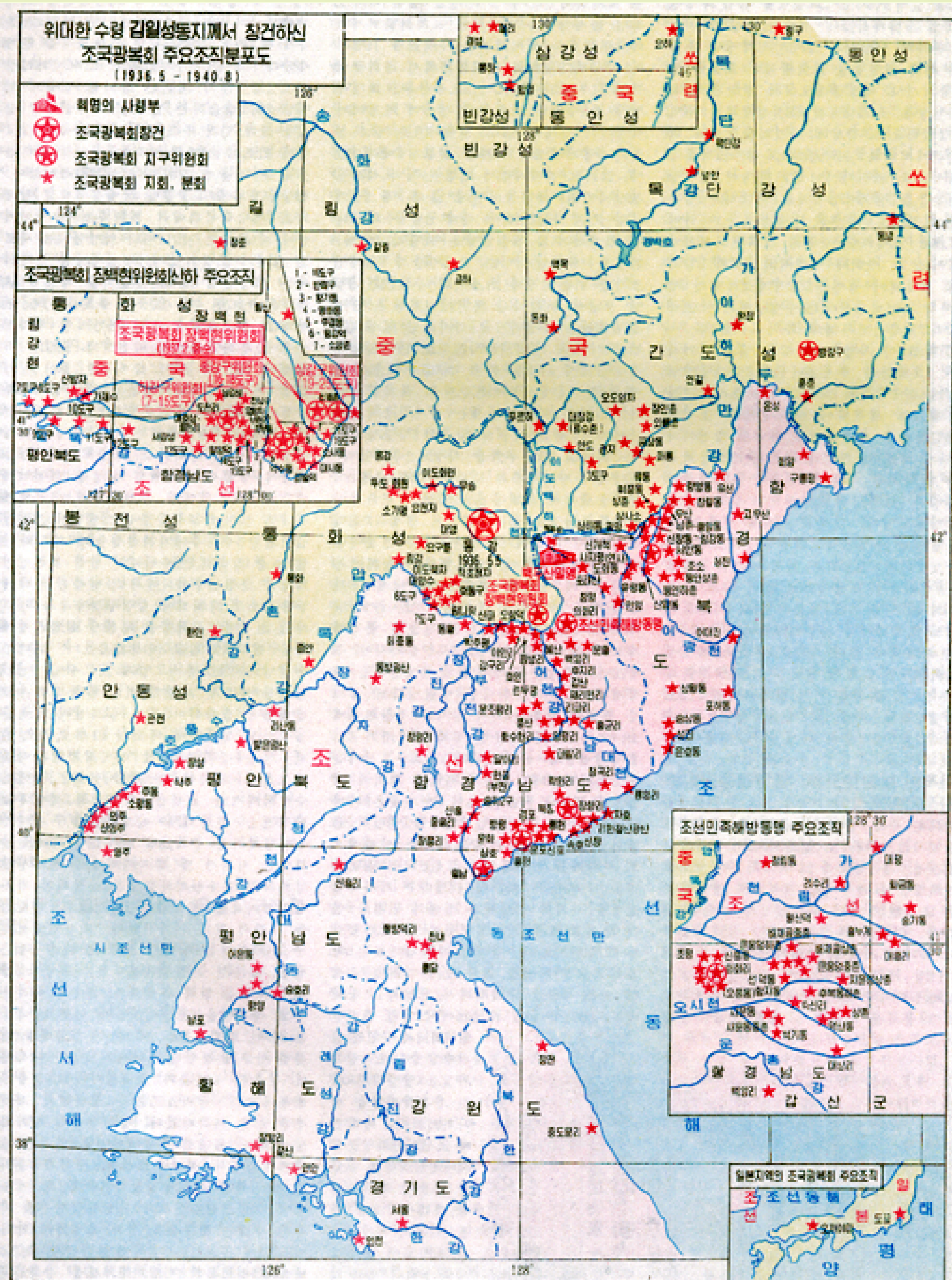
6.언론 출판 사상 결사 자유를 찾아
봉건세력 백색테로 반대하고서
체포된 우리 투사 모두 탈환해 내여
배신자를 쫓아 냄이 제6조로다

7.량반 상놈 남녀로소 가리지 말고
한결 같은 평등 행복 누려 가면서
연약한 부녀들을 존중하고 돌보아
인격 지위 보장함이 제7조로다

8.우리 민족 노예 삼는 동화교육과
싸워에서 죽이려는 군사훈련을
굳세게 반대하며 튼튼히 뭉쳐 나서
우리 문화 보급함이 제8조로다

9.우리들이 쓰는 물건 만들어 주는
로동자의 임금과 대우 높이고
실업자와 병든 자를 지성껏 도와 주며
치료하고 살려 줌이 제9조로다

10.우리들을 도와 주는 나라와 민족
친밀하게 련합하여 하나가 되고
원쑤와 한편 되는 간악한 부르죠아
한결같이 반대함이 제10조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
(1936.5 - 1940.8)
혁명의 사령부
조국광복회창건
조국광복회 지구위원회
조국광복회 지회, 분회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산하 주요조직
조선민족해방동맹 주요조직
일본지역의 조국광복회 주요조직
길림성
안동성
통화성
빈강성
목단강성
간도성
삼강성
동안성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조선동해
조선서해
서조선만
동조선만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1936.5.5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
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 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김 일 성




전민족대단결 만세!
조국통일 만세!
3자연대 만세!
조국통일 만세!
민족도 하나
조국도 하나
민족도 하나
피줄도 하나!
조국통일 만세!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 만세!
주체89(2000)년 2월 16일
통일된 조선민족
만세!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온다!
조선은 하나다!
남북이 한마음
Korea Is One!
민족대단결로
통일하자!
3대헌장 기치아래 조국통일
완수하자!
통일위해 단결합시